금주의 법구-〈법구경〉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6월 29일)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20돌 템플스테이와 20살 청춘 만남

스무살 청춘들이 20돌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스무살 맞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날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연등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108배, 명상 등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군승' 의무화 첫 발, 수급 숨통 틔워

조계종 중앙종회, 7월 19일 '청소년 출가 특별법' 개정안 가결

노덕현 · 송지희 기자

本紙 기획연재 '군승파송 절벽 다가온다' 보도 후 군승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립대학 청소년출가자들의 군승 의무복무' 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종단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한 호평과 함께 이들이 군승으로 복무할 시기까지의 단기수급책과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장기적인 군포교 진흥책을 마련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립대 군미필스님, 군승 의무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7월 19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출가장려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출가특위)' 가 입법발의한 '청소년 출가 ·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10조 '군법사 지원특례' 조항을 '군승 복무 및 지원특례' 로 변경하고, '소년출가자 중 현역의무복무 대상자인 자가 종립대학을 졸업한 때에는 반드시 군승으로 의무복역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기존 '소년출가자가 구족계를 받은 후 군법사를 지원할 경우 우선선발해야 한다' 는 조항에서 의무를 대폭 강화해 강제성을 부여한 셈이다.

그에 따른 혜택도 명시됐다. 개정안은 같은 조 3항에 '소년출가자(사미, 사미니, 비구, 비구니)가 종립대학에 재학중이고 군승복무를 약정한 경우 종단은 제9조 3항 이외에 매월 수행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年2~10명 수급 기대, 최소 충족

이번 종립대학 청소년출가자의 군승 의무복무로 인하여 수급에는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주요 대상자인 소년출가자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연간 10여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군승으로 임관하기까지 적어도 4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다.

국방부는 3월 조계종 총무원장 및 군종교구장 앞으로 '군종장교 충원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군종장교 파송이 지속적으로 제한될 경우 부득이 군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진입한 종교나 진입하려고 노력하는 종교 및 종단으로부터 군종장교를 충원 받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년출가자' 의무복무제 종회서 만장일치로 가결
本紙보도 영향 한목소리

4년간 수급책 추가 과제
군인연금 · 석사 연동 등
현장 맞는 진흥책도 필요

국방부에서 내년 4월까지 요구하는 파송인원은 올해 파송 미달 영향으로 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종특별교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모집한 군승 자원은 14명으로, 선발과정에서의 탈락 등을 감안하면 10여명이 더 필요한 상황,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 등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중앙종회 출가특위 위원장 정범 스님은 "종회의원 스님들이 군포교의 중요성과 군승 파송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뜻을 모아준 결과"라면서도 "군승 인재 육성과 수급의 최소요건을 만든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연동 · 학업 병행 등 지원 필요

단기대책 외에도 장기복무 확대와 세밀한 군승 처우 개선 등 장기 대책도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가령 의무복무를 하게 될 종립대학 스님들의 경우 석박사 과정을 밟을 시 군종장교 3년 복무로 인한 학업 단절에 대비, 학업 병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년 이상 군복무시 수령할 수 있는 군인연금이 격오지 근법당서 오랜기간 있는 군승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현재 군승 중 연금 수령 필요조건인 소령 진급자는 전체 군승 중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군종특별교구 기획국장 현해 스님은 "대다수의 군종장교는 임관 시점이 빠르지 않아 연금 수령기한인 2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게 된다"며 "장기복무를 했지만 중도 전역하는 군승들에게 연금이 연동되는 교법사를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다면 수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일반 재가학생들도 군승을 지원하게 된다면 출가자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현장의 니즈를 세밀하게 파악해 종단이 여러 방안을 만들어 갈 때 실마리가 생길 것"이라고 제안했다.

9월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선관위, 7월 20일 일정 등 확정
8월8일 공명선거위원단 출범식
후보등록 8월 9일~11일 3일간

한국불교 최대종단 조계종이 새로운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체제에 돌입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7월 20일 제384차 회의를 열고 제37대 총무원장 선거 시행일정을 비롯해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지침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제37대 총무원장 선거는 9월 1일 시행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직접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한 중앙선관위 회의는 8월 18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다만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단독후보시 선거 없이 당선토록 규정돼 있어, 후보등록 기간 중 1인 등록시에는 선거인단 구성 없이 무투표 당선 확정된다.

선거인단 선출기간은 8월 17일부터 21일까지다.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본사 주지 포함)이며, 선거인단 자격심사는 8월 26일 오후 2시 열린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선거 진행을 위해 공명선거위원단도 구성, 운영된다. 중앙선관위는 8월 8일 오후 2시 공명선거위원단 출범식을 열고 위원 위촉 및 공명선거 활동서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선거법 제8조에 따르면 공명선거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후보자가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 총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날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선거운동은 선거법 제39조와 40조, 제47조에 근거해 종책자료집과 신문광고, 종책토론회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법상 규정이 없는 SNS는 선거운동 방식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장 세영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의 중차대한 일인 만큼, 선거일정과 제반사항, 추진과정 등에서 일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상월결사, 2월 9일부터 印 순례

7월 20일 간담회 열고 공식일정 공개

2월9일부터 3월23일까지
1167km 印 8대 성지 순례
100여명 순례단 구성 예정

불교중흥과 국난극복,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3년간 이어온 상월결사가 대장정의 핵심인 인도만행결사를 드디어 봉행한다.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7월 20일 동국대 본관 건학위 회의실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 '(가칭)상월결사, 부처님과 함께 걷다'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을 비롯해 순례단장 원명스님, 천리순례 3조 조장 법원 스님, 4조 조장 설암 스님, 박기련 상월결사 지원단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총도감 호산 스님은 "지금까지 순례의 최고 결정체"라고 각오를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상월결사 '(가칭)상월결사, 부처님과 함께 걷다' 는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43일간 진행된다.

순례코스는 인도, 네팔의 부처님 탄생부터 열반지까지 부처님 8대성지를 순례하는 길이며 그동안의 상월결사 순례와 마찬가지로 길위에서 먹고 자고 행선하며 부처님처럼 전법수행을 펼친다.

하루 행선 거리는 24~30km로 현지 42박 중 텐트에서 29박, 별도 숙소에서 12박을 머물게 된다. 녹야원, 마하보디 대탑, 죽림정사, 쿠시나가르 등에서는 대규모 법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매일 행선은 새벽 3시에 시작돼 묵언 속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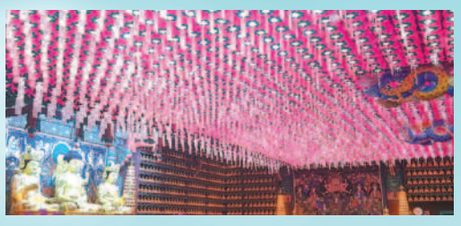
총도감 호산 스님은 "이러한 대장정을 처음하기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인도 만행결사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는 불교 전체의 일이고 대한민국의 일이고 불교중흥 국민화합 세계평화의 결사가 성취되는 한걸음 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미리 보는 상월결사 인도성지순례 3면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 · 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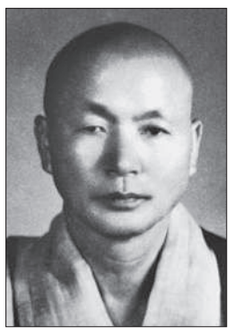

혼란 속 굳건한 흔들림 없는 방향성 제시

통합종단 60년, 과거서 현재를 보다

① 성립 배경 ③ 출범 이후
② 출범 과정 **④ 주요 인물**
⑤ 평가와 과제

출범 전후 비구 · 대처측 갈등
정부주도로 봉합 예견된 결과
비구 효봉·경산·청담스님 등
정화기치 토대로 명분 굳건히
대처측 임석진·박대륜 스님등
부당함 반발해 정체성 지켜내


효봉 스님


청담 스님


경산 스님


박대륜 스님


국묵담 스님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962년 4월 11일 통합종단이 출범하기까지 한국불교는 숱한 곡절을 겪어야 했다. 비구 · 대처간 지난하게 이어진 분쟁과 갈등은 결국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돼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으며, 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상징하는 통합종단이 출범한 후에도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채 삐걱거렸다. 사실상 정부 주도로 추진된 갈등구도의 강제적 봉합 속에서 혼란과 분열은 불가피한 귀결이었다.

그럼에도 비구 · 대처 양측이 각기 확고한 방향성과 명분으로 저마다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각기 정통성과 원력을 담아내고자 했던 당대 스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합종단 출범과 관련한 핵심인물들을 짚어봐야 할 이유다.

우선 통합종단 출범 당시 초대 종정을 역임한 비구측 효봉 스님과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대처측 임석진 스님은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8년 동안 이어진 불교계 분쟁의 종식을 공식 선언한 대표자라는 점 때문이다. 효봉 스님은 통합종단 취임식에서 "불교종단의 단합은 매우 뜻깊은 일로서 우리는 앞으로 시들지 않는 한국불교의 꽃을 가꾸어 나가자"고 선언했다. 그러나 통합종단은 출발부터 비구 · 대처측 집행부 임원 선임 등에서 긴장감이 지속됐다. 임석진 스님은 5월경 종정 효봉 스님에게 보낸 서신에서 "통합된 종단의 원만운영을 위해 걱정해 주시는 원념에 깊히 감하하며 앞으로 소납이 맡은 바를 수행함에 있어 전력을 다할 것을 각오한다"면서도 "다만 화합을 위해 법리조례를 까다롭게 따지기보다는 분규의 요소를 해소시키고자 하기에 총무원 직원 임명문제가 지연되는 것이니, 독신승으로 임명하라 함은 화동단합의 근본정신을 감안할 때 적합지 못한 말씀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결국 7월경에야 양측 동수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문교부에 사회단체 등록을 했지만, 초대종회를 두고 갈등이 재점화됐다. 결국 일부 대처측 스님들은 법륜사에 총무원을 꾸리고 비구중심의 통합종단 무효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임석진 스님 또한 9월경 "화동단합이 깨지고 불교재건의 여망이 없는 지금 일부 독신승들의 와중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임한다.

이때 대처측 총무원장이 박대륜 스님, 종정이 국성우(묵담) 스님이다. 박대륜 스님은 1970년 창종한 태고종의 초대 종정이며, 국성우 스님은 통합종단 성립의 기초를 만든 불교재건위원회에서 비구측 동산 스님과 함께 종정으로 추대돼 합의선서를 했던 대처측 대표였다. 박대륜 스님은 특히 정부에 대처측 명의로 사찰등록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서는 등 태고종 창종의 토대를 쌓아나가는 등 행보로 주목된다.

대처측 임석진 스님의 사임 이후 혼란 속에서 통합종단 총무원장에 취임한 김법룡 스님은 대처측이었으나, 양측간 팽팽하게 이어진 긴장 속에서도 3년 3개월간 소임을 지속한다. 그리고 통합종단 첫 비구측 총무원장 경산 스님(초대 총무부장)에 이어 통합종단 출범을 이끌었던 청담 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한다. 경산 스님과 청담 스님은 효봉 스님, 인곡 스님, 월하 스님 등과 함께 불교정화의 주역이자 통합종단 출범에 앞서 '승려 8대 원칙' 을 정한 핵심인물들이었다.

통합종단 전후 상황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주요인물들은 사실 당시 한국불교를 대표했던 명망높은 스님들이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특히 비구측 스님들의 경우 사실상 불교정화의 기치를 세우고 통합종단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주역이라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이에 비해 대처측 스님들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아쉽다.

종헌개정안 5건 전부 이월 · 부결

종회, 7월 19일 225차 임시회
총림 요건 완화 등 법안 이월
원로 의장 임기 단축은 부결
"최고법 종헌개정, 신중해야"


중앙종회는 7월 19일 225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25회 임시회에 상정된 종헌개정안 5건이 모두 이월되거나 부결됐다. 종헌은 종단 최상위 법인만큼, 종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가운데 정기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종회는 7월 19일 제225회 임시회를 열고 첫 안건으로 종헌개정안 5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5건 가운데 4건이 이월됐으며, 1건은 부결됐다. 종회에 입법발의된 종헌개정안이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다.

우선 종헌개정안 가운데 총림 구성요건을 4개 수행교육기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3개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은 발의자 요청으로 이월됐다. 호산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은 총림 구성요건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호산 스님이 "중요한 안건이기에 정기회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월을 요청하면서 논의는 차기로 연기됐다.

두 번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제출한 원로의장 임기 단축의 건은 논의 끝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부결됐다.

한 중앙종회의원 스님은 "종헌은 종단 최고법이자 흔들림 없는 위상과 정체성을 가지는 법안이기에 임시회를 통해 논의되기보다는 정기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특히 원로회의 등 일각의 요청에 따라 개정이 이뤄져선 안 될 뿐 아니라 효율성과 일관성, 효율성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혜일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도 이월됐다. 혜일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은 원로회의의 권한에 2급 이상의 법계심의권을 대종사 법계 심의권으로 개정하고, 종단 중요종책 심의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광 스님이 대표발의한 겸직금지 제한 완화의 건은 애초 격렬한 찬반논란이 예견됐던 법안이다. 개정취지는 중앙종회의원의 의정활동 경험을 종무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종무원의 겸직금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종헌개정안은 현행 제35조에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소임에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종무원을 명시한 규정을,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만으로 좁히는 안이다. 그러나 토론 끝에 선광 스님이 법안의 수정보완 후 다시 논의키로 요청함에 따라 차기로 이월됐다.

마지막으로 선광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도 이월됐다. 해당법안은 총무원장 자격을 기존 승납 30년, 연령 50세로 제한한 현행 종헌 제53조를, 승납 35년, 연령 55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225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법안은 9월 종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17대 중앙종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는 점에서 향후 개정이 지속추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조계종 최고법계인 대종사 24명, 명사 27명 등 51명에 대한 특별전형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송지희 기자

원행 스님, 우크라이나 난민 위해 20만 불

7월 18일 우크라 대사에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난민 구호 기금 20만 달러(한화 2억 6000만원 상당)를 전달하며 전쟁 종식과 평화를 기원했다.

원행 스님은 7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예방을 받고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지원금을 전달했다.〈사진〉

스님은 드미트로 대사에게 "러시아가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조국과 국민 걱정에 마음이 편하지 않겠지만 마음을 굳건히 하고 전쟁 종식을 위해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종단은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긴급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本紙**가 협업해 진행된 모금 캠페인에는 총 6억 원이 조성됐으며 앞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도 6월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대사에게 20만 불을 전달한 바 있다. 모금 캠페인은 8월 12일까지 진행된다. 02)737-9595

임은호 기자

조계종, 선암사 주지 직무대행에 대진 스님

7월 20일 임명장 수여

조계종 제20교구본사 선암사 주지 직무대행에 구례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이 임명됐다. 선암사는 수년째 조계종과 태고종간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법적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소임을 맡은 대진 스님의 역할에 관심이 모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0일 대진 스님에게 주지 직무대행 임명장을 수여했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소임을 수락해 줘 감사하다"며 "종단의 여러 입장과 종도들의 염원을 담아 소임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

특히 스님은 이날 임명장 수여에 앞서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상황과 관련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하고 있기에,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종단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진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종단의 집행부와 잘 소통하고 논의해 원만하게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진 스님은 종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6년 수계했다.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및 천은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송지희 기자

KOMSCO 한국조폐공사

국보 반가사유상 지폐형 기념메달

2022년 7월 21일 출시



옛 국보 83호
삼국시대, 금속(금동)
높이 90.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반가사유상 지폐형 기념 금메달



판매가격 : 2,640,000원
순금(Au999) / 20g / 154X68mm / UNC급

국보 반가사유상 지폐형 기념 은메달



판매가격 : 110,000원
순은(Ag999) / 10g / 154X68mm / UNC급

2022년 5월 4일 완판



옛 국보 78호
삼국시대, 금속(금동)
높이 81.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선착순 예약접수〉 7.21.(목)-8.5.(금),16일간
※ 배송 · 교부 : 11.21.(월)-11.25.(금)
구매처 : 한국조폐공사 오롯 다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66 (6호선 광흥창역 5번 출구 / 주차가능)

온라인 판매
KOMSCO 한국조폐공사
POONGSAN 풍동양행
THE HYUNDAI.COM GS SHOP
LOTTE ON 롯데백화점

오프라인 판매
KOMSCO ORODT & DIYUM

협력 기관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제조 및 판매 주관
KOMSCO 한국조폐공사
www.koreamint.com
문의: 1577-4321

오롯 골드바, 한국조폐공사가 순도 99.99%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구매처
오프라인: 한국조폐공사 오롯·디움관
온라인: 한국조폐공사 쇼핑몰 (www.koreamint.com)

문의
02-710-5222~5223

“부처님 전법길 우리도”…43일 1167km 대장정

〈2.9~3.23〉

미리 보는 상월결사 인도성지순례



순례 접수
010-4958-6288 (지객 원명 스님)

주요 순례지

① 2월 11일
최초로 설법 이뤄진 사르나트

② 2월 21일
부처님 성도지 보드가야


③ 2월 25일
최초사찰 죽림정사 법화경 설법지 라지기르


④ 2월 26일
세계최초 불교종합대학 나란다대학


⑤ 3월 1일
마하파자파티가 출가한 바이샬리


⑥ 3월 9일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르


⑦ 3월 14일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⑧ 3월 20일
금강경 설법지 쉬라바스티

부처님이 걸었던 전법길을 따라가는 상월결사 인도성지순례는 43일 동안 1167km를 직접 걷는 대장정이다. 매일 새벽 3시 출발, 하루 평균 25km씩 무더위와 싸우며 강행군을 하게 된다. 기내 1박을 제외한 현지 42박 중 숲과 학교공터 등에서 텐트로 29박을 하고, 목욕과 빨래 등 개인 정비를 위해 숙소에서 12박을 하게 된다. 출가자 재가자, 남녀노소 모두 차별없이 평등하게 길 위에서 걷고 먹으며 정진하게 된다.

녹야원서 결사 발원

순례는 서울 인천에서 에어인디아를 통해 델리에 도착하는 2023년 2월 9일부터 시작이다. 2월 10일 델리에서는 다시 인도 국내선 비행기로 바라나시로 이동한다. 바라나시에서는 녹야원이 있는 사르나트로 약 25km를 차량으로 이동한다. 이날 순례단은 영불탑과 녹야원을 순례하게 된다.

본격적인 순례는 2월 11일 사르나트 녹야원에서의 ‘원만회향 발원 기도 및 입재식’으로 시작된다. 입재식 후 사르나트를 출발한 순례단은 6km를 걸어 갠지스강 선착장에 도착한다. 하선장까지 약 4km를 갠지스강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는 부처님 전법행에서 갠지스강을 건넌 일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다. 배를 건너 도착하는 모래언덕이 모래섬 항하사로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업을 씻는다고 전해진다. 람나가르에 도착한 순례단은 2월 12일 다시 출발해 카코리아에서 쉬브람푸르, 바부아, 체나리, 사사람, 손나가르, 파르사, 엄어와, 카파시야를 거쳐 부처님 성도지인 보드가야에 21일 도착한다. 보드가야에서는 마하보디대탑과 수자타 마을을 순례한다. 보드가야에 이르러서 10일만에 숙소에서 숙박을 하게 된다.

보드가야에 도착한 순례단은 2월 22일 기도법회와 함께 막간 휴식을 취한다. 보드가야에서 초반부의 힘든 여정을 잠시 쉬며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순례단은 2월 23일 다시 순례를 이어 보드가야에서 카이야, 비까이푸르를 거쳐 25일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신 영축산이 있는 라지기르에 도착한다. 라지기르에서는 영축산 기도법회와 함께 죽림정사, 아자트사투르 스투파 참배가 진행된다.

2월 26일에는 라지기르를 출발해 나란다 대학터를 거쳐 케웨이, 나가르나우사, 하지푸르에 도착한다. 이날은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중 하나인 파트마 간디교를 순례 중 건너게 된다.

기원정사서 결사회향

하지푸르에 도착한 순례단은 3월 1일 바이샬리에 도착한다. 1167km의 전체 순례 일정 중 513km를 순례한 사실상 반환점이다. 먼저 바이샬리에서 순례단은 근본사리탑터와 대림정사터를 참배한다. 이어 3월 2일 바이샬리에서 다르파리, 케사리야, 사다우아, 고팔간지, 두바울리야, 삐빠라까낙을 거쳐 3월 8일 부처님 열반지인 쿠시나가르에 당도한다. 여기서는 열반당과 다비장 참배가 진행된다. 3월 9일 쿠시나가르에서는 보드가야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 기도법회를 열고 부처님 가르침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순례단은 3월 10일 쿠시나가르를 출발하여 세마라, 하르푸르, 브랫터와, 코리야를 거쳐 3월 14일 네팔 국경을 통과해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 도착한다.

순례단은 룸비니에 도착 즉시 기도법회를 열고, 룸비니 동산을 참배한다. 3월 15일 룸비니를 출발한 순례단은 다시 국경을 넘어 인도로 들어와 카필라바스투를 거쳐 피프라흐와 파르사, 지기나마피, 서드와푸르, 두르가푸르를 통해 3월 20일 회향지인 쉬라바스티에 당도한다.

쉬라바스티에 도착 전 천불화현탑 참배가 진행되며 쉬라바스티에서는 기원정사에서 기도 및 회향법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희 스님, 조계종 첫 비구니어산어장 지정

조계종, 7월 20일 증서전달
어산종장 보천 스님 지정도


7월 20일 비구니 어산어장 지정식 모습.

조계종 사상 첫 비구니어산어장이 탄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0일 어산종장 동희 스님을 비구니 어산어장으로 지정하고 증서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문경 혜국사 주지(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감) 보천 스님을 어산종장으로 지정했다.

이는 ‘종단 어산어장, 어산종장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어산어장은 어산 분야의 탁월한 재능 보유자로 어산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비구·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한다. 어산종장은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할 경우 지정된다.

특히 동희 스님은 이날 종단 사상 첫 비구니어산어장으로 지정돼 의미를 더했다. 스님은 진관사 수륙대재를 이끌며 어산종장으로서 불교의례 발전과 후학양성에 매진해 왔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늦게나마 비구니어산어장을 모시게 됐다”며 “앞으로 불교의례 발전을 이끌고 후학 양성에도 힘써 달라. 진관사 수륙대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어산어장 동희 스님은 “몸이 다할 때까지 열심히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어산종장 보천 스님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종교차별 현장 신고하세요”

종교차별 신고센터 홈피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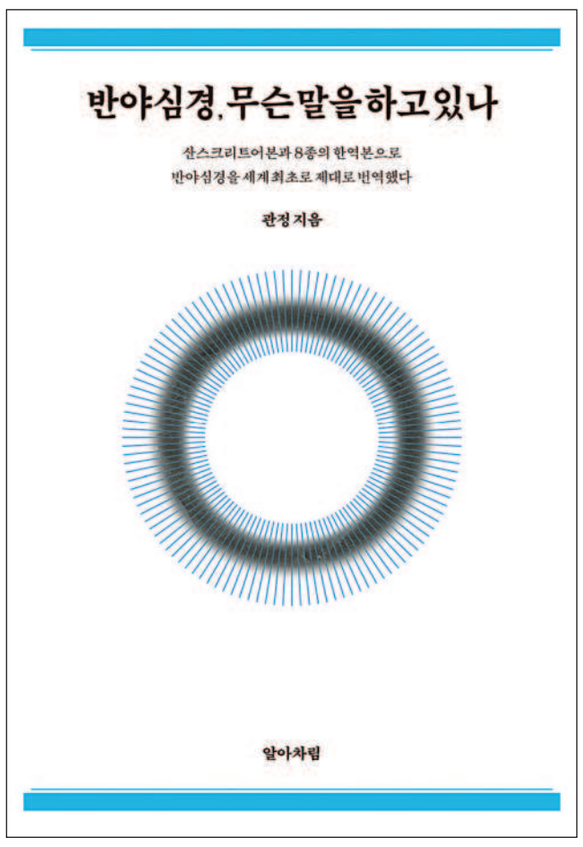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종교차별 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종교차별신고센터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는 7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종교차별 및 편향사태 대응을 위해 ‘종교차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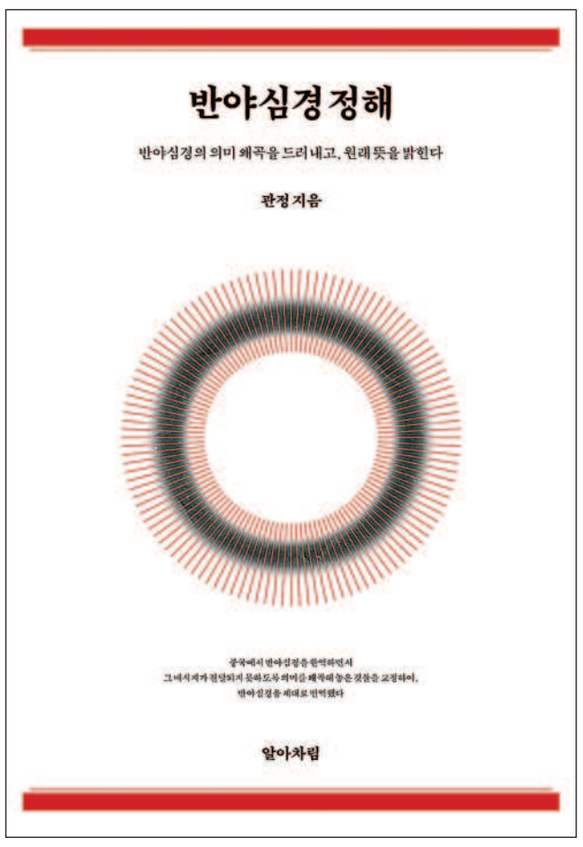
종교차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buddh.kr)는 △제보 △공지사항 △뉴스 △염불 △주어사 천진암 공부 모임 등으로 구성됐다. 제보는 간단한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가능하도록 만들어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글의 난립을 막도록 했다.

공지사항에는 종교차별과 관련해 항의 성명과 사례, 각종 교육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뉴스에서는 다양한 언론과 매체에서 발행된 종교편향 관련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 관정 지음 | 220쪽 | 양장제본 | 16,000원
산스크리트어본과 8종의 한역본으로 반야심경을 제대로 번역하여, 반야심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 또 반야가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있고, 반야를 완성하는 수행방법을 말해주고 있다.



| 관정 지음 | 791쪽 | 양장제본 | 65,000원
저자가 15년 동안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어본과 8종의 한문본을 붙들고 씨름하여, 세계 최초로 <반야심경>을 제대로 번역하고, 해설한 역작이다.

중국에서 〈반야심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 하도록 의미를 왜곡해 놓은 것들을 모두 교정한 뒤 그것을 정확하고도 쉬운 말로 번역했다

현재 13개 언론에서 극찬리 보도중!! 운주사 불교서적 7월 월간베스트 1,2위!

책을 추천하는 말

- 관정 스님께서 난해하기 짝이 없는 반야심경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여, 정확한 말로 번역, 해설한 것은 반야심경 연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 당나라 현장법사 이후 가장 많은 불전을 번역한 전재성 박사**
- 관정 스님은 단순히 반야심경을 정확하고도 쉬운 말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본과 8종의 한역본을 연구하여, 반야심경이 한문으로 번역될 때 잘못 번역된 것을 모두 바로 잡았다. **– 〈반야심경과 마음공부〉의 저자 법상 스님**
- 관정 스님은 〈반야심경〉을 명료하게 번역해 놓았다. 관정 스님이 번역한 〈반야심경〉을 접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반야심경〉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버린다. 여태껏 그 어떤 〈반야심경〉의 번역도 이런 뜻으로 해석한 것이 없었고, 이렇게 분명한 언어로 번역한 것도 없었다. **– 방어산 은둔 비구 普信(보신) 스님**
- 관정 스님의 이 책은 〈반야심경〉 역해사(譯解史)에서 기념비적인 의의를 가질 것이며,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영남대학교 철학과 최재목 교수**
- 〈반야심경〉 책은 일본에서도 많이 출판됐다. 관정 스님의 반야심경 번역은 일본의 그 어떤 번역보다 정확하다고 본다. **– 경북대학교 일문학과 이종환 명예교수**

※ 기타 책 내용 및 저자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 이 책을 검색해서 얻기 바랍니다. 사찰 단체 구입 시 특별 할인가로 제공.

알아차림 출판사 051) 516-0093, david1080@hanmail.net

‘하루 100원 보시’ 불자 자긍심 높였다

백만원력 3년, 어떤 성과 일궜나

下 보시 동참으로 불자 자긍심 고취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하루 100원 보시로 대작불사
개개인 풀뿌리 원력모여 결실
불자 정체성 · 자긍심도 고취
“물 한 방울이 모여 바다 이뤄”
“종단 모금문화 바꿨다” 평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2019년 12월 진행된 ‘발우저금통 여는날’ 행사에서 발우저금통에 담긴 동전을 쏟아내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올 초 백년대계본부로 익명의 택배상자가 도착했다. 상자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로 가득 찬 발우저금통과 편지봉투가 가지런히 담겼고 손글씨로 또박또박 작성된 편지에는 ‘백만원력 결집불사 원만 성취 기원합니다’ ‘세계평화, 남북통일, 대한민국 불국토’ ‘조그마한 씨앗 종자가 커져 불사가 원만히 이뤄지길’ 등의 문구가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발우저금통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취임 직후 36대 집행부가 추진해야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불자 100만 명이 하루 100원씩 보시하는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추진하면서 만들어졌다. 하루 100원 보시가 1개월 3000원, 1년 3만 6000원의 원력으로 이어지면 한국불교 미래 청사진을 바꾸는 원력 결집의 대불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매일 대승원력보살 발원문을 독송하며 백만원력결집불사를 시행한지 3년. 전국 사찰과 단체, 불자들에게 발우저금통 10만 개 배포됐다. 발우모양 저금통에 실린 정성의 무게는 새로운 신행문화의 가능성을 알렸다. 생활 속에서 보시를 실천하게 됐고 이는 자연스럽게 정기후원(CMS)과 전화(ARS), 지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았다. 불자들의 동참으로 3년 전, 360억 원 모금을 목표로 시작된 백만원력결집불사에는 현재까지 138여억 원이 모연된 상태다.

백만원력결집불사 초기 조계종 안팎에서는 사업의 성공 여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계룡대 3군본부 영외법당 건립, 불교요양병원 건립 등 각 사업별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숙원 사업으로 필요성이 항상 언급은 됐지만 재원에 대한 막연함에 누구도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십시일반 불자들의 모연이 시작되자 세간의 우려는 금새 환희로 바뀌었다. 전국 사찰을 비롯해 수많은 불자들이 각자의 원력으로 크고 작은 기금을 전했다. 고사리 손으로 저금통에 동전을 모은 새싹불자부터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부모의 염원, 더 나은 불교로 거듭나길 바라는 불자의 원력까지. 개개인의 풀뿌리 원력이 백만원력 결집불사라는 하나의 창구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기대 이상의 결과물들이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정기후원(CMS)과 전화(ARS), 지로, 계좌이체(저금통)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연된 순수 보시금으로 인도 부다가야에 첫 한국 전통사찰이 지난 5월 결실을 맺었다. 다음 달에는 신도시 포교 활성화 염원이 담긴 세종시 광제사 낙성식을 갖고 그 모습을 드러낸다. 광제사가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계획수입 이후 10년만이기에 더욱 뜻 깊다.

백만원력결집불사 동참자들은 “한 방울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은다. 십시일반 원력을 모은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이는 불자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도 역할을 했다는 게 동참자들의 의견이다. 백만원력결집불사가 종단이 추진해온 모금 문화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백만원력결집위원회 측은 “한국불교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불자들이 무엇을 해야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를 일깨우는 불사”라며 “한국불교 숙원 과제를 불자들의 손으로 하나하나 이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노숙인 친구’ 탄경 스님, 만해 실천대상 수상

우쓰미 아이코 교수 평화대상
문예대상 유자효 · 이민진 수상
8월 12일 만해마을서 시상식



요일 저녁 조계종 총무원 청사 주차장에서 식사를 나누고 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밤거리로 나서 나누는 간식이 200인분, 밥차에서 나누는 식사도 200인분 정도다.

실천대상 공동 수상자인 **이상묵 교수**는 ‘한국의 스티브 호킹’으로 불린다. 서울대 재직 중이던 지난 2006년 미국 출장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6개월 만에 강단에 복귀해 전동 휠체어와 입으로 작동하는 마우스 등을 스스로 개발해 활발하게 강의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평화대상 수상자인 **우쓰미 아이코 교수**는 지금까지 30여권의 저서를 집필하며 일본의 아시아 · 태평양 전쟁의 침략적 성격을 규명하고, 전후 처리의 이중성을 폭로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전쟁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한일 양쪽 모두에서 외면 받아온 조선인 B, C급 전범의 삶을 집요하게 추적해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

문예대상 수상자인 **유자효 시인**은 54년 경력의 시인으로 그는 1974년 KBS 기자로 입사해 언론인으로서 지켜본 현실의 경험을 시에 녹여내는 작품들을 주로 발표했다. 공동 문예대상 수상자인 **이민진 소설가**는 4대에 걸친 재일교포 가족사를 다룬 소설 ‘파친코’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경계인의 시선에서 한국성을 잡요하게 파고든 작품으로 세계사 변방에 묻혀 있던 한국 근현대사를 세계 중앙에 올려놨다. 올해 초에는 애플TV에서 동명의 드라마로 제작되고 세계적 성공을 거두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22년 만해축전의 백미인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초격 스님, 광동학원 12대 이사장 취임

7월 15일 남양주 광동고서 취임
“실무형 이사장 되겠다” 포부



광동학원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초격 스님이 실무형 이사장 포부를 밝혔다.

남양주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이 학교법인 광동학원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광동학원은 7월 15일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운학관에서 이사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초격 스님은 취임사로 “설립자 운허 큰스님과 명예이사장 월운 큰스님의 교육과 인재양성 원력을 계승하고 봉선사와 연계하는 학교 현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교육환경을 만드는 실무형 이사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먼저 30년간 이사장을 역임한 일면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이어 “광동학원은 해방 직후인 1946년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독립운동가이신 운허 큰스님께서 설립하셨다. 76년 세월 동안 자리이타 정신에 입각한 건학정신 발현에 앞장서 왔다”면서 “현장 속에 항상 답이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현장을 잘 살피고 교직원 근무환경과 발전의견을 가감없이 듣겠다”고 다짐했다.

초격 스님이 이번에 취임한 광동학원은 앞서 스님이 밝혔듯 1946년 설립됐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인재양성의 길을 이어와 현재 남양주 광동중고등학교,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등 3개 학교가 광동학원에 소속돼 운영되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는 봉선사 능엄학림 학장 정원 스님과 10대 이사장 화범 스님,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 중앙종회의원 호산 스님, 흥국사 주지 화암 스님, 봉선사 부주지 도일 스님, 김남명 제25교구본사 신도회장, 이도피안 봉선사 신도회장 등 불교계에서 대거 참여했다. 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안민석, 조응천, 오영환 국회의원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등 외부 인사들도 참석했다.

능엄학림 학장 정원 스님은 “초격 스님은 사판과 이판의 길을 모두 아우르는 능력을 가진 출가자”라며 “이사무애한 능력을 학원운영에도 잘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변화하는 교육현장에서 깨어 있는 스님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초격 스님의 광동학원 이사장 취임으로 그 밑바탕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초격 스님은 봉선사 전문강원,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사찰경영 전문과정을 수료했다.

도심포교당 광명선원 개원에 이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가평 현등사 주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파주 보광사 주지를 역임했다. 중앙종회의원 5선 및 수석부의장, 종책특보단장 등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 종교 · 문화 공존하는 공간되길 기대”

조계종 문화창달위 워크숍서
주석 스님 · 범종 스님 등 발제



조계종 문화창달위원회는 7월 18일 불교문화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쿠무다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이 현대사회에서 사찰 공간의 역할에 대해 “엄숙한 종교적 공간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그램과 이를 담을 수 있는 공간적 구성요소가 새롭게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문화창달위원회(위원장 원명)는 7월 18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 보리수에서 ‘제3차 문화창달위원회의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발제자들은 불교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한 불교 문화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주석 스님은 ‘현대사회에 부응하는 불교문화플랫폼으로써의 사찰 공간 재구성 제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사찰 방문 불자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찰공간의 존재 목적과 기능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사찰을 강조했다. 불교의 이상과 철학을 유지하되 현대적인 감각으로 창작을 독려해야 한다는 것. 이어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후원금 조성, 창작자와 향유자를 능동적으로 연결하는 문화플랫폼 확산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도 피력했다.

스님은 “지금은 한국불교가 현실을 직시해 과거 전통적 가치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지혜로 거듭나야할 시기”라며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인류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이념으로 널리 등불을 전하기 위한 종단과 대중의 합심된 결의와 행동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문화예술(인) 현황과 육성 지원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한 범종 스님은 오랜 노하우와 풍족한 지원으로 무장, 여러 문화예술 분야를 선점하고 있는 이웃종교를 상황을 설명했다. 스님은 “개인의 원력과 신심에 의지한 예술활동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불교계의 지원과 분발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종단 문화정책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이상봉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차장은 2000년~2019년 20년간의 중앙종무기관 문화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개했다. 이어 중장기 정책 과제로 △성보문화재 전산화 △불교문화 학회 설립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조직 재설계 △불교문화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임은호 기자

“20년간 한결같은 후원 감사합니다”

조계종 복지재단, 7월 20일
20년 후원자 11명에 감사패



20년 4개월 째 후원을 이어온 유종인 후원자는 “후원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렀다니 스스로도 뿌듯하다”면서 “직장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이 2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한 후원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계종복지재단은 7월 20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20년 근속 장기후원자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사진〉 감사패를 받은 20년 장기후원자는 총 11명으로, 이날 전달식에는 2명의 후원자가 대표로 참석했다.

20년 4개월 째 후원을 이어온 유종인 후원자는 지난 20년간 전달한 후원금이 4100만원에 달한다. 서울 구룡사 청년회 출신으로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후원을 시작, 매해 조금씩 후원금을 늘려오고 있는 상태다. 이날 유종인 후원자는 “후원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렀다니 스스로도 뿌듯하다”면서 “직장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상현 후원자는 20년 5개월 동안 총 468만원을 후원했다. 두 아들을 둔 이상현 후원자는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시작했다”면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신자이기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후원을 하게 됐다.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한국전쟁 당시 스님 · 불자 인명피해 조사

‘진실과 화해’ 함께 진실 규명
8월 19일까지 피해 자료 취합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한국전쟁 당시 스님과 불자들의 인명피해 현황조사에 나섰다.

총무원 사회부는 “정부위원회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종교인 학살사건에 대한 피해 진실규명을 위해 2022년부터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위원회 요청에 따라 총무원은 불교 내 피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부는 전국 조계종 사찰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국전쟁 기간 중 사찰과 인근 지역에서 북한군(빨치산 포함), 국군, 경찰, 기타(가해자 미상) 등에 의해 학살된 스님과 불자들에 대한 피해 자료를 8월 19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한국전쟁 당시 사찰과 문화재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는 시행된 바 있으나 인명피해에 대한 조사는 처음이다.

당시 인명피해 상황에 대한 제보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전화 02-2011-1829, 팩스 02-735-0614, 이메일 hana22@buddhism.or.kr)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화02-3393-9797, 팩스 02-3393-9859, hskim307@korea.kr) 등으로 하면 된다.

임은호 기자



은석초등학교는 7월 20일 봉은사 일원에서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합동 사찰 순례법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판전에 대한 설명을 듣는 학생과 학부모들.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합동 사찰 순례법회' 기념촬영 모습.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법문을 설하고 있다.


법회에는 은석초 오케스트라단의 공연이 열렸다.

도심 속 천년고찰 찾은 '천진불들'

조계종립 은석초등학교, 7월 20일 봉은사 합동 순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여름방학 1일차를 맞은 은석초등학교(교장 양형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160여 명이 서울 강남 봉은사 보우당에 모였다. 신나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첫 날인 7월 20일, 이들이 봉은사에 모인 이유는 코로나19 유행으로 3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합동 사찰 순례법회'가 다시 열렸기 때문이다.

은석초등학교는 매 학기마다 1회씩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합동 사찰 순례법회'를 봉행해왔고, 여름방학을 맞아서는 불교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조금은 수그러들었지만, 여름 수련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 이번엔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합동 사찰 순례법회'로 대체했다.

3년 만에 재개된 은석초등학교의 외부 신행프로그램에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직접 법사로 나서 법문을 설했다. 이날 원명 스님은 법문에서 5가지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이 강조한 5가지 은혜는 △국가에 대한 은혜 △부모에 대한 은혜 △스승에 대한 은혜 △친구에 대한 은혜 △자연에 대한 은혜다.

원명 스님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행정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국가가 있어서다"며 "언젠가는 우리는 국방 등 의무를 통해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양쪽 어깨에 모시고 수미산을 수천 번 오르내려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한다'는 부처님 말씀을 상기시키며 "모든 선법(善法)은 부모님 은혜를 보은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효행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승과 친구는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스승에게는 존경을 보이고, 친구는 되도록 바른 친구를 사귈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기후 위기 상황을 예로 들며 환경보호 실천으로 자연에 대한 은혜를 갚을 것을 강조했다.

원명 스님은 "유럽의 한 학자가 '지금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조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말한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며 "인간이 먹고 사는 모든 자원은 자연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자연이 전해주는 은혜를 쉽게 잊고 산다.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5가지 은혜를 항상 명심하고 보은을 실천하는 학생이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인재로 자라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원명 스님의 법문 이후 이어진 석가모니불 정근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보시금을 정성스럽게 불전함에 넣었다. 은석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의 공연도 눈길을 끌었다. 학생 단원들은 로시니의 '윌리엄텔 서곡'과 히사이시 조의 '여름(Summer)'을 연주했고, 앵콜곡으로는 편곡한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3악장'을 선보였다.


'어린이 오계' 사경을 완성한 학생들.

3년 만에 사찰 순례법회 재가동
학생 · 학부모 등 160여 명 참여
주지 원명 스님 직접 법문 설해
국가 · 부모 등 5가지 은혜 강조
봉은사 곳곳 참배…불교 체험도


양형진 교장이 사경 지도를 하고 있다.

법회 이후에는 조별로 봉은사 전각 순례를 진행했으며, '어린이 오계' 사경 · 108염주 꿰기 등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만에 이뤄진 야외 신행프로그램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즐거운 모습을 보였다.

최선미 은석초 연화어머니회장(50)은 "아이들과의 야외 신행활동은 오랜만이여서 반갑다"며 "지도법사 혜등 스님께서 학생들을 잘 지도해주셔서 학교에서 주최하는 법회에 오는 것을 좋아한다. 오늘도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수연 연화어머니회 부회장도 "첫째가 은석초등학교를 졸업했고, 둘째도 현재 재학 중이다. 여름수련회인 '연화캠프'를 못해 아이가 조금 아쉬워했지만, '사찰 순례 법회'에 참여하며 아쉬움을 달랬다"고 밝혔다.

박성현 연화어린이회장(6학년)은 "사찰에 직접 와서 법회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며 "5가지 은혜에 보답하라는 주지스님의 법문이 좋았고, 오케스트라 공연도 신났다"고 말했다.

친구 김민 군(6학년)도 "사찰에 처음 와서 긴장됐지만 지금은 신기하고 즐겁다. 사찰 전각 순례도 재미있다. 마치 박물관에 온 기분"이라고 즐거워했다.

아들과 아버지가 모두 '은석 동문'인 가족도 눈길을 끌었다. 은석초등학교를 졸업한 안찬욱(45) 씨는 "은석초등학교에 다니며 연화어린이회원이 됐고, 수계를 받아 불자가 됐다. 제 아이가 같은 학교에 입학해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뿌듯하다"면서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함께 불교를 신앙하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안지후(1학년) 군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아빠랑 함께 사찰에 와서 재미있었다. 주지스님 법문을 잘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했다.

교직원들도 재개된 학외 불교 신행활동을 반겼다. 은석초등학교 연화법당 지도법사 혜등 스님은 "3년 만에 사찰 순례 법회를 봉행했다는 게 의미가 크다. 도심에 이처럼 여법한 도심 전통 사찰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정근할 때 정성스럽게 보시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인상 깊었고, 공양간에 '그릇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통해 음식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이 같은 법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형진 은석초등학교 교장은 "은석초등학교는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불교종립초등학교로 재학생 중 절반 가량이 연화어린이회에 가입해 신행생활을 하고 있고, 90% 이상의 학생들이 수계를 받고 졸업할 만큼 새싹불자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사찰 순례 법회를 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재개해 기쁘다. 오늘의 이 인연 공덕으로 우리 모두가 더 바르게 살고 복을 많이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사과문

존경하는 한국불교태고종 법륜사 주지 지홍 스님 및 태고종도 여러분!

최근에 〈사단법인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에서 매년 음력 9월 9일(중양절)에 설행하는 생전예수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광고를 〈현대불교신문〉에 게재(2022년 7월 20일자)하면서 청련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소납의 불찰로 청련사 대중이자 한국불교태고종 5대 본사 중 하나인 법륜사 주지 지홍 스님을 광고문안 속에 빠트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소납은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 화합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 청련사 종무에 신중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련사를 사랑해주시는 종도 및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륜사 주지 지홍 스님과 법륜사 대중 일동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7. 27.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 주지 상진 합장

지구 위기의 불교적 대안 모색

불교환경연대 전국 임원 · 활동가 워크숍

'기후위기와 에코다르마' 등 주제 발표
"음식과소비 지양, 기후위기 적극홍보"
고리핵발전소 · 가덕도 현장탐방 진행
녹색사찰 확장을 위한 방안도 논의해
"'인간, 자연의 주인' 인식서 벗어나야"



불교환경연대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대원각사에서 '2022 불교환경연대 전국 임원 ·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지구는 5차에 걸친 자연 발생 대멸종을 겪었다. 자연이 만든 대멸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자연이 만들었기에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6차 대멸종의 원인은 인간이다. 인간이 초래한 대멸종을 막기 위해 불교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대원각사에서 '2022 불교환경연대 전국 임원 ·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불교환경운동의 가치 공유와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남진숙 동국대 교수는 '기후위기와 에코다르마'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티핑포인트를 인식하고 먹거리와 과소비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을 위한 생태보살들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환경연대의 에코다르마 방향은 육식을 줄이고 먹는 음식 20%를 줄여 음식 과소비를 지양해야 한다. 또 대학생들과 연대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기후위기 관련 활동 및 실천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교 환경운동 활동 확장을 위해 종단의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2 불교환경연대 전국 임원 · 활동가 워크숍'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임원 및 활동가를 격려하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와 에코다르마'와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환경 정책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으며, 고리핵발전소와 가덕도를 방문하는 현장탐방도 이어졌다. 아울러 불교환경연대 비전을 고찰하고 녹색사찰 확장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현장 탐방에 앞서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고리핵발전소에 대해 "윤정부는 원전이 탄소중립의 대안처럼 말하지만 업계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유럽연합 분류체계에 따르면 녹색산업 기준에 미달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미래가 될 수 없다"며 "가덕도 신공항으로 인해 역사문화생태환경이 파괴되고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말했다.

워크숍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공동대표 효탄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정찬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감사 윤광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을 비롯한 각 지부 상임대표와 각 지부 임원,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안도 스님은 "인간과 자연은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이다.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불교의 불살생 정신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공존하는 역할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며 "기후위기와 환경파괴가 심각한 이 시대에 불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에서 처음으로 워크숍을 열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이 자리에서 자연과 생명을 위한 소중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수사, 진신사리탑 제막…40년 불사 회향

7월 16일 대웅보전 앞, '평화통일' 기원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문수사 진신사리탑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수사 진신사리탑은 북한 묘향산 보현사 석탑과 경주 불국사 석가탑 상륜부 형태를 더해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았다.

부산 남구 문수사(주지 지원)가 7월 16일 대웅보전과 경내 마당에서 '부처님 진신사리탑 제막식 및 신도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문수사는 이날 불사의 의미를 밝히면서 "불사의 여정을 마무리했다"며 대중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제막식에는 前 조계종 원로의원 법흥 스님,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前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박형준 부산시장, 주호영 국회의원, 박수영 국회의원, 오은택 남구청장, 박미순 남구의회의장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제막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과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법어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 대중들은 식순 이후 마당에 있는 탑제막 현장으로 이동해 제막천을 당겨 모습을 공개했다. 또 문수사는 진신사리탑 불사 회향을 위해 노력해준 김식경 보광명 석예원 대한민국 명장에게 감사패를, 신춘심 前 신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주지 지원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불사리탑 조성을 계기로 문수사 40년 불사를 회향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문수사가 더욱더 기도하고 참회해 그 공덕이 이웃에게 회향하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막식에 앞서 제 8대 9대 문수사 신도회장 이 · 취임식이 봉행됐다. 박화자 신임회장은 "불사를 회향하기까지 노력해주신 前 회장님과 신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를 보낸다"며 "부처님 진리의 도량이 되도록 주지 스님을 보필하고 신도들의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여성불자회, 정분남 제3대 신임회장

7월 19일, 취임식 개최

부산여성불자회(총재 혜총)가 7월 19일 부산 서면 유원오피스텔 501호(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사무실)에서 제3대 신임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부산여성불자회 총재 혜총 스님,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 명예 회장,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 신임회장, 류영남 전 회장, 백명숙 부산파라미타협회장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취임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 후 인사말과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류영남 前 회장에게 활동한 공로를 치하하며 공로패를 전달했다. 정분남 신임회장에게는 추대패를 전달하며 정진을 당부했다.

총재 혜총 스님은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은 생사를 걸어놓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꽃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향기를 건네주며, 꿀을 생산하기 위해 목숨 걸고 일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정진이다. 그래서 꽃이 아름다운 것"이라며 "이 진리를 알면 꽃과 같이 정진할 수밖에 없다. 부산여성불자회는 정진의 힘으로 꽃과 같이 세상의 빛이 되어 달라"고 축사를 전했다.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 명예 회장은 "코로나라는 힘겨운 시간 속에서 회원들의 수행과 정진을 위해 노력해준 류영남 전 회장에게 감사한다"며 "우리 부산여성불자회는 창립 이후 인재불사와 군포교 등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포교를 이어왔다.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신임회장과 회원들이 더욱 힘을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분남 신임회장은 "부족한 능력이지만 여성 불자를 위해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한다. 회장으로 추대되어 어깨가 무겁고 마음 또한 무겁다. 하지만 전통 있는 부산 불교여성불자회 단체에 함께할 수 있다는 시절인연이라 여기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한국불교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가정과 사회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가를 발전시키는 교차역할을 담당했다. 한국 불교의 기틀을 건실하게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적으로 회향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여성불자회는 1994년에 창립됐다. 이후 청소년 장학금 전달을 통한 인재불사에 앞장서왔으며 군포교, 지역나눔 봉사 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문중스님 '동산화합승가회' 결성

성주사서 문중스님 90여 명 동참
"문도 화합 · 균형에 어려움 있다"



금정총림 범어사 동산 대종사 문도스님들이 범어사 문중스님들이 7월 13일 성주사에서 동산화합승가회를 결성했다.

동산화합승가회는 14일 부산 연산동 소재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범어사 대중화합과 범어사 가풍 정립의 필요성 등 모임의 취지를 밝혔다.

동산화합승가회는 "범어사 문도의 화합과 균형을 위해 전통적으로 유지한 방법이 있다"며 "교구장 스님의 독선적인 절차로 화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합을 위해 총림 임회를 위한 문중 안배와 대중의 공의에 따른 임회의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범어사의 특성상 중진스님들과 논의를 함께하는 장이 필요하다. 특히 범어사 말사의 주지 품신 불만에 따른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범어사의 위상을 확립하고 부산불자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포교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불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신도와 포교를 위한 불사를 강조했다.

동산화합승가회 결성식에는 동산 대종사의 직계 상좌인 흥교, 선래, 대성, 계전, 도근, 몽산, 영환 스님과 문도스님 등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동대표에는 범천, 범현, 혜진, 혜성, 강하, 도관, 경흥, 일광, 승련, 법상, 정오, 각명 스님 등 12명이, 간사는 도명, 성광, 범혜, 석산 스님 등 4명이 담당한다.

범어사 종무소는 이에 대해 "임회 구성원 추천은 종헌종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맞춰 진행됐다"며 "말사 주지 품신 역시 소통을 통해 조율하고 인사를 시행했다"고 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포교사단 부산, 하안거 법화경 독송 대중공양

7월 20일, 독송기도 기간 십시일반 공양금 모아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 이하 부산포교사단)이 하안거 수행 기간 동안 〈법화경〉 독송 기도를 이어가며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범어사 스님들을 위한 대중공양을 올렸다.

7월 20일 범어사 공양간에는 여름 입맛을 돋울 특별한 공양이 마련됐다. 부산포교사단이 짬뽕, 김밥, 유부초밥, 과일, 옥수수 등 특식 200인 분을 마련해 하안거 정진 중인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렸다.

대중공양은 부산포교사단 단원들이 독송 기도를 이어오며 자발적으로 보시한 후원금으로 마련돼 의미가 깊다. 부산포교사단은 코로나 기간 동안 안거를 맞으면 경전 독송을 이어왔다. 부산포교사단 단원 650여 명 40개 팀 전원은 5월 16일부터 77일간 릴레이로 〈법화경〉 독송을 이어오고 있다. 회향은 7월 31일이다.



송재린 단장은 "불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승가가 있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계셔서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법을 배우고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며 "포교사로서 스승이신 스님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승보를 공양하는 것은 거룩한 불사이다. 동참한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는 송재린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 정분남 자문위원, 서영우, 주태돈, 임한규, 이양희 부단장, 조봉례 남부지역총괄팀장, 김옥희 지역중앙총괄팀장, 강태산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용호종합사회복지관, '효도 삼계탕데이'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이 7월 16일 관내에서 초복을 맞아 '효도 삼계탕데이'를 개최했다.

㈜한탑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역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300여 명에게 영양 삼계탕 및 선물 꾸러미(모시메리, 국수, 과일, 떡 등)를 전달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나눔 전달식에는 류원기 ㈜한탑 회장과 임직원 및 오은택 부산남구청장, 박수영 국회의원이 동참해 배식활동을 펼치고 지역 내 저소득 · 독거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서은해 관장은 "이번 초복 삼계탕 행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낸 지역 어르신들에게 더운 여름철 활력과 에너지를 되찾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류원기 회장님의 후원이 없었다면 토요일 무료급식이 어려웠을 것이다. 회장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효도 삼계탕데이'는 ㈜한탑이 2009년부터 13년 동안 이어온 토요일 무료급식지원의 일환이다. 그동안 꾸준히 후원한 후원금과 물품이 약 2억 원에 이르며 이번 삼계탕데이 행사를 위해 1000만 원을 후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견강암, 지역민 위한 사랑의 물품 나눔

장학금 및 식료품 420만 원 기탁

나눔실천도량 부산 견강암(주지 향공)이 7월 20일 사상구청에서 '사랑의 물품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나눔 전달식에는 주지 향공 스님을 비롯한 견강암 봉사단 정각원 회원들과 조병길 사상구청장, 김선옥 복지정책과장, 이선영 복지자원팀장이 참석했다.

견강암은 전달식에서 장학금과 라면, 쌀(420만 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사상구 산하 지역 동사무소를 통해 소외 이웃들에게 회향될 예정이다.

주지 향공 스님은 "무더운 여름 사상구민들을 위한 물품과 장학금을 마련했다"며 "지역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마음의 시름을 덜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코로나와 무더위로 더욱 어려운 시기이다. 견강암은 꾸준하게 지역민을 위한 무료급식 및 장학금 지원으로 따뜻함을 안겨주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나누우리, 캄보디아 초등학교 개선사업

사단법인 나누우리(이사장 만우)가 민간 구호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협력 사업지원 공모에 선정됐다.

(사)나누우리는 해외구호 중점 사업으로 캄보디아 초등학교 교육 시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사)나누우리는 개선 사업을 위해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주 삼부어 초등학교와 쁘레이톰 초등학교 지하수관 정공사 등 8곳의 식수 정수시설을 점검했다. 다가오는 11월 나누우리 회원들과 후원자들이 방문해 교실 20여 곳에 80여 대의 선풍기, 칠판 교체, 위생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주 연꽃문화제, 불교 공연으로 장엄

7월 16~17일 전주 덕진공원서 봉행

불교연합합창단 등 공연 호평
연등제작 비롯 전통문화체험
금산사 등서 스님들도 참가해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연합합창단이 연꽃문화제에서 음성공양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전주 연꽃문화제가 3년만에 재개됐다. (사)우리문화연구원(이사장 일원, 금산사 주지)은 7월 16일과 17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전주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전주연꽃문화제는 연화장 세계처럼 펼쳐진 연꽃의 향연 속에 다채로운 공연과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먼저 전주시민들의 노래자랑과 게임을 즐기는 '노래가 좋아' '떳다 트로트 연꽃가요제' 예선과 본선 경연, 전주시 생활예술인들의 공연과 국악공연 등이 열렸다.

개회식에 앞서 식전공연으로 진행된 고고장구의 공연은 참석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즐거운 무대가 됐다.

개회식 후에는 불교연합합창단의 합창곡과 성악가들의 공연, 판소리 공연도 이어졌다. 특히 마이산탑사(신도회장 윤복길), 나누우리 봉사단(단장 이재현)과 탑밴드봉사단(단장 천순희), 전주소년원어머니회봉사단(위원장 김도은), 사랑으로행복을붓다복지관(단장 정해자) 등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 총무국장 현진 스님 등 태고종 스님들과 봉사단들은 행사가 열린 이틀간 덕진공원서 비빔밥과 태고떡볶이를 무료로 제공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지화 꽃만들기, 부채 수묵화 그리기, 연꽃컵등 만들기, 다도체험, 전통파 시음회, 염주만들기, 풍선아트, 바디페인팅 등의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또 투호, 제기차기, 굴렁쇠굴리기, 줄넘기 등의 전통놀이 체험행사장도 운영됐다.

개회식에서 우리문화연구원 이사장 일원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덕진공원은 1080년 후백제대에 전주의 기운이 북서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못을 만든 데 연원이 있다. 전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며 "진흙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는 연꽃의 청아함처럼 전라북도민의 마음도 항상 평화롭고 청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금산사 부주지 원혜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연꽃은 자신의 능력으로 생태계에 생명을 불어넣고, 자신의 몸 어느 한 곳도 버리는 부분이 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시하는 꽃이다" 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심성이 연꽃의 향기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축사를 통해 "전주시민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이곳 전주시 중심가에 위치한 덕진공원에서 연꽃을 주제로 시민 한마당이 펼쳐졌다. 행사를 주관한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틀간 펼쳐진 연꽃문화제 기간동안 약 3만 명의 시민이 덕진공원을 찾아 다양한 체험활동과 공연을 즐긴 것으로 추산된다.

전북불교대학 여름방학 특강개최

7월 17일, 강건기 초대학장 강연



사단법인 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2022년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했다.

7월 17일 전북불교대학 4층 큰법당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모든 사람을 예경하라'를 주제로 강건기 초대학장(전북대 철학과 명예교수)이 진행했다.

강건기 초대학장은 특강에서 〈장아함경〉을 인용해 "모든 방위에 예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면 천상에 태어난다"며 "탐진치 삼독 중 탐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시가 중요하고 무재칠시(無財七施)라 재산이 없더라도 남을 찬탄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3년만에 재개된 여름방학 특강에는 사)부처님세상 백준기 이사장을 비롯해 전북불교대학 학장 이창구, 초대학장 강건기, 부학장 이지복 · 신용표, 전주 대광사 지정 스님, 김명심 前 전북불교대학동문회장, 태기준 전법사회장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강건기 초대학장은 1966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68년 태국 왕실 초청으로 방콕으로 건너가 남방불교를 연수했다. 1979년 뉴욕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1981년부터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역임 2006년 정년퇴직 후 명예교수로 있다. 1988년에는 전북불교대학을 설립 2006년까지 초대 학장직을 역임했다.

한편 전북불교대학은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시민과 학인들을 위한 방학 특강을 1~3차례씩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로 3년간 방학 특강을 진행하지 못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관,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지역 어르신 240명에 보양식 지원



고창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이 초복을 맞아 삼계탕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7월 15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앞으로 다가올 무더위를 어르신들이 거뜬히 이겨내시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 행사서는 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 160여 명과 지역 저소득 어르신 80명에게 삼계탕이 배달됐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매년 맛있는 삼계탕 한 그릇이 내 마음과 몸에 든든한 보양식이 되었다"며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고창군노인복지관장 대원 스님은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원기회복하셔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필요한 부분을 살피며 나눔과 상생의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복지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고창푸드마켓과 선운기초푸드뱅크 후원으로 여름용 덴탈 마스크를 전달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도 서평원, 경내 산신상 점안



청도 서평원(주지 지엽)은 7월 17일 경내에서 산신상을 점안했다. 봉안 점안식에는 증명법사인 정일 스님과 정휴 스님이 참여했으며, 혜언 스님의 집전으로 의식이 진행됐다. 점안식에는 소평원 주지 지영 스님과 홍익대도원 백공 스님, 서정도 교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정일 스님은 "인연있는 사부대중들이 이번 산신상 봉안 공덕으로 화목하고 모든 일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소중한 인연들의 평안과 치유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서평원'은 산세가 수려한 청도군 금천면에 소재한 관음지장약사도량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봉선사가 동국대 일산병원과 MOU를 맺고 승려복지에 한걸음 나아갔다.

봉선사 · 동국대일산병원, 건강검진 협약

교구 승려복지회서 전액 부담
초격 스님"의료복지 토대구축"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교구 재적스님 모두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동국대일산병원과 협약을 맺고 교구 승려복지회가 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부담키로 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의료복지가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는 7월 19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병원장 권범선)과 '봉선사 스님 건강검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봉선사 교구 승려복지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향후 교구 재적스님 280여 명에 대해 2년마다 무료로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강검진비용은 봉선사승려복지회가 전액 부담한다.

교구 승려복지회가 자체적인 승려복지기금을 적립해 교구 전체 재적승을 위한 의료 ·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스님들의 건강 증진과 수행 · 포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종단에서 설립한 동국대일산병원이 마치 내 집 뜨락 안에 있는 봄꽃처럼 많은 스님이 찾고 향기로운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고자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선운사는 7월 16일 윤명대선사 39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선운사, 윤명 스님 39주기 추모재 봉행

7월 16일 경내 성보박물관서 진행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초대 주지였던 남곡당 윤명 대선사 39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7월 16일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봉행된 이날 남곡당 윤명 대선사 추모재는 영단 삼배, 행장소개, 직계 상좌 및 손상좌스님들의 분향 헌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국장스님들의 헌향, 말사 주지스님들의 헌향에 이은 입정, 공지사항, 회향삼배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곡당 윤명 스님은 1931년 장성 백양사에서 영호 스님을 은사로 만암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다. 윤명 스님은 1934년 만암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이후 1963년 불교정화운동으로 격렬했던 비구 대처 양측이 화합하는 데 주력했다. 총무원 재무부장, 교무부장, 조계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1966년 초대 24교구 선운사 주지 소임을 맡아 선운사 천왕문과 대웅보전, 도솔암을 중창, 1983년 세수 73세 법납 54세로 선운사에서 입적했다.

이날 추모재는 남곡 스님의 문손 재곤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원로 대우 스님, 범여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등 선운사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한편, 선운사는 이날 오후 임인년 하안거 포살법회도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포탈라궁 디지털화, 화재위험 방지도

경사·수분 측정 센서 설치로
벽화 · 유물 실시간 모니터링
방문객수 조절 시스템으로도
궁전 손상 막는 결과 이끌어

박영빈 객원기자



포탈라궁의 벽화를 점검하는 연구원. 사진출처=카트만두 트리뷴

13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불교문화유산으로 역대 달라이라마들의 겨울 궁전 겸 사원이었던 포탈라궁이 디지털 기술의 도움으로 새롭게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지난 7월 13일 네팔의 '카트만두 트리뷴'은 중국의 '인민일보'와 함께 포탈라궁 디지털화를 특별 보도했다.

디지털화는 2006년 포탈라궁 디지털 센터 책임자인 다와오둡의 기획으로 시작됐다. 다와오둡은 2006년 문화재관리 연수차 간쑤성의 둔황막고굴과 막고굴을 연구하는 둔황 아카데미를 방문했다. 이때 둔황 아카데미가 막고굴의 벽화와 유적들은 디지털 기술로 아카이빙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영감을 받았다. 다와오둡은 그 해 바로 동일한 기술을 포탈라궁에 적용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와오둡은 17년간 포탈라궁에서 근무했다. 벽화가 있는 구간이나 특별한 구조물들의 위치들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곧바로 프로젝트에 착수 할 수 있었다. 다와오둡은 "먼저 포탈라궁의 구조물들과 벽화들의 현황을 기록하기 위해 세부촬영을 진행했다. 낮 시간에는 순례자나 관광객들이 많았기에 항상 자정까지 촬영이 진행됐다"고 회상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벽화와 구조물들의 디지털 아카이빙 뿐만 아니라, 포탈라궁 전체에 대한 디지털 모델링도 함께 진행됐다. 궁전이 산비탈 형태를 그대로 따라 지어졌고 수세기에 걸친 증축과 보수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디지털 모델링은 최초로 시도된 도전이었다. 항공사진, 3D 레이저스캐닝 및 다시점 이미지 재구성 등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이 고디지털 모델링에 사용됐다.

포탈라궁 관리실의 툽텐체링은 "궁전의 문화재들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구원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며, 문화재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델링 작업까지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포탈라궁 전체에 800개의 디지털 센서와 1500개 이상의 모니터링, 약 9km의 감지 광섬유 케이블이 설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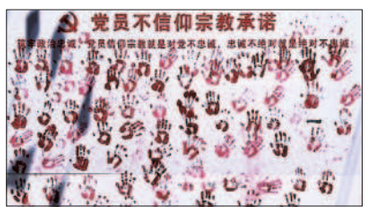
4년간의 준비 끝에 2012년 10월, 궁전의 목조구조 주요부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가 공식적으로 가동됐다. 이를 통해 관광객 동선 흐름이 궁전의 목조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구조적 변형에 따라 방문객 수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구축, 궁전 손상을 막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시스템의 두 번째 단계는 2015년에 가동됐으며 건축물 벽, 기초 및 고대에 조영된 석굴에 중점을 두면서 벽화와 유물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균열 측정기, 경사계 및 토양 수분 측정기를 포함한 388개의 센서 설치로 직원들과 연구원들은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궁전 벽의 데이터들을 확인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모니터링 기술을 조정한 베이징 교통대의 양나 교수는 "우리는 약 10년 동안 1000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포탈라궁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나 교수는 "포탈라궁이 특히 취약한 점은 화재로 인한 손상이다. 이번 모니터링작업을 통해 현재 궁궐 전체에 1500개 이상의 센서와 86개의 비디오 화재 감지기로 구성된 자동 화재 경보 시스템이 설치됐다. 또한 스마트 시스템을 설치하여 궁전의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화재의 위험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탈라궁 관리실 측은 이번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공개되며, 포탈라궁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들이나 일반에겐 비공개되는 구역의 자료들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中, 달라이라마 생일 맞춰 반종교 캠페인

불참자에 대해 경찰조사와 처벌 잇달아



반달라이라마-반종교 전시회에 내걸린 관람자들의 손도장 현수막. 사진출처=비터윈터

7월 6일은 현 달라이라마의 87세 생일이었다. 전세계 불교도들과 티베트인들이 축하메시지를 발표하거나 축하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때를 맞춰 반종교, 반 달라이라마 캠페인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7월 11일, 인권뉴스 전문매체 '비터윈터'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 소식을 보도했다.

달라이라마 87세 생일을 맞아 중국정부는 일찍부터 티베트자치구와 여러 티베트족 자치지역에 모든 형태의 축하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적발될 시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또한 치안을 최대 경계상태로 올리고 티베트인들이 모이는 사원이나 순례지 등에 엄격한 감시활동을 벌였다.

한편 생일 당일인 7월 6일에 맞춰, 티베트의 수도인 라싸와 기타 주요 도시의 학교에선 반 달라이라마를 주제로 특별수업이 열렸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비터윈터는 소식통의 제보를 인용해 "이 수업에 대해 병결을 제출하거나 불참을 표한 학생과 그 가족들은 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각종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터윈터 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정부는 젊은 세대와 불교가 멀어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왔다. 최근엔 고등학교 수험생이 불교에 신심이 깊거나, 달라이라마와 관련될 경우 대학입학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공식화했다"고 전했다.

특별수업에 참석한 학생들과 티베트 시민들은 달라이라마의 생일기간동안 반달라이라마, 반불교, 반종교를 주제로 하는 전시회에 참석할 것을 강요받았다. 전시회 내용은 중국 치하 티베트 자치구의 발전을 강조했으며, 달라이라마가 이끌던 티베트 정부와 불교사원들이 티베트인들을 농노와 같은 상태로 통치한 것으로 묘사했다.

전시에는 "종교를 믿는 학생은 당에 충성하지 않는다" "당원은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다"와 같은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시회를 찾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손바닥을 눌러 사인을 하도록 했다.

이러한 반 달라이라마와 반 불교, 반종교 캠페인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티베트 자치구에서는 비밀리에 달라이라마의 생일을 축하하고, 티베트로 다시 돌아오길 기원하는 기도회와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서양사회 불교 전파 1세대…냐나뽀니까 삶 조명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매사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故 냐나뽀니까(Nyanaponika, 1901~1994)

스리랑카 불교출판협회 창설자
불서번역으로 서구사회 큰반향
유대인핍박 극복한 불교수행자



냐나뽀니까 스님.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는 7월 21일 유럽인 최초 비구이자 대학승인 故 냐나띨로까 스님(1878~1953)의 제자이자 세계 최대 불교문학 출판사 중 하나인 불교출판협회(BPS) 창설자 냐나뽀니까 스님의 탄신일을 기해 스님의 생전 삶을 조명했다.

스님은 1901년 7월 21일 독일의 하나우 지역에서 유대인 부모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1921년 그의 가족이 베를린으로 이주했을 때 그는 불교 관련 서적을 접했고 단숨에 매료됐다. 그의 나이 20살 때였다.

그는 이 무렵 독일 승려 냐나띨로까 스님이 스리랑카의 한 섬에서 서양 승려들을 위한 불교 수도원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아돌프 히틀러 집권 당시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도 오스트리아로 떠나자 스리랑카로 건너가 서품을 받았다. 유대인들에 대한 나치군의 공격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그는 어머니를 스리랑카로 모셔왔고, 승려가 된 아들의 영향으로 어머니 또한 불교에 귀의했다.

그러나 전쟁 여파는 스리랑카에까지 미쳤다. 1939년 9월 3일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직후 영국은 동남아시아 영토에 거주하던 모든 독일인을 억류하도록 명령했다. 냐나뽀니까 스님도 수천명의 독일인과 함께 체포돼 투옥됐다. 이후 6년 간 영국 포로 수용소는 그의 수행터가 됐다.

스님은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포로 생활에 적응했다. 수감 기간 동안 책을 쓰고 아시아의 불교 문헌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스님이 〈아비담마 연구〉 〈선과 악의 뿌리〉 〈염처-불교 명상의 핵심〉 〈삼법인〉 〈업과 과보〉 〈내면의 자유로 가는 길〉 등 수많은 저서를 남기는 바탕이 됐다. 스님은 포로에서 풀려난 후 스리랑카 수도원으로 돌아갔고, 1951년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이후 스님은 스리랑카 불교와 서구 사회를 연결하기 위해 주력했다. 1957년 신도들과 함께 영어 불교 입문서를 제작, 유럽 등에 무료 배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초판을 발행했을 때 유럽인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불교출판협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스님은 무신론과 유신론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설명하며 서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해당 매체는 "일생동안 냐나뽀니까 스님은 불교 출판 업계에 한 획을 긋고, 독일 동양학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삶의 주도권을 갖고 선구적인 삶을 살았다. 유대인의 자녀, 서양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해 불교도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양 사회에 불교를 전한 1세대 승려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라바다 전통에 관한 권위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스님들, 물에 빠진 소년 구해

왓 방 사이 사원 스님
떠내려가던 소년 구조



구조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스님. 사진출처=더 타이거

사무트프라칸주 해안가에 위치한 왓 방 사이(Wat Bang Sai temple) 사원 소속 두 스님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 화제다. 태국 매체 더 타이거(the thaiger)는 7월 12일 "스님들이 친구들과 수영하다 물에 빠진 13세 소년 카닌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카닌은 친구들과 수영을 하던 중 갑자기 물이 매우 차가워졌고 순식간에 다리 감각을 잃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친구들이 카닌의 주위에서 함께 수영하고 있었지만 쉽게 구할 수 없었다. 이에 친구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들은 소용 릿싱(Somyong Ritsing, 40) 스님이 뛰어나왔다.

스님은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 승복을 벗고 망설임 없이 강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스님을 뒤따라 나온 젊은 스님도 함께 강으로 뛰어들었다. 아이는 물살에 휩쓸려 계속해서 떠내려갔고 스님들은 500m 이상을 헤엄쳐갔다.

소용 릿싱 스님은 "아이에게 다가갔을 때 이미 쇼크 상태에 빠졌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두 스님은 아이를 안전하게 물가로 데려왔고, 주민들이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현지 소방 관계자는 "아이들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바로 출동했는데 스님들과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이미 무사히 구조된 상태였다"며 "스님들이 한 생명을 구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대한불교 영산법화종 **영산법화사**

2022년 하반기 종도모집

재단법인 영산법화회는 대한민국 제일 법화도량으로 법화조사님의 개창 66주년을 맞이하고 동시에 장흥도량에 큰 불사를 앞두고 있어 법화경에 인연 있는 종도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법화경 전문 도량으로 현재 공찰이 미국 LA 외 전국19개 도량이며, 기본자산이 일천억이 넘은 법화 제일 도량입니다. 스님 복지 우선으로 4대 보험, 각종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현재 재단 이사장이며 교단에 법주 이신 행학 큰스님을 위주로 법화홍통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법화도서관 및 법화노인요양원 등 사회에 이바지하는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화홍통(法華弘通)으로 꿈과 희망을 찾으시려는 재능 있는 많은 인재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꿈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해드립니다.

나무묘법연화경

- **모집대상** : **출가승려, 행자, 법화경 연구자, 사찰등록 하실 분**
- **모집인원** : 00명
-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반명함판사진 3매
  법당내부 · 외부 사진(사찰등록하실 분), 타종단 법랍인증(승려증사본)
- **출가행자 모집** : 18세 이상
- **분 담 금** : 상담 후
- **영산법화사 각 도량 소개** : 영산법화사 홈피(http://ysbuphwasa.org) 참조
- **디지털법화도서관** : 법화경 관련 서적 50여종
- **문의전화** : **02)762-4922** (서울 종로구 동숭길116 영산법화사 본사)

※ 본 재단은 개인재산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이사장 행 학

우공침술
개·인·교·습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신경학, 면역학적인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락이나 경혈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침술을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별의미도 없이 지나치게 형식화된 경혈을 죽어라고 익히고 그곳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침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발한 침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초보자도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저에게 오셔서 교습을 받으시거나 또는 제가 방문하여 교습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 및 수강신청 : 010-4054-7110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0~7/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스님의그림자:상담하는비구니의자기치유이야기	효록	운주사
2	사찰의비밀(일주문에서대웅전뒤편산신각까지구석구석숨겨진)	자현 지음	담앤북스	7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김원수 지음	청우당
3	부처님의생애(무선=보급판)	조계종교육원	조계종출판사	8	한마음요전(대행스님행장기,법어집)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4	도표로읽는불교입문	이자랑,이필원	민족사	9	조용헌의도사열전	조용헌	불광출판사
5	반야심경무슨말을하고있나:산스크리트어본과8종의한역본	관정	알아차림	10	같은하루다른행복:원빈스님과함께가는행복의길	원빈	이층버스

책세상

'순간 함께 춤추는 코칭' 무아 깨달음의 시작



마음발견의 기술
김종명 지음
불광 펴냄/1만7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 가르침 문제 해결 기술로 꽃 피우다

코칭(coaching)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코칭은 사람들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누구나 자신이 가진 고민에 대한 해답을 이미 갖고 있다고 믿는다. 코치가 고민을 가진 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몰입하는 코칭, 즉 고민을 가진 이와 함께 '순간을 춤추는 코칭'이야말로 이상적인 코칭의 모습이다.

이 책은 코칭을 단순한 스킬이라는 관점을 넘어 불교 가르침이라는 관점서 명쾌하고 흥미롭게 풀어낸다. 코칭을 공부하는 이들은 물론, 불교에 관심 가진 이들도 이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코칭을 공부하는 이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코칭의 개념과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나아가 그것을 불교 언어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에 관심 가진 이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불교의 추상적 가르침이 어떻게 대화라는 구체적이고 일상적 행위로 실천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여러 코칭 대화들은 이 책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저자는 자신의 오랜 코칭 경험을 이 책의 코칭 대화들로 재구성했다. 이것들은 코칭이 인간관계, 직장생활, 실직, 스트레스서 비롯되는 현대인의 각종 고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생생하게 보여 준다. 이 책에 수록된 코칭 대화들을 통해 실전 코칭의 흥미로운 진면목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코칭 원리를 불교 가르침에 입각해 깊이 있게 재해석하고, 그렇게 분석된 코칭이 얼마나 강력한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명쾌하고 흥미롭게 보여 준다.

모두가 이미 답을 갖고 있다

코칭 행위는 인간에 대한 믿음에 기반해 이루어진다. 코칭은 모든 사람이 그 자체로 온전하고(holistic), 필요한 해답을 자신의 내부에 가지고 있으며, 창의적이라고 본다. 코칭 행위가 기반하는 인간에 대한 믿음은 불교가 기반하는 인간 믿음과 그 방향이 같다. 불교는 모든 사람이 불성(佛性),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성품이 있다고 믿는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청정해서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으나,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더러워져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행을 통해 더러워진 것들을 닦아 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불교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코칭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돕는다.



불교 가르침으로 더 깊이 이해한 코칭

코칭은 패러다임(Paradigm), 실천(Practice), 프로세스(Process)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코칭의 패러다임은 코치가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코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며, 누구나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성품인 '탁월성'을 갖추고 있음을 믿고 그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은 삼법인(三法印), 즉 제행무상(諸行無常) · 제법무아(諸法無我) · 일체개고(一切皆苦)와 연기법(緣起法)이라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코칭 행위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코칭의 실천은 코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즉 기분 · 생각 · 욕구를 알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코칭의 여덟 가지 핵심 역량에 대응하는 불교의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칭 프로세스는 코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표를 발견하게 하고, 계획을 수립 하고, 실제로 목표를 성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불교의 사성제(四聖諦) 또는 신(信) 해(解) 행(行) 증(證)을 실천하는 것에 해당한다.

무아 가르침 깨달을 때 열린 코칭 행위 가능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無我)'는 "변하지 않고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무아의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할 때 코치는 겸허하고 열린 마음으로 코칭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이상적인 코칭이야말로 고민을 가진 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몰입하는 코칭, 즉 고민을 가진 이와 함께 '순간을 춤추는 코칭'이다.

코칭 행위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것을 도움으로써 그들을 이롭게 한다. 동시에 코칭 행위는 팔정도에 따라 코치 마음을 수양시킴으로써 코치를 이롭게 한다. 이런 점에서 코칭 정신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보살 정신과 같다. 코칭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고, 그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저자 김종명은?

국제공인 마스터코치. 부산대 경제학과와 고려대 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졸업한 후,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연구위원, 닉스 사장, 한국리더십센터 교수를 역임했으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에서 코칭을 했다. 현재 는 국민대 경영대학원 겸임 교수, 코칭경영원 파트너 코치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코칭방정식〉(공저) 〈리더, 자기 생각에 속지마라〉 〈마스터코치의 코칭 레시피〉(공저) 등 다수가 있다.

꽃차의 마음과 기작용을 설명하다



꽃차, 사상의학으로 만나다II
저자 임병학 김형기 등 6명
중도기획 펴냄/2만8천원

〈꽃차, 사상의학으로 만나다Ⅱ〉는 사상의학의 근본인 마음과 기를 근거로 꽃차의 마음작용과 기작용을 설명하였다. 〈동의수세보원〉 '사단론'의 폐기(肺氣) 비기(脾氣) 간기(肝氣) 신기(腎氣)와 〈장부론〉의 수곡온기(水穀溫氣) 열기(熱氣) 량기(凉氣) 한기(寒氣)를 사상인의 꽃차에 맞게 서술하였다. 수곡 온기는 따뜻한 주황색, 열기는 뜨거운 붉은색, 량기는 서늘한 하늘색, 한기는 차가운 파랑색으로 기 흐름을 정리하였다. 꽃차와 사상의학의 만남은 우리 땅에 자라는 꽃과 우리나라서 창안된 사상의학의 만남이다. 우리 선현들은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을 사용한 꽃차를 오래 전부터 널리 음다(飮茶)해 왔으며, 현대에는 꽃차를 이용한 마음치유와 몸의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상의학은 네 가지로 다른 장부(臟腑)의 이치에 따라 태음인(太陰人) 소음인(少陰人) 소양인(少陽人) 태양인(太陽人)을 밝히고, 사상인(四象人)의 마음론과 기론(氣論)을 바탕으로 마음과 몸의 건강을 논하고 있다.

이번 책은 〈꽃차, 사상의학으로 만나다Ⅱ〉(이하 꽃차Ⅱ)는 2021년에 출간한 〈꽃차, 사상의학으로 만나다〉(이하 꽃차Ⅰ)를 이은 것으로, 꽃차의 기본정보 및 약성과 성분, 꽃차 제다법, 꽃차 블렌딩, 꽃차 음용법, 꽃차의 마음 · 기 작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음인은 서늘한 하늘색을 바탕으로 32개의 꽃차, 소음인은 차가운 파랑색을 바탕으로 18개의 꽃차, 소양인은 뜨거운 빨강색을 바탕으로 26개의 꽃차, 태양인은 따뜻한 주황색을 바탕으로 7개의 꽃차를(총 83개) 담고 있다. 〈꽃차Ⅱ〉는 사상의학의 이치를 근거로 대중적인 입장에서 현대인이 음용하는 다양한 꽃차들을 쉽게 풀이하였다.



신장에 좋은 소양인 꽃차인 '당아욱'.

꽃차의 약성과 성분을 정리하다.

꽃차의 기본정보에서는 선현들의 저술에 나타난 꽃차를 찾아냄으로써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함께한 꽃차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 꽃차의 약성과 성분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연구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꽃차의 약성과 성분을 가능한 연결하고자 하였다.

꽃차의 블렌딩과 제다를 서술하다.

꽃차의 블렌딩을 통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꽃차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꽃차의 약효도 배가시키고 꽃차의 아름다운 색과 향기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 또 꽃차의 제다는 연구자들의 오랜 경험과 실습을 통해 정리된 것으로, 누구나 쉽게 꽃차를 만들어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사상인 변별 질문지와 사상인의 특징

'사상인 변별 질문지'와 '몸,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상인'을 통해 독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상인을 변별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사상인의 기본적인 특징을 몸과 마음으로 정리하였다. 사상인의 변별은 〈동의수세보원〉과 〈격치고〉의 연구 성과와 공동저자의 토론을 통해 완성한 것이다. 김주일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금강경한문+법화경강좌
부산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부산역 앞 광장호텔 뒤 참맛집 5층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200-13)
대구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이시아 폴리스 태왕아너스타워 상가1층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41)
● 동참자격 : 불교정법 공부를 서원 하신 분
● 수강회비 : 무료 (단, 교재비 3만원 자부담)
● 교육기간 : 1년 2학기 (수시모집)
● 문의전화 : 010-4501-8711
嶺南僧伽大學 總長 崔 空 德

삶서 진지하게 바라보는 '죽음' 문제

국립민속博 · 목아博 공동기획전
'망자의 길, 산자의 길'
목아박물관 12월 31일까지

십대왕도 등 유물 · 자료 70여점 선보여
불교사상 바탕 사후세계관 · 의례 조명
우리문화 '죽음' 다룬 다양한 전통 소개


극락지옥도(137.5×200, 목아박물관, 20세기).


망자를 인도하는 '번'.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누구나 언젠가는 맞이해야 하는 죽음에 대한 문제는 분명 인간에게 삶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살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죽음'을 바라보기 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종대)은 목아박물관(관장 박우택)과 함께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목아박물관에서 K-museums 공동기획전 '망자의 길, 산자의 길'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유물과 자료 70여 점을 통해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우리의 전통적인 사후세계관과 현대에도 전승되고 있는 의례들을 조명한다.

관람객들은 전시를 통해 평소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를 성찰해보고,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의미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볼 수 있다. 전시는 프롤로그와 1부 '삶을 성찰하다', 2부 '넋을 인도하다', 에필로그로 구성됐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상여, 극락지옥도, 진광대왕도, 초강대왕도, 목조동자입상, 지장보살상, 아미타설법도, 법고, 바라, 범종, 번, 십대왕도 등이 있다.

△상여(20×100×150, 목아박물관, 20세기)는 경남 산청 지역에서 수집된 상여로, 시신이 안치된 관을 장지까지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이다. 살던 집과 마을을 떠나 장지로 향하는 여정처럼 망자는 이승을 떠나 저승길을 나선다.

△극락지옥도(137.5×200, 목아박물관, 20세기)는 상 · 하단으로 나누어 극락과 지옥을 묘사한 그림이다. 상단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극락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꽃이 만발하고 무지개가 뜬 가운데 천인과 동자들이 노니는 모습이다. 하단은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4개의 지옥을 표현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칼날이 뾰족하게 돋아난 도산지옥, 아래는 끓는 솥에 떨어지는 확탕지옥, 오른쪽 위에는 큰 돌에 눌리는 대애지옥, 아래는 염라대왕이 업경으로 죄를 심판하는 모습이 각각 그려져 있다.

△진광대왕도(148.9×77.8, 목아박물관, 19세기)는 시왕 중의 첫 번째인 진광대왕이 명부세계에서 심판하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다. 아래에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그리고 있다.

△초강대왕도(153.4×106.2, 목아박물관, 1828)는 시왕 가운데 두 번째인 초강대왕의 심판장을 묘사한 그림이다. 아래에는 죄인을 끓는 솥에 넣는 확탕지옥이,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는 지장보살이 석정을 들고 서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지장보살상(60×78×105, 목아박물관, 20세기)은 명부세계의 주존인 지장보살을 형상화한 것이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한다. 때문에 망자의 천도와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아미타설법도(151×91, 목아박물관, 20세기)는 아미타불이 서방정토에서 설법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망자가 극락세계와 같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천도재의 주불로 아미타불을 모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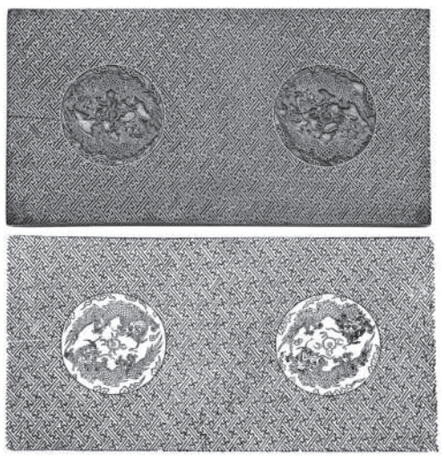
'시왕을 만나다'와 '나를 돌아보다'로 구성된 1부에서는 망자의 여로를 따라 시왕(十王)의 심판과 윤회(輪回)라는 죽음에 대한 불교의 신화적 해석을 보여준다(대표 자료 - 극락지옥도).

'지장보살에 귀의하다'와 바리공주를 따르다'로 구성된 2부에서는 산 자의 도리로서 불교와 무속에서의 각기 다른 형태로 전승되어 온 의례들을 보여준다(대표 자료 - 지장보살상). 관람객들은 잘 알려진 유교식 상례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속에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을 기리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쇼케이스 속에 박제된 전시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의 현장들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전통을 담았다. 예컨대 효율성을 강조하는 3일장이 제도화된 오늘날, 불교의 천도재(사십구재)는 49일 동안 죽은 이와 보다 인간적으로 천천히 이별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죽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받아 다시 태어난다고 말한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윤회(輪回)'라고 하고,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생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악업이 큰 자는 지옥에 떨어지거나 아귀, 짐승으로 태어나고, 선업을 쌓는 자는 천상계에 가거나 아수라,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망자가 윤회하기에 앞서 지나는 여정은 명부를 지키는 10명의 왕, 즉 명부시왕을 차례로 만나 생전의 삶을 심판받는 과정으로 그려진다.

누군가가 죽으면 이승에 남은 가족들은 망자가 조금이라도 좋은 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49재나 천도재 등을 통해 복덕을 쌓으려는 노력을 했다. 이는 시왕이나 지장보살과 같은 불교의 신화와 관련된 의례이지만 효(孝)와 가족애를 강조하는 유교문화의 영향 속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시왕신앙은 한국의 토착신앙체계인 무속과도 결합하여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천도를 기원하는 굿의 모티브를 이루게 되었다.

이번 전시는 죽은 자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산 자의 시점에서 마무리된다. 죽음을 마주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산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문의 (02)3704-3176


만자운용문판화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특별전

'한 · 중 전통문양판화의 세계'
7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 중 · 일 목판화로 제작됐던
전통문양 판화 100여 점 선봬
책표지용 판목, 벽지 등 눈길

한국과 중국 등에서 목판화로 만들어진 전통문양판화자료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7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 중 전통문양판화의 세계'를 개최한다.

동아시아 전통문양판화는 4차 산업시대의 주요한 콘텐츠인 디자인의 뿌리로 평가되고 있다. 한 · 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 등지에서 목판화로 제작된 전통문양 관련 능화판목, 벽지, 인출판화, 이불보, 보자기 등을 비롯하여 능화판으로 압인된 책표지 등을 포함해 100여 점을 선보인다.

우리나라 조상들은 삶 속에서 다양한 문양을 사용했다. 특히 책을 만들기 위해 목판 인쇄술인 능화판을 이용하여 책표지를 장식했으며, 벽지, 반지지, 이불보, 보자기 등에도 아름다운 목판화 문양을 새겨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중국의 경우에는 화지(花紙)라는 전통 문양 목판을 만들어 천에 염색을 하거나, 포장지 벽지 장황지(족자제작), 서판(서예용 종이) 등 아름답게 만들이기 위해 문양 목판화가 활용되었으며, 일본에서는 목판으로 색분해를 해서 다색으로 아름답게 만든 채색 문양들이 제작됐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목판화 문양과 일본의 다색문양 전시를 통해 전시 관람객에게 한국과 중국, 일본 문양판화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자료는 한국의 책표지를 압인하는데 사용한 다양한 능화판 판목과 판목을 활용해서 현대에 인출한 능화문양과 판목은 사라졌지만 이불보, 보자기, 벽지 등에 남아있는 전통문양들이다.

중국 문양으로는 화지라 하여 다양한 꽃문양이 장식된 포장지를 비롯하여 염색을 할 때 사용되었던 염색문양판과 글씨를 쓰는 종이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던 문양판화 등 한국과 다르게 일찍이 상업화되어 만들어진 문양판화들을 소개한다. 일본에서는 분색분판으로 만들어진 다색 문양지와 당지(唐紙)라 하여 목판화문양을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키우고 있는 가라카미 판목을 비롯해 기모노 문양을 찍었던 판목도 눈길을 끈다.

특별전 기간에는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지역 명사와 함께하는 숲속 판화여행' 등이 진행된다. 박재완 기자

다산민속사주 나는 역학이다

불교계의 역/학/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 불교계의 고승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역학비법입니다.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숫자 운명을 품다)
사주공부 어렵게 하지마라, 이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다!!!
10만 명 실관, 17년 역학 강의, 〈나는역학이다〉 대표원장 이동현의 역학통변강의



1부터 9까지 아홉 가지 숫자를 사용하여 일진, 월운, 세운, 대운을 봅니다. 대단히 쉽고 간단하면서도 족집게처럼 명확하게 사주운세를 감명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지음 | 550p | 180×253×41㎜
정가 ~~60,000원~~
판매가 54,000원(10% 할인)

◈ 책구입 & 동영상강의 신청 ◈
02)877-8771, 010-9687-0080
NAVER 나는 역학이다 검색

복을 가져다 주는 행운의 말발굽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사람도 재운이 있어야 돈도 벌고 명예도 얻습니다. 그러기에 금전운을 키워야 합니다.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도와주는 것이 있었으면 할 때 말발굽을 소장해 보세요. 말(馬)은 원래 서양 속담에 "말굽을 발견하면 행운이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 습성이 있어, 예로부터 액운을 막고 복을 가져다주는 상징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없던 복도 굴러 들어오고, 재산을 모으고, 장애물을 쉽게 넘어갑니다. (모든 일이 술술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들어온 복을 지켜주며, 선물용으로도 좋고 장식용으로도 좋습니다.


30만원 사이즈 54X47X5cm
*모든 액자틀은 원목을 사용합니다.


20만원 사이즈 49X34X5cm


11만원 사이즈 35X35X5cm

●초진재보란?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 재물이 피해 가지만
재물을 사랑하고 초대하면 재물이 저절로 들어온단 뜻입니다.
*말(馬)이 실제로 사용한 굽이여서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가좌로 248 유튜브 "유명표구사" 검색
유명액자만물 Tel. 010-3308-6986
※ 전국택배 됩니다.

기업은행 041-002694-03-016 이종부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 1년 (서울, 경기 의식 기준)
① 사물 다루는 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② 천도의식 :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③ 각종 바라작법(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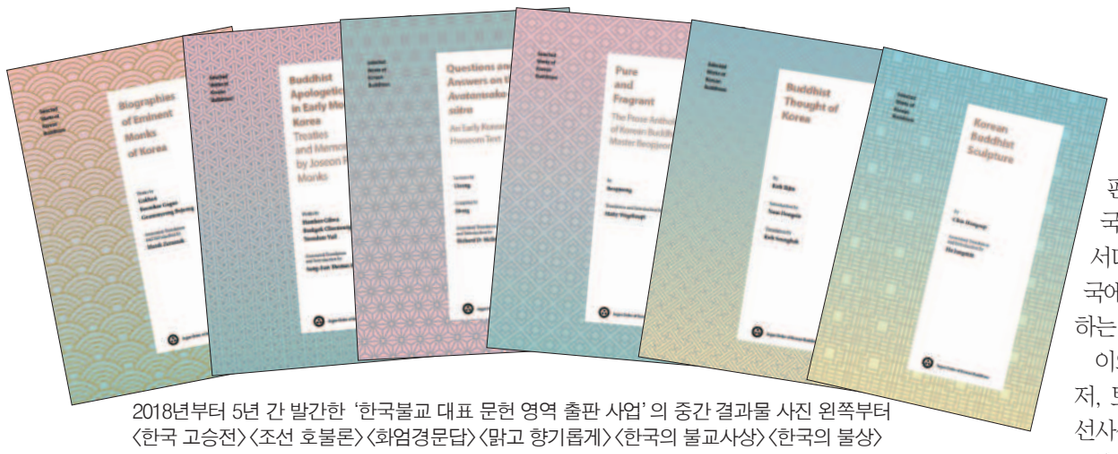
개 강 일 2022년 9월 7일(수)
교육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수 업 료 매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장 소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경주시 강동면 모서별봉길 52-33)
접수 연락처 054)762-5888 / FAX : 054)762-5889
접수기간 상시모집(전화접수가능)
자 격 종단, 승속 관계없이 가능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장 김지공

韓불교 대표 문헌들 영역본으로 '재탄생'

조계종 영역편찬위원회 영역본 6종 중간결과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8년부터 5년 간 발간한 '한국불교 대표 문헌 영역 출판 사업'의 중간 결과물 사진 왼쪽부터 〈한국 고승전〉〈조선 호불론〉〈화엄경문답〉〈맑고 향기롭게〉〈한국의 불교사상〉〈한국의 불상〉

한국 고승전 · 조선 호불론 등
역사 · 사회 · 교학 고전서 6종
국내외 석학들 영역자로 참여
4종 발간 예정…총 10종 완간

한국불교 대표 전통 · 현대 문헌 6종이 영역본으로 재탄생했다.

조계종 한국불교대표문헌영역편찬위원회(위원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는 "한국불교의 정신적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한국불교 대표 문헌 영역 출판사업'의 중간 결과물인 6종의 영역본이 발간됐다"고 7월 2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시작된 '한국불교 대표 문헌 영역 출판사업'은 전통 문헌 5종과 현대 문헌 5종 등 10종의 도서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계종은 사업의 진행을 위해 편찬위원회를 비롯해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봉, 교육부장)와 기획편집위원회(위원장 김종욱)를 각각 구성했으며, 실무는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담당했다.

편찬위원회는 2018~2019년 문헌을 선별하고 번역자와 감수자를 발굴 · 선정했다. 번역자와 감수자는 한국불교를 전공하는 해외 석학들이 대거 참여했다. 주요 번역 · 감수자로는 리차드 맥브라이드(Richard McBride, 하와이 브리엄영대학), 마렉 제마넥(Marek Zeman, 체코 프라하 카렐대학), 토마스 김(Thomas Kim,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메티 베게하우프트(Matty Wegehaupt, 미국 미시건대학), 토르스텐 트라울젠(Thorsten Traulsen, 독일 보쿰대학), 존 조르겐슨(John Jorgensen, 호주국립대학), 안준영(미국 미시건대학), 김성욱(미국 콜럼비아 대학)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영역본은 △〈한국 고승전〉(각훈 외2 저, 마렉 제마넥 역)△〈조선 호불론〉(함허기화 외2 저, 토마스 김 역) △〈화엄경문답〉(의상 저, 리차드 맥브라이드 역) △〈맑고 향기롭게〉(법정 저, 메티 베게하우프트 역) △〈한국의 불교사상〉(고익진 저, 고승학 역) △〈한국의 불상〉(진홍섭 저, 하정민 역) 등으로 2020~2021년 출간된 것들이다.

발간된 영역본 〈한국고승전〉은 〈해동고승전〉〈동사열전〉〈조계고승전〉의 편집본으로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고승전에서 중요한 선지식들의 전기를 채록했다. 〈조선 호불론〉은 〈현정론〉〈간폐석교소〉〈상한능주필수장서〉의 합본집으로 조선시대 호불론을 엄선해 수록했다. 〈화엄경문답〉은 의상의 강의를 제자 지통이 정리한 것으로, 화엄교학의 핵심 주제에 대한 문답이 주를 이룬다.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주옥같은 수필 50선을 엄선해 영역한 문집이다.

현대 불교학자 고익진의 논문 4편을 엮은 〈한국의 불교사상〉은 한국불교 철학에 대한 대중적인 입문서다. 진홍섭의 〈한국의 불상〉은 한국에서 조성된 각 시대의 불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월인천강지곡〉(세종대왕 저, 토르스텐 트라울젠 역)과 △〈한국 선사상〉(진정 천택 저, 헨릭 소렌슨 외 1 역) △〈선문정로〉(퇴옹 성철 저, 안준영 역) △〈선의 세계〉(고형곤 저, 김성욱 외1 역) 등 4종은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영역본은 한국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 도서관 및 연구기관과 저명한 불교학계 학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전자책과 PDF 파일로 제작, 조계종 영문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계종 한국불교대표문헌영역편찬위원회는 "이번 번역서 출간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우수한 한국불교 문화와 사상을 해외에 소개하고 그 사상과 문화 전반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지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내에 안정적인 영역출판 시스템을 확립하고, 향후 영어를 비롯한 각종 외국어로 번역하는 사업 추진에도 탄력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마음 회통', 종교대화 새로운 비전 제시"

대행선研, 7월 16일 계절발표회…대행선 · 종교다원론 연결 탐색

"원효 스님의 일심사상과 같이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은 이웃종교를 가장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바탕과 체계를 갖춘 사상이 되었다. 회통의 모습에서 새로운 종교간 대화의 비전을 찾을 수 있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 속에 함축된 종교관을 현대 종교다원주의 담론과 관련해 탐색하는 발표가 진행돼 눈길을 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7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12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가 '묘공 대행의 이웃 종교관과 종교다원주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허우성 경희대 명예교수, 김호귀 동국대 HK교수가 논평했다. 이어 조윤호 전남대 교수가 '화엄 · 유식 · 선의 관계론 재고'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부산대 교수 도업 스님과 박보람 충북대 교수가 각각 논평했다.

특히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는 '묘공 대행의 이웃 종교관과 종교다원주의'에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 속 총 8가지 측면서 다원주의 성격이 있음을 분석했다.

김 명예교수는 △종교가 아닌 생명과 삶의 진리로 종교를 제시한 점 △모든 성인의 진리를 한마음으로 회통하여 이해하고자 한 점 △부처님 지혜에 입각해 대승 공사상의 절대 진리 개념서 벗어난 열린 종교관인 점 △한마음 중심주의가 현대 다원주의 사상가인 존힉의 종교다원주의와 구조상 유사한 점 △무조건적인 타종교 수용이 아닌 한마음 안에서 회통하는 다원적 포괄주의인 점 등을 예시로 들었다.

김 명예교수는 "대행 선사는 부처님과 역대 선지식들의 포용적 이웃종교관을 계승하면서 사대성인들의 가르침이 한마음에 있다는 '한마음 종교 기반론'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명예교수는 "이러한 대행 선사의 종교인식은 현대의 대표적인 종교사상가인 존힉이 제창한 종교다원주의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불교 테두리도 초월하는 열린 진리의 지평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대행 선사의 '예수의 부활'을 해석한 법문에서 열린 지평이 드러난 부분의 예시를 찾았다. 대행 선사는 2017년 국외지원법회에서 부활절에 대해 "그 의식 자체 영혼만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영원히, 오늘이 오늘이야.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는 한 예수도 부처도 다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절, 내일도 부활절이에요"라고 설했다.



김용표 명예교수가 7월 16일 대행선연구원 제12회 계절발표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명예교수는 "결국은 육신의 부활이 아닌 생멸을 떠나 한마음으로 사는 것, 생사를 여의는 것이 참 깨달음이자 부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라며 "틱낫한 스님, 달라이라마도 강조하듯 결국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세계 종교 갈등 해소에도 이러한 가르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그는 "대행 선사가 추구한 종교 대화는 상대 종교에 대한 지식의 교환이나 비교의 차원을 넘어서는 심층적 영성의 대화"라며 "종교가 다른 상대를 만났을 때도 한마음과 더불어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되어 만난 것으로 생각했다. 이는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답을 내려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계절발표회 개회식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이날 발표가 종교간 대화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한마음선원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음을 말했다. 이에 발맞춰 한마음선원은 대행 선사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세계 각국 대사들을 초청하는 국제학술대회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 : 마음, 과학, 종교'도 준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혜수 스님은 "5월 진행된 대행선사 열반 10주기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한 세계불교학자들의 발표 내용도 세상의 고통을 함께 보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학술대회서의 다양한 주장도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오늘 발표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내용이 향후 세계종교의 대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 준다"고 말했다.

안양=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산 부석사 불상 취득권 국제법 · 민법으로 살핀다

7월 27일 학술 집담회 개최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취득권 성립을 국제법과 민법의 관점에서 살피는 학술 집담회가 열린다.

제21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공동대표 박범계, 윤영석)'은 7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제법과 민법으로 보는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취득권 성립에 관해'를 주제로 국제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집담회는 서산 부석사 관음상에 대해 지난 6월 15일 대마도 관음사 주지가 대전고법에 출석해 "부석사의 동일성과 선의취득 그리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 관음사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약탈문화재의 원상회복에 있어 국제사회의 원칙과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주제는 '부석사 불상의 취득권 성립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미국에서 온 찰스 댄지거 변호사와 김병구 법무법인 우정 대표변호사가 주제 발표한다. 제2주제는 '국제사회의 문화유산회복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김경인 前 튀니지 대사와 케이트 리 교수가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을 통해 대마도 관음사의 진술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예정다.

박범계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 공동대표는 "집담회를 통해 약탈품의 환수 문제에 있어 상충하는 법리 적용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고, 전 세계 피탈 문화재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례를 제공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하는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단 하루만이라도 부석사에 봉안하게 해달라는 서산시민, 부석사 신도의 간절한 염원의 힘으로 오늘날까지 봉안 운동을 전개했다"면서 "지난 6월 대마도 관음사의 진술은 허구에 기초한 것이고 약탈문화재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맞지 않은 일이다. 이번 집담회를 통해 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대마도 관음사에 봉안됐다가 도난돼 한국에 들어온 서산 부석사 관음상.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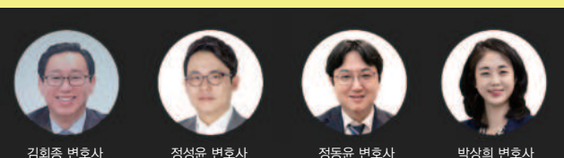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금송
T.055)747-1300 F. 055)747-1307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293번길 7, 301호(유니언빌딩, 신안동)


김회종 변호사 (전 진주지청장)
정성윤 변호사 (민사/가사 전문)
정동윤 변호사 (형사/부동산 전문)
박상희 변호사 (이혼/형사 전문)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종도를 위한 고문변호사"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5

▶ 76회 예고
아쇼까왕은 깔링가국 정벌을 위해 마우리아국의 전군을 동원한다. 목갈리뿟따 띳사 장로의 의견을 받아들여 코끼리가 끄는 이동법당을 만든다. 군사들의 무운장구를 빌기 위해서다. 마침내 자신이 총사령관을 맡아 진격한다.



아쇼까, 깔링가국 정벌을 결심

아쇼까왕이 왕권을 잡고 난 뒤부터 수상이 된 라다굽따는 중병이 들었다. 아쇼까왕이 몇 번이나 궁중의원을 보내 치료했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누운 채 목숨을 연명할 뿐이었다. 칼라따까와 함께 아쇼까가 이복형 수시마를 물리치고 왕권을 잡는 데 크게 공을 세운 대신이었다. 강경한 칼라따까에 비해 라다굽따는 온건한 대신이었다. 아쇼까왕이 잔혹하게 궁녀와 신하들을 살해할 때 라다굽따는 나름대로 다르마 대비와 함께 왕의 포악한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하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라다굽따도 세월은 이기지 못했다. 나이가 들어 찾아온 노환이었다. 눈과 귀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몸은 젓가락처럼 말라갔다. 아쇼까왕 집무실에서 회의를 하다가 쓰러져 들것에 실려나간 적도 있었다. 급기야 아쇼까왕이 내성 안에 있는 그의 저택으로 문병을 가기에 이르렀다. 라다굽따는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누운 채 아쇼까왕을 맞이했다.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오?"

"소신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 걱정은 마시고 몸조리 잘하시오."

"대왕님이시여, 저는 틀렸습니다. 제 운명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나에게 할 말은 없소?"

"대비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륜성왕이 되시어 추앙받기를 바랍니다."

라다굽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이맛살을 찌푸리며 몹시 고통스럽게 몸을 뒤척였다. 아쇼까왕이 그의 고통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전륜성왕은 어떻게 될 수 있소?"

"백성을 칼보다는 마음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소."

아쇼까왕은 고통스러워하는 라다굽따에게 말을 시키는 것이 미안하여 서둘러 그의 방을 나왔다. 수행한 친위대장에게 말했다.

"라다굽따 수상의 복귀는 어렵겠소. 새 수상을 찾아야겠소."

"대신들 중에서 찾으시겠습니까?"

"내 눈에 든 대신이 없으니 라다굽따가 지금까지 수상을 해온 것이오."

친위대장은 입을 다물었다. 아쇼까왕의 의중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쇼까왕은 진즉부터 대관식 다음해에 빠딸리뿌뜨라 성 밖으로 추방당한 마하데바라를 수상 후보선상에 올려놓고 있었다. 마하데바라는 눈엣가시 같은 깔링가국을 정벌하자고 주장한 대신이었다. 깔링가국이 해상무역로를 장악한 탓에 자국의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깔링가국 세리들이 마우리아국 상인들에게 터무니없는 세금을 물리곤 했던 바 마하데바라는 대신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분노했다.

그때 아쇼까왕은 대관식을 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깔링가국의 전력을 잘 몰랐으므로 마하데바라 대신의 조언을 받아들여 변방의 장군을 대장군으로 삼아 보병 10만 명을 보냈으나 보기 좋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 책임을 물어 마하데바라를 빠딸리뿌뜨라 성 밖으로 추방했고, 원정 대장군은 외성 사령장에서 참수했다. 아쇼까왕은 그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당장은 내치를 다질 때였으므로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대관식을 치른 지 7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전력은 몇 배나 증강이 된 상황이었다. 실제로 정벌에 실패한 뒤부터 전력을 증강하여 즉위 4년째에는 보병이 60만 명, 기병이 10만 명, 코끼리부대 9천 명이 되었고, 이후에는 강훈련을 꾸준히 지속하여 지금은 가용병력 전체가 정예화 되어 있었다.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출동하여 어느 나라든 정벌할 수 있는 전투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아쇼까는 친위대장에게 마하데바라를 수소문하도록 지시했다.

"대장, 마하데바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시오."

"마하데바라가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소?"

"저나 마하데바라 전 대신님이나 모두 칼라따까 수상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마하데바라는 지금 어디에 있소?"

"외성 밖 짠달라 천민촌에 살고 있습니다."

"브라흐민이 어째서 달리뜨들의 천민촌에 살고 있다는 말이오?"

"그곳에 사는 부자 도비왈라가 전 대신님에게 크게 도움을 주어왔고, 그분의 저택에는 큰 법당이 있는데 니그로다 사문님이 짠달라 천민들에게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의 말을 들으니 마하데바라에게 더욱 미안한 생각이 드오. 빠딸리뿌뜨라 성 밖에서 천민 달리뜨들과 함께 마하데바라가 살고 있다니 말이오."

"니그로다 사문에게 귀의하면서 그분의 삶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하데바라는 원래 애국심이 강한 신하였소. 깔링가국에서 우리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니까 깔링가국을 정벌해버리자고 주장했던 대신이었소."

친위대장은 아쇼까왕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칼라따까가 발탁한 인물들은 충성심이 강한 것이 특징이었다. 칼라따까 수상이 수시마를 제거하는 데 앞장선 이유도 사실은 마우리아국의 미래를 위해 한 일이었지, 자신의 영달을 도모하고자 모사를 꾸민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대장, 마하데바라를 즉시 데리고 오시오."

"예, 알겠습니다."

친위대장은 아쇼까왕 집무실을 나왔다. 마하데바라가 살고 있는 외성 밖으로 말을 타고 달렸다. 친위대장이 마하데바라를 안 지는 십수 년이 넘었다. 칼라따까 저택 집사 시절에 마하데바라를 처음 보았던 것이다. 신분은 칼라따까와 마하데바라는 브라흐민이었고, 친위대장은 끄샤뜨리야였다. 칼라따까는 자신을 닮은 것 같은 마하데바라를 후계자로 키우고 싶어 했는데, 라다굽따가 등장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아쇼까왕이 온순하고 태도가 원만한 라다굽따를 수상으로 지명했던 것이다. 마하베바라의 재등장은 5년 만인 셈이었다. 친위대장은 곧장 외성 밖으로 나가 짠달라 천민촌으로 달렸다. 마하데바라의 저택은 천민촌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 강가강이 보이는 언덕에 이층벽돌집 두 채가 바로 마하데바라의 저택이었다. 한 채는 마하데바라 살림집이었고, 또 한 채는 니그로다 사문이 법회를 주관하는 법당이었다. 도비왈라가 자신의 사재를 들여 지어준 건물이었데, 도비왈라로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마하데바라가 전 친위대장을 소개해주어 왕실 및 친위대 지휘관들의 빨랫감을 몰아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친위대장이 짠달라 천민촌에 도착했을 때 도비왈라는 마을 옆으로 흐르는 강가강 지류에서 빨래하는 수십 명의 달리뜨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친위대장이 말을 타고 다가오자 도비왈라는 급히 쫓아와서 굽신거렸다.



"대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마하데바라 대신님을 모시러 왔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앞장서게."

"대신님께서는 잘 계신가?"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한 대신님이신데 제가 어찌 소홀히 모시겠습니까?"

"자네는 운이 좋아. 전 친위대장과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왕궁에 한 사람도 없다네."

"니그로다 사문님이나 대신님이 돌보아주신 덕분이죠. 두 분 모두 저희 달리뜨들이 의지하는 분들이죠."

마하데바라가 사는 이층벽돌집 저택은 왕궁 건물처럼 깨끗했다. 정원도 잘 손질되어 단정했다. 장미꽃과 부겐빌리아의 붉고 하얀 꽃들이 저택 입구에서부터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대신님 저택은 누가 관리를 해주는가?"

"제가 날마다 대신님 댁에 청소부를 보내죠. 정원은 우기가 끝나면 바로 사람을 보내 정원수들을 다듬고요."

"의리가 있으니 전 친위대장 사람인데도 왕실의 일감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네."

"그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마하데바라 대신님과 니그로다 사문님 덕분이죠."

"니그로다 사문님은 대왕님 조카이니까 그렇겠네."

도비왈라가 마하데바라의 저택 정문에서 청소부를 발견하고는 소리쳤다.

"대신님께 알리거라! 왕궁에서 친위대장님께서 오셨다고!"

"예, 도비왈라님."

친위대장은 정문 밖에서 마하데바라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물론 도비왈라도 마찬가지였다. 이윽고 수염이 허연 마하데바라가 나타났다. 수염만 허열 뿐 마하데바라의 피부는 젊은 청년처럼 팽팽했다. 피부를 보아서는 아주 건강해 보였다. 친위대장이 말했다.

"대신님, 대왕님께서 모시고 오라는 명을 받고 왔습니다."

"얼마 만인가?"

"칼라따까 수상님 댁 집사로 있을 때 대신님을 뵙곤 했습니다."

"십수 년만이군."

"대왕님께서 새 수상을 물색하고 계십니다."

"라다굽따 수상이 있지 않는가?"

"대왕님 집무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다굽따 수상이라고 해서 세월을 피할 수는 없겠지."

"대신님은 하나도 늙지 않으셨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네. 라다굽따도 자네도 나도 마찬가지일세."

마하데바라는 하인에게 말을 꺼내오게 했다. 아쇼까왕의 명을 거부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마하데바라는 마치 때를 기다려 왔다는 듯 말에 올라탔다.

"대왕님께서 부르시는데 빨리 가서 알현해야겠네."

"대신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대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겠네."

친위대장이 길잡이가 되고 마하데바라가 뒤따랐다. 두 마리의 말이 달리면서 모래먼지를 일으켰다. 그런데도 도비왈라는 고개를 숙인 채 한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쇼까왕은 친위대장에게 지시한 지 한 나절만에 마하데바라를 데리고 오자, 몹시 만족했다. 아쇼까왕이 마하데바라의 양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마하데바라 대신이여, 5년 만에 그대를 만나고 있소."

"대왕님이시여, 소신을 잊지 않고 불러주시니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 그대는 나와 할 일이 많소."

"명령만 내려주신다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대를 보니 칼라따까 수상이 생각나오."

"친위대장이 소신을 찾아왔을 때 소신은 대왕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나는 원이 있소. 할아버지 대왕님, 아버지 대왕님께서 이루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소."

"그것은 깔링가국 정벌이 아닙니까?"

"그렇소. 나는 그대와 함께 선왕께서 이루지 못한 깔링가국을 정벌할 것이오."

"소신이 목숨을 바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미 잘 훈련된 보병 60만 명, 기병 10만 명, 코끼리부대 9천 명이 대기하고 있소.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설 것이오."

그날 오후.

아쇼까왕은 두 가지의 명을 내렸다. 하나는 마하데바라를 수상으로 임명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전군에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는 것이었다. 아쇼까왕은 전투첩보가 깔링가국에 흘러들어가기 전에 바람처럼 빠르게 속전을 펴서 정벌할 생각이었다.〈계속〉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⑭ 보문(普門)의 구도 수행 2



▶한줄요약
보문은 부산과 만주 그리고 금강산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대중과 함께하는 출가자로서의 삶을 추구했다.

출세간과 세간 사이 오가며 깨달은 것들

4. 부산 항만노동자 현실 속으로 들어가다

일제 경찰의 수배를 받고 대구를 떠난 보문(1906~1956)은 1년 뒤인 1935년 부산 항만에 모습을 나타냈다. 화물을 배에 싣거나 배에서 화물을 내리는 일을 하는 항만노동자가 되었다. 보문은 왜 부산항만 노동자가 되었을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부산항만의 노동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1920년대부터 일본 자본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을 잠식하여 식민 지배를 뒷받침했다. 부산항은 일본 자본의 진출을 돕는 해상교통 및 물자 이동의 요충지였다. 특히 일제의 대륙 침략 전쟁 준비가 노골화되면서 전쟁물자 이동의 교두보 노릇도 하게 되었다. 항만의 하역량이 급증하니 항만노동자는 유례없이 늘어나 5천여 명에 이르렀다.

하역조합인 모군청(募軍廳)이 만들어졌다. 모군청은 정부로부터 노동자 감독권을 허가받아 노동력을 조달했다. 영신조(永信組)나 창신조(昌信組) 등의 단체도 결성됐다. 이들 단체는 하역노동자를 모집 공급하는 역할만 할 뿐 노동자의 이익이나 복지를 배려해주지 않았다. 항만노동은 20명 내외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기에 작업조의 구성이 불가피했고 이를 인솔하는 조장(助長)과 십장(什長)이 생겨났다. 조장과 십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는 자기들 이익만을 챙겼으니, 그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경제적 침탈을 노골화하기 시작한 일제는 마침내 모군청을 폐지하고 일본인 소유 항만하역작업회사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1920년에서 1930년에 이르기까지 중국 산동성 출신 노동자 '쿠리[苦力]'를 비롯하여 중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들의 존재는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구실이 되어 조선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로는 인플레가 진행되어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더욱 낮아졌다.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일제 자본가는 전시체제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또 깎았다. 하역회사에 소속되지 못한 '비상용 하역노동자' -속칭 우께도리-의 상황은 더 비참했다. 창신조나 영신조는 비용 공제 등을 핑계로 하여 비상용 하역노동자의 임금을 마음대로 깎았다. 결국 비상용 하역노동자의 임금은 상용 노동자의 임금의 1/3 수준이 되었다.

1921년 9월에 일어난 부산부두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최초의 노동쟁의로서 온 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다. 1931년 부산초량해륙노조원 800여 명은 임금의 3할을 깎는 조치를 철회하라는 쟁의와 투쟁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제는 합법적 노동운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했다. 이제 부당한 임금 착취에 의해 궁지에 몰린 항만노동자들이 자신을 권익을 보호할 길을 찾기가 불가능해졌다.

보문이 부산항만으로 간 것은 이 같은 항만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보문은 가장 아프고 고단한 공간으로 자기 자리를 옮겨간 것이다. 항만하역작업회사들이 조선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고 착복하는 것을 목격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노동자들의 억울한 형편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부산을 떠난 보문은 만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민족의 영산 금강산을 참배하기로 했다. 사진은 금강산 내금강 묘길상암.

동헌(東軒, 1896~1983)이 증언했듯 대구에서 노동운동에 관여한 바 있는 보문이 노동자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연대를 생각하지 못했을 리 없지만, 이미 노동조합은 해산되어 제 노릇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생계를 꾸려가기 어렵게 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돕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보문은 일본인 감독자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해 주도록 개인적으로 거듭 촉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일본인 감독자가 체불한 임금을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한 보문은 일본도를 구해 품고서 퇴근하는 일본인 감독자의 뒤를 밟았다. 감독자가 부산 초량의 자기 집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대문을 두드렸다. 그 부인이 나왔다. 남편과 용건이 있다고 했다. 남편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자 보문은 일본도를 꺼내 겨누고서 남편이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집의 이층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던 일본인 감독자는 어쩔 수 없이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가져와서 건네주었다. 보문은 그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다 나눠주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한 일이 부산 항만 노동자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도움이 되기는커녕 무모하기만 한 짓이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보문은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생각하며 부산을 떠나갔다.

항만 노동자 돕기 위해 부산으로
민족해방 본격 투쟁 위해 만주행
만주길서 민족 영지 금강산 들러

5. 독립투쟁을 위해 만주로 향하다

보문의 다음 목적지는 만주였다. 일제가 조선 민중을 유린하는 식민지 현실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이 먼저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보문의 만주행은 민족해방 투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였다.

만주는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점 전후로 주목받게 된 항일독립전투의 근거지였다. 그곳은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일제 세력이 곧바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어서 독립전투를 수행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었다. 만주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일찍이 홍범도 등 함경도 의병세력이 만주로 이동했으니, 이들은 1920년대 항일 무력항쟁을 이끈 독립군의 기반이 되었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승리도 이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그 뒤로 이동휘, 유인석, 우병열, 이진룡 등이 만주로 망명해갔다. 이회영은 6형제와 가족 50여 명을 이끌고 갔다. 평해 황씨 문중에서 50여 명, 이상룡을 중심으로 한 고성 이씨와 의성 김씨 문중에서 각각 150여 명이 만주로 망명했다. 평해 경주 이씨, 구미의 김해 허씨, 상주 진주 강씨, 영양의 한양 조씨 일문 등 영남의 유림 집안들도 이주해갔다.

이처럼 만주는 민족해방투쟁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우선 떠올리는 공간이 되어있었다. 부산항만에서 국내적 항일투쟁의 한계를 절감한 보문이 더 위력적인 독립투쟁을 하기 위해 만주를 선택한 것은 적절하고 당연했다.

또 이 무렵 다혁단이나 태극단 등 대구사범학교와 대구상업학교 항일투쟁 학생 단체들도 국내 활동이 여의치 못할 경우 만주의 독립군에 합류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보천보전투를 통해 널리 알려진 만주 무장부대의 활동은 그들에게 큰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대구의 학생들은 만주로 가서 직접 전투를 펼칠 목적으로 체력 단련과 군사 훈련에 힘쓰고 있었던 것이다.

보문의 만주행은 이런 대구 학생들의 조직적 만주 진출 계획과 궤를 함께하는 개인적 진출인 셈이었다. 더욱이 불교적 구도의 길을 잃지 않고 있던 보문은, 수월(水月, 1855~1928)이 10여 년간 만주 회막동, 나자구 화엄사, 수분하 등지에 머물며 고국의 품을 떠나온 조선 민중들의 병을 고쳐주고 짚신을 삼아주며 제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오고 있었다.

6. 민족 영산 금강산을 참배하다

만주를 향하여 장도에 오른 보문은 민족의 영산 금강산을 마지막으로 참배하기로 했다. 고국을 떠나면서 금강산을 들른 것은 당시 젊은이의 공간적 감성을 고려할 때 어색하지 않다. 보문이 대구사범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사실이었다면-필자는 그간 보문의 대구사범 편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정보공개를 신청하여 경북대 학사과 소장 자료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함께 공부했을 법한 대구사범 제4기 학생들도 보문이 금강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금강산을 다녀갔다. 수학여행이었다.

보문은 금강산 장안사 위 마하연에 이르렀다. 마하연에는 석우(石友, 1875~1958)가 조실로 있었다.

보문은 수좌들이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발심했다. 만주로 가서 독립투쟁을 하려던 마음이 수행 득도하여 중생을 구원하려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느꼈다. 물론 문경과 대구 시절 〈법화경〉 등 경전공부를 했고, 생사고해의 실정에 대해 고민해오던 것이 이때 더 뚜렷해진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마하연에서 행자 노릇을 시작했다.

마하연 선방은 장안사에서 식량을 가져다 먹고 있었다. 보문은 일주일에 한 번 장안사로 내려가서 방아를 찧어주고 식량을 얻어 짊어지고 마하연으로 돌아왔다. 정월 보름날 해제를 맞아 정진하던 스님들이 포살(지은 죄를 뉘우쳐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불교의 참회법)을 마치고 성불도(成佛圖, 극락과 지옥을 판에 그려두고 승부를 내기하는 놀이) 놀이를 하고 있었다. 스님들이 대중을 상대로 번갈아 가며 법문 시늉을 하는데, 대중을 웃겨야 법상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법상에 오른 스님들이 세속의 비루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중을 웃기려고 애쓰는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런 것이었다. '모두 부처님 말씀을 하며 부처님인 듯하더니, 대보름이라고 세속의 이야기를 저렇게도 태연히 하는구나. 근본 속은 잘 달라지지 않네!' 신심이 사그라들었다. 그런 곳에서 수행하여 중생구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았다. 보문은 만주로 다시 떠나기로 결심했다.

장안사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장안사로 내려가 하룻밤을 묵었다. 잠이 들었는가 싶었는데 기차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짐을 꾸려 역으로 향했다. 언덕을 오르는데 웬 노인이 송장 누인 관을 지게에 짊어지고 가고 있었다. 보문이 관을 피해서 추월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다가 겨우 지나쳐 가는데 노인이 작대기로 보문의 머리를 후려쳤다. "세상에 늙어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늙은이가 송장 지게를 지고 가면 젊은 놈이 대신 지게를 받아지고 가야지!" 노인이 소리쳤다. 노인에게 얻어맞은 부분이 너무나 아파서 깨어났다. 꿈이었다. '세상에 늙어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는 노인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 말은 화두가 되어 보문을 다시 발심케 했다.

〈연세대 객원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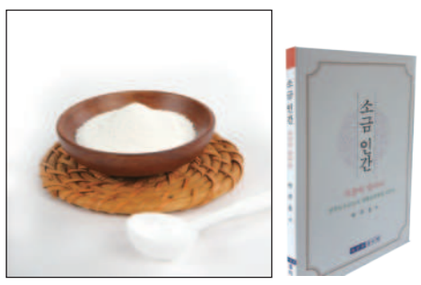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SINCE 2002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⑭ 안락국태자 이야기

▶ 한줄요약
일본 세이고분고에 소장된 〈안락국태자경변상도〉는 조선 왕실이 발원해 조성된 불화지만, 임진왜란 당시 약탈당했다. 도상은 25개의 한글 방제가 있는 특이한 구도인데, 이를 통해 경전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모진 고난 이겨내고 극락왕생 이르다

지난 글에서는 〈월인석보(月印釋譜)〉 권 25에 기록돼 있는 '선우태자(善友太子) 본생담'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 선우태자 이야기만으로 조선 전기 왕실에서 유행한 불경 고사를 이해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권 8에 총 17장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 안락국태자(安樂國太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한다. 〈월인석보〉에 제목을 명시하지 않아서, '안락국 태자전', '안락국 태자경', '원앙부인 왕생극락왕생연'(鴛鴦夫人 往生極樂往生緣)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 이야기는 〈월인석보〉 이외에도 〈석가여래십지수행기(釋迦如來十地修行記)〉 〈신라함월산기림사적(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 〈석가여래사적(釋迦如來事蹟)〉 〈석가여래십지행록(釋迦如來十地行錄)〉에 내용상의 큰 차이 없이 수록돼 있다. '안락국태자전'은 남전장경이나 북전장경에서 찾아볼 수 없어, 우리나라에서 민간소설 혹은 변문으로 창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안락국 태자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사례는 1576년에 조선 왕실의 비구니 사원에서 그려진 그림과 1788년에 제작된 기림사(祇林寺) '삼세불도'의 하단 그림이 있다. 1576년 작 '안락국태자경변상도'는 그림 상단의 화기에 의거해서 '사라수탱'(沙羅樹幀)이라고 불렸으나, 그림에 적혀있는 방제의 내용이 〈월인석보〉 권 8의 '안락국 태자전'과 같아 '안락국태자경변상도'라 칭하고 있다. 1576년 작 '안락국태자경변상도'는 구마가이 노부오(熊谷宣夫)에 의해 처음으로 국내에 알려졌으며, 현재 일본 세이잔분고(靑山文庫)에 소장돼 있다. 이 그림은 조선 왕실 발원 불화로서,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약탈 반출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이 그림의 상단에 기록된 화기를 통해서 만력 4년(萬曆, 1576년, 선조 9년) 6월에 비구니 혜원(慧圓)과 혜월(慧月) 등이 사라수구탱(沙羅樹舊幀)을 보았는데, 오랜 세월을 겪어 색이 흐트러지고 그 형상이 희미해져 알아볼 수 없어 구본을 바탕으로 새로이 그린 그림임을 알 수 있다.

'안락국 태자경 변상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인물이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화면은 상단 광유성인이 계시는 범마라국 · 중단 자현장자가 사는 죽림국 · 하단 사라수대왕이 있는 서천국 세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각 장면마다 금니로 한글 창제 시기 당시의 한글로 해당 내용이 적혀있어, 이러한 표현은 조선 불화에서 매우 드문 사례에 해당이 된다. 그림에 적혀있는 방제(傍題)는 모두 25개로서, 앞서 언급했듯이 〈월인석보〉 권 8의 '안락국 태자전'과 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며, 25개의 방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①)

① 이것은 승열바라문이 서천국에 처음 팔채녀를 빌리러 온 것이니라.

② 이것은 원앙부인이 처음 공양미(齋米)를 바치러 궁 앞에 나와 계신 것이니라.

③ 이것은 광유성인이 팔채녀를 빌려서 범마라국으로 가시는 것이니라.

④ 이것은 승열비구가 팔채녀를 데리고 와서 광유성인을 뵙는 것이니라.

⑤ 이것은 승열바라문이 두 번째 서천국에 가시는 것이니라.

⑥ 이것은 승열바라문이 두 번째 와계시는데, 원앙부인이 공양미를 바치러 나와 계신 것이니라.

⑦ 이것은 사라수대왕과 원앙부인과 승열바라문 세 분이 서천국으로 가시는 것이니라.

⑧ 세 분이 죽림국을 지나실 때 부인이 못 움직이시니 두 분께 말하였다. "사람의 집을 얻어 저의 몸을 팔아주시고, 그 돈을 받아 저의 이름과 함께 광유성인께 받쳐주소서." 슬퍼 두 분이 운다.

⑨ 이것은 승열비구가 자현장자집을 가르키는 것이니라.

⑩ 이것은 세 분이 풀숲에서 주무시는 것이니라.

⑪ 이것은 풀숲에서 주무시고 자현장자의 집으로 가시는 것이니라.

⑫ 이것은 자현장자 집에 세 분이 가셔서 계집종을 사라고 하는 것이니라.

조선 왕실 발원 '안락국태자경변상도'
임란 당시 약탈… 日세이잔분고 소장
25개 한글 방제로 경전 내용 풀어내
〈월인석보〉 "광유성인이 석가모니불"
고려시대 성립돼 조선 전기 성행 추정

⑬ 이것은 자현장자가 세 분을 모셔 "계집종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으니, 부인이 말하길 "내 몸 가격이 1천 근 금이며, 또한 배 속의 아기 가격이 1천 근 금이다"라고 하였다. 원앙부인이 2천 근 금을 받아 두 분께 바치는 것이니라.

⑭ 하룻밤 주무시고 문밖에서 세 분이 헤어지니 부인이 "꿈결이 아니면 어느 때에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닦으면 이익을 얻으니 왕생게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으니 아기의 이름을 정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왕이 눈물을 흘리시며 부인의 뜻을 가엾이 여겨 아들을 낳거든 안락국이라 하고, 딸을 낳거든 효양이라 하라고 했다. 문밖에서서 두 분이 헤어질 때 슬프게 우는 것이니라.

⑮ 이것은 승열비구가 금을 받아서 지고 가시는 것이니라.

⑯ 이것은 부인을 팔고 사라수대왕이 승렬비구와 둘이 가시는 것이니라.

⑰ 이것은 아기 안락국태자가 도망치다가 들켜서 장자집 종이 잡아가는 것이니라.

⑱ 이것은 아기가 도망하여 아버지를 보러 가기 위해 뗏목을 타고 가시는 것이니라.

⑲ 이것은 아기가 가다가 팔채녀를 만났는데, 사라수왕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⑳ 이것은 아기가 아버지를 만나 두 종아리를 안고 우니, 왕이 "너는 어떤 아이인데 종아리를 안고 우는가"라고 물으니, 아기가 말을 하지 않고 왕생게를 외우자 아버지가 아기를 안는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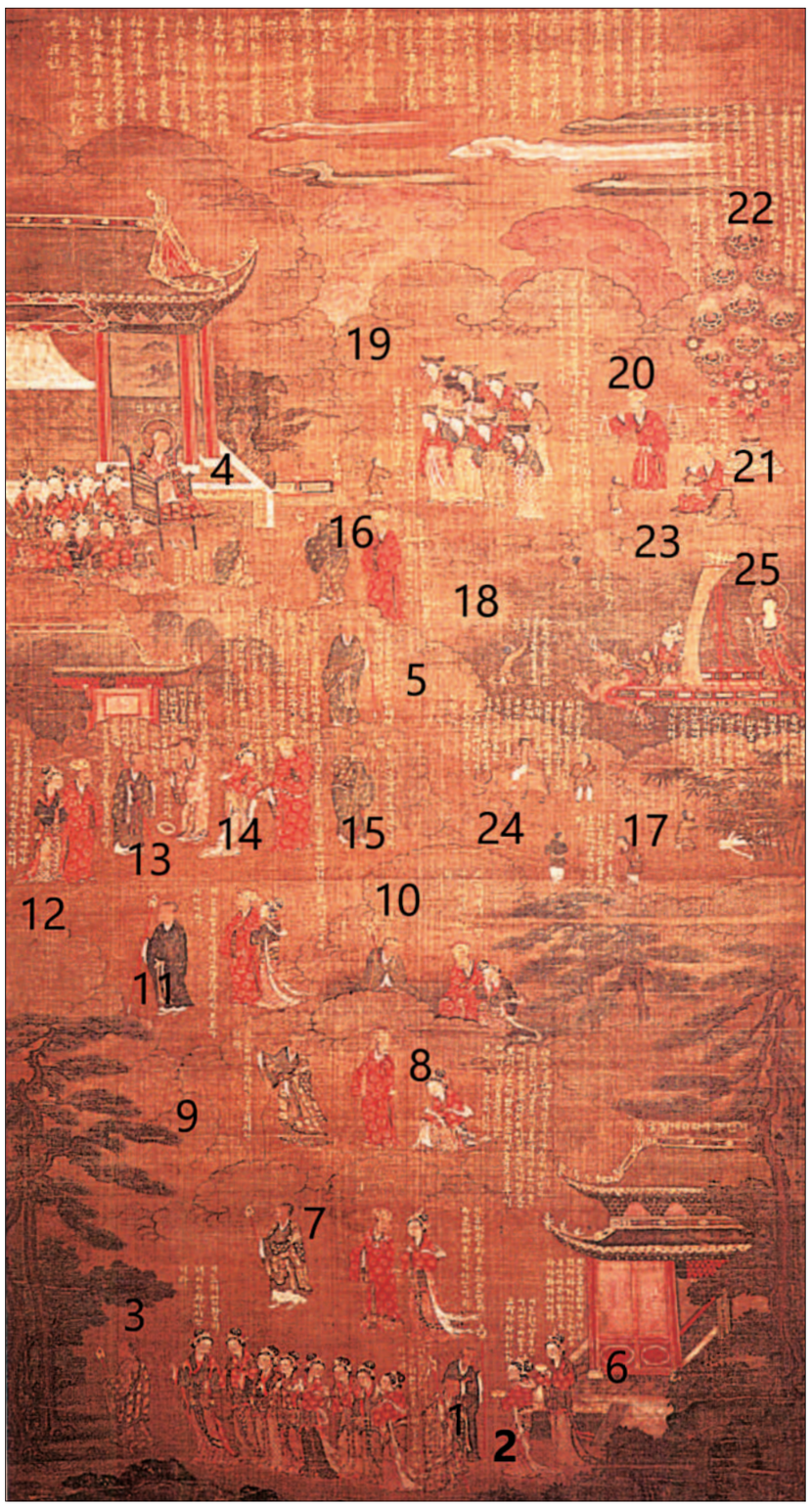
㉑ 이것은 아기를 안고 우는 것이니라.

㉒ 대왕이 아기에게 이르시되 "어제 네 어미는 나를 잃고 시름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은 너를 잃고 눈물을 흘릴 것이다." 아버지가 슬퍼하며 아기를 원앙부인에게 돌려보내실 때 노래를 부르시니 "알고 지내는 이 없는 이런 괴로운 길에 누구를 보려고 울면서 왔는가? 자비로운 원앙부인과 공덕을 닦는 내 몸이 깨달음의 길에서 마주 보리라."

㉓ 이것은 아기가 죽림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니라.

㉔ 아기가 돌아올 때 길에서 소 치는 아이를 보았다. 소치는 아이가 "안락국이는 아비는 보겠지만, 어미는 보지 못하고 시름이 깊도다. 장자가 노하여 부인을 죽이려하니 노래 부르시길 고운님 못보고서 슬피 우니, 오늘날에 넋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노래 불렀다.

㉕ 부인이 죽어 세 동아리로 짤려 큰 나무 아래 던져졌더니, 아기가 울면서 세 토막을 모아놓고 서방에 합장하였다. 이에 극락세계에서 사십팔 용선이 공중에서 내려오니 접인중생(接引衆生)하시는 제대보살들이 사자좌(獅子座)로 맞아 가시니라.



그림①. 일본 세이잔분고에 소장된 '안락국태자경변상도'의 모습. 조선시대인 1576년 왕실 발원으로 조성됐다. 임진왜란 당시 약탈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②. 동국대 경주박물관이 보관 중인 기림사 '삼세불도' 하단 부분. 조선시대인 1788년에 조성됐다.

'안락국 태자경 변상도'의 그림과 내용을 기록한 25개의 방제만을 보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월인석보〉 권 8의 '안락국태자전'의 마지막 부분에 "광유성인은 지금의 석가모니불이시고, 사라수대왕은 지금의 아미타불이시고, 원앙부인은 지금의 관세음보살이시고, 안락국은 지금의 대세지보살이시고, 승열바라문은 지금의 문수보살이시고, 여덟 궁녀는 지금의 팔대보살이시고, 오백 제자는 지금의 오백 나한이시다. 자현장자는 무간지옥에 들어가게 하였느니라"라는 기록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광유성인이셨을 때의 인연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도해한 또 다른 사례를 기림사 '삼세불도' 하단 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안락국 태자경변상도'처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화면의 왼쪽에서부터 범마라국, 죽림국, 서천국, 극락으로 가는 용선 등이 그려져 있다.

아직까지 '안락국 태자전'의 기원 혹은 〈월인석보〉에 실린 이유에 관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아미타삼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미타여래와 관세음보살 그리고 대세지보살의 전생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한 가족이 모진 고난과 비극을 견디고 마침내 극락왕생한다는 결말을 통해서 정토신앙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아마도 '안락국 태자전'은 정토신앙이 가장 유행한 고려시대에 성립돼 조선 전기 민간에까지 널리 전파됐을 것이며, 현재는 삼척 안정사의 땅설법을 통해서 그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강사〉



日사업가 탐욕 수집품 된 금동반가사유상

다시 돌아와야 할 성보들 ② 공주 출토 반가사유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030건.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오구라 컬렉션의 한국문화재 수량이다. 한 개인이 수집했던 물량으로서는 상당한 양이다.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70~1964)가 광복 후 한국을 떠나기 전 남겼던 문화재와 일본에 되팔았던 문화재를 모두 헤아리면 그가 수집한 한국 문화재는 지금의 2~3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주서 발견된 백제계 반가사유상

오구라 컬렉션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불상은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도쿄국립박물관 품번 TC-669)이다. 금동반가사유상은 전 세계에 약 70여 점 정도가 남아있는 희귀한 불상이다. 한국에는 20여 점이 남았고, 일본에는 현존 작품의 60% 이상인 40여 점이 있다.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은 높이 16.3cm의 작은 크기의 불상이지만, 조형미가 매우 사실적이며 빼어나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반가사유상은 표현이 세밀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은 균형감이 매우 뛰어나며 치밀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압권이다.

〈한일 금동반가사유상 과학적 조사 연구 보고〉에 따르면 반가사유상 본체의 청동성분은 모두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다. 조사 연구를 진행한 미타 가쿠유키(三田覚之)는 "납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고대 한국 금동불의 특징 중 하나"라며 "양식적으로 커다란 보관에 좌우 모양이 다른 요패를 한 점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공주 출토 반가사유상' 은 어떻게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왔을까. 도쿄국립박물관의 전시 설명에는 '한국 충남 공주의 사지 석탑 내에서 발견됐다고 전해진다(韓国忠清南道公州寺址石塔内発見伝)' 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이는 앞선 기록들과는 차이가 있다. 1941년 일본 고고학회가 펴낸 〈오구라 다케노스케의 소장품 전관목록〉에서 이 금동반가사유상은 "충청남도 공주 부근 산성의 탑 가운데에서 발견됐다"고 기록돼 있다.

소장자도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아니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발간한 〈오구라 컬렉션-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따르면 조선총독부가 한국문화재의 대표작들을 집대성해 편찬한 도록인 〈조선고적도보〉에도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경성공소원 판사 미야케 조사쿠(三宅長策, 1868~1969)의 소장품으로 기록됐다.

구마가야 도서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목록과 1960년 오구라 컬렉션 목록에도 미야케의 소장품으로 〈조선고적도보〉에 실려 있다는 기록과 함께 "미야케가 매수해 메이지 연간(1868~1912)에 일본에 들여 온 것"이라고 명시돼 반가사유상의 유통 경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준다. 오구라가 입수한 시기와 관련해서는 1941년 도쿄에서 열린 소장품 전시 목록에는 오구라의 컬렉션으로 실린 것으로 보아 그 이전일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오구라 컬렉션, 탐욕의 수집품

'오구라 컬렉션' 의 주인공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조선에서 도굴을 주도하거나 사주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경상북도의 상황을 보면 오구라가 도굴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대구 일대에서 오구라가 전기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을 당시인 1923년에 대규모 철도 토목 공사들이 진행되며 신라계 고분들이 발굴됐고 이 같은 고분들에 대한 도굴이 성행했다.

오구라 컬렉션 대표 불상 평가
공주 부근 절터 塔에서 발견돼
작은 크기에도 표현 기법 '우수'

공주시의회, 환수 위한 의정토론
새로 원 구성… 환수 '잠시 멈춤'
충남도, 실태조사단 활동 재개해
"교환 전시 등으로 여론 환기를"

1925년 4월 15일자 〈경성일보〉에는 "(고분)출토품은 내지인 고매자(故買者)에 의해 대구의 호사가에 판매되는 일도 있으며, 부정하게 밀굴이 금후 거듭 행해지고 있어 신라왕조의 문화를 연구할 자료가 산일된다"고 지적하는 기사가 실렸다.

당시 '대구의 호사가' 는 오구라를 비롯해 시라카미 주키치(白神壽吉), 이치다 지로(市田次郎) 등이며 이들은 경쟁적으로 조선의 문화재를 수집했다. 특히 오구라의 경우 도굴꾼 사이에서는 값을 높이 쳐주기로 유명해 도굴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골동품을 들고 찾아갔다고 전해진다.

역사학자 이홍직은 "오구라는 창녕 일원 삼국시대 고분의 도굴품을 사들여 도굴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급거 귀국하게 된 오구라는 그 와중에도 문화재들의 이전과 보존에 만전을 기했다. 1956년 오구라 컬렉션 보존회를 발족해 자신의 문화재를 관리했으며, 1964년 9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소장된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오구라 컬렉션 중 하나로 컬렉션을 대표하는 불상이다. 16.3cm의 작은 크기지만 사실적이고 세밀한 표현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오구라의 행적을 살펴봤을 때 공주 절터의 탑에서 도굴된 금동반가사유상이 여러 루트를 거쳐 오구라의 수집품이 됐음을 추정이 가능하다.

반가사유상 환수운동의 시작

오구라 컬렉션은 1965년 한일 문화재 반환 협상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 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개인 불법 수집품의 목록에 오구라 컬렉션의 소장품을 포함시켰고, 돌려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개인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양국 정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문화재를 한국에 기증하려 한다면 이를 권장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1981년 오구라 컬렉션은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됐고,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에 어떠한 의사타진도 하지 않았다. 사유 재산이라서 돌려줄 수 없다는 오구라 컬렉션은 일본 정부의 국유 재산이 됐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대표는 이를 두고 "외교 상 '금반언 원칙(禁反言 原則)' 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반언 원칙' 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모순된 선행 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상근 대표는 "외교 상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일본 정부 스스로 어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주에서 반출된 금동반가사유상은 1965년 한일협정 부속서 이행 촉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유 재산이 된 오구라 컬렉션에 대한 환수운동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2014년 당시 문화재제자리찾기가 도쿄재판부에 오구라 컬렉션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결렬됐다.

2019년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환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충남도와 공주시로, 두 곳 모두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환수가 목표이기도 하다. 공주시의 경우 지난해 2월 시의회를 중심으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등의 환수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윤용혁 공주향토문화연구회장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문화재 반환 문제는 현재의 소유권자가 전제돼 있어 당사자 상호간 합의 혹은 공감이 필요하다. 관련 자료에 대한 치밀한 학술적 검토와 객관적 접근이 우선이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 뿐 아니라 공적 기관 혹은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올해 6월 1일 열린 지방선거로 인해 시장과 일부 시의원들이 교체되면서 지속적인 환수사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주시의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2월 이뤄진 의정토론회 이후 별도로 진척된 사항은 없다"면서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나마 충남도는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등 지역 유출 오구라 컬렉션의 환수를 위한 조사 등 환수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6년 '충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을 가결하고 2017년에는 충남국외반출문화재실태조사단을 구성해 국내외 반출문화재를 조사 · 연구하기 시작했다. 3기 활동 중인 충남도국외반출문화재실태조사단(단장 이공휘)은 지난 6월 23~28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철화분청물고기무늬병, 고려와 조선의 문인석 등 100여 점의 문화유산을 조사하기도 했다.

이공휘 조사단장은 "문화재 환수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소장단체나 소장자와의 유대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하는 점이 있다. 현지 조사를 하면서 단체와 개인 소장자와의 교류 논의를 함께 진행한다"면서 "이번 조사에서도 소장 단체, 소장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반출 문화재 대여 전시에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 반출문화재 특별전시를 열어 일본 등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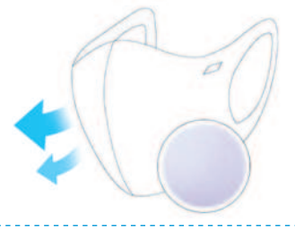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기존제품과 다른점
1.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
2.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음
3. 냉감(시원함 정도)이 우수하여 무더운 날씨에 적합

※ 색상별로 5개 1셋트 27,500원 (개당 5,500원) / 배송비별도
※ **색상별로100개 주문시 350,000원 (개당 3,500원)**
※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주문제작상품으로 5~7일정도 소요됩니다.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일체지가 마하대법왕이다

〈一切智〉 〈摩訶大法王〉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㉘ 삼지설(三智說)

"이 몸의 여러 근(根)에 대하여서는 분별을 내어 생각하되, 지금 있는 법이 망가지는 것만 보고,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보지 못하므로 단견을 내나니,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탓이며, 마음이 서로 계속하는 데 대하여서는 캄캄하여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고, 잠깐 사이에 의식(意識)의 경계를 알지 못하므로 상견을 내는 것이니,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탓입니다.

이렇게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것이 저 참뜻에는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여 잘못된 생각으로 분별하되 단(斷)이라 하거나 상(常)이라 합니다.

뒤바뀐 중생들은 5수음에 대하여 항상함이 없는 것을 항상하다고 생각하며,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며,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며, 부정(不淨)한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체 아라한·벽지불들의 청정한 지혜를 가진 이도 일체지(一切智)의 경계와 여래의 법신에 대하여는 본래부터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를 세 가지로 말하는 삼지설(三智說)이 있다. 이 삼지설은 경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일체지(一切智)와 도종지(道種智)와 일체종지(一切種智) 세 가지를 말한다. 사람에 따라 눈의 시력 차이가 있는 것처럼 수행의 정도에 따라 지혜 도수(度數)가 다르다는 것이다. 일체지는 일체법의 총상(總相)을 아는 지혜로 그림을 그릴 때 전체의 구도를 잡는 것과 같은 지혜를 말한다. 번뇌가 현저히 줄어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공(空)하다는 것이 실감된다고 한다. 이런 경지의 지혜는 성문과 연각 곧 이승(二乘)들의 지혜라고 한다. 도종지는 일체법의 개별적인 도법을 아는 지혜로 보살이 중생을 교화할 때 쓰는 지혜라 한다.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도의 종류와 그 차이를 두루 아는 지혜로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여 얻는 지혜라고 하기도 한다. 일체종지는 총상(總相)과 별상(別相)을 다 같이 통달한 부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런데 때로는 일체지를 일체종지로 같이 써서 부처님 지혜를 말하기도 한다.

사찰에서 새벽예불 시 행선축원(行禪祝願)에 '구경원성살바야(究竟願成薩婆若)'라는 송구가 있다. "구경에 살바야를 이루기 원하옵니다"라는 말인데 이 살바야(薩婆若)라는 말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아는 부처님의 지혜를 뜻하는 말이다. 범어 어원은 사르바즈나(sarvajna)인데 번역하면 일체지 혹은 일체종지이다. 불교는 진리에 대한 무지를 고통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혜가 강조된다.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등장한 경전이 반야부 경전이다. 반야(般若)라는 말이 경전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반야의 지혜를 내세운 것이 대승불교의 출발점이 되었다. 대승의 이상적인 수행자상으로 등장한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닦는 수행자이다. 물론 육바라밀 전체를 아울러서 보살의 수행 덕목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야바라밀을 닦는 이를 대승의 수행자로 보았다. 반야바라밀이 육바라밀의 마지막에 나오는 바라밀이지만 반야바라밀이 보시나 지계, 인욕, 정진, 선정바라밀을 떠받치고 있는 바라밀이다. 선종의 선수행에도 '반야바라밀다'라는 말이 자주 쓰였다. 〈육조단경〉에 설해진 혜능대사의 법문을 혜능 자신이 직접 반야바라밀다 법문이라고 밝힌 말도 있다. 그래서 대승의 수행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마하를 붙여 마하반야바라밀이라 하기에 이르렀고 부처님을 '마하대법왕'이라 하였다. 이른바 부처를 심왕(心王)으로 보고 한 말이다. 이런 4구송도 있다.

마하대법왕(摩訶大法王) 마하대법왕은

무단역무장(無短亦無長)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네

본래비조백(本來非皂白) 본래 검거나 희지도 않으면서

수처현청황(隨處現靑黃) 곳을 따라 푸르고 노란 색을 나타내도다

〈승만경〉의 내용을 여래장사상이라고 요약해 말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마하반야바라밀법이다. 모든 부처님의 법문이 지혜를 종(宗)으로 하는 반야법문이기 때문이다. 반야가 바로 깨달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최고의 지혜이고, 도(道) 그 자체요, 부처 그 자체다. "어떤 이치도 아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도 없는 것을 반야라 한다"고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사종염불, 진여본성 깨닫는 수행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㊶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첫 번째 칭명염불(稱名念佛)은 〈문수반야경〉에 의거한 염불 수행입니다. 〈문수반야경〉에서 이르기를 "일행삼매(一行三昧)가 있는데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삼매를 닦는 사람이 속히 부처님의 보리를 얻어 삼매에 들어가고자 하면 마땅히 한가하고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모든 어지러운 생각을 버려야 하고, 어떠한 상황을 취하지 말고 마음을 한 부처님께 집중하여 오로지 명자(名字)를 부르며,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 바로 향하고, 능히 한 부처님을 염념(念念)에 상속하면 곧 염 가운데 능히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한 부처님의 공덕이 무량무변한 것이 일체 부처님의 공덕과 둘이 아님을 염하라.

이와 같이 다하여 항하사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법계가 차별상이 없는 것을 알면 아난과 같은 총지다문(摠持多聞)의 변재(辯才)도 백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설한 것에 근거한 염불수행법입니다.

두 번째 관상염불(觀像念佛)은 〈대보적경〉에 의거한 염불방법으로, 부처님을 흙으로 만들었거나 그림으로 그린 부처님의 형상을 관하는 것입니다.

〈대보적경〉에서 설하기를 "부처님의 인행시(因行時) 가운데 대정진보살로 있었을 때 비구가 그린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 발심하고 출가하여 모직물에 그린 불상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 관찰하였다. 이 그린 불상을 관찰하여 여래와 다르지 않게 하여 다섯 가지 신통을 성취하였고, 보광삼매(普光三昧)를 얻어 시방의 부처님을 친견하였다."라는 가르침에 근거한 염불 방법입니다.

세 번째 관상염불(觀相念佛)은 부처님의 80종호의 공덕상을 염하는 수행법입니다.

관상염불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하나는 부처님의 80종호 중 한 가지 상(一相)을 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처님의 전신을 관하는 수행법입니다.

네 번째 실상염불(實相觀念佛)은 법신염불(法身念佛)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수행법은 자신이나 일체법의 진실한 자성을 관하는 수행입니다.

〈문수반야경〉에서 설하기를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不生不滅),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不來不去), 이름도 아니고 상도 아닌(非名非相), 이것을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스스로 몸의 실상을 관하는 것과 같이 부처를 관하는 것도 또한 이렇다."라는 가르침에 의거하여 실상염불이 탄생하였습니다.

불자 여러분! 앞에서 열거한 종밀 스님의 사종염불(四種念佛)은 근기에 따라 점차(漸次)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얕은 수행[淺行]에서 염불수행을 시작하여 점차(漸次)로 익혀 깊은 수행인 심행(深行)에 이르고, 최후에는 실상염불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밀 스님은 '칭명염불(稱名念佛)', '관상염불(觀像念佛)', '관상염불(觀相念佛)' 등을 얕은 수행으로 보고, '실상염불(實相念佛)'을 관하는 것을 깊은 심행(深行)의 염불수행이라고 판단하여 이 실상염불을 가장 묘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종염불 수행은 극락왕생을 바라는 염불수행이 아니라 일행삼매나 깨달음에 목적을 둔 수행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밀 스님이 주장하는 사종염불은 한마디로 진여본성을 깨닫기 위한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㉘ 새김의 토대에 대한 경 2

물질은 누구의 것이 될 수 없다

"'물질은 이와 같고 물질의 생성은 이와 같고 물질의 소멸은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안다.

'느낌은 이와 같고 느낌의 생성은 이와 같고 느낌의 소멸은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안다.

'지각은 이와 같고 지각의 생성은 이와 같고 지각의 소멸은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안다.

'형성은 이와 같고 형성의 생성은 이와 같고 형성의 소멸은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안다.

'의식은 이와 같고 의식의 생성은 이와 같고 의식의 소멸은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몸으로 괴로움을 겪는다. 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몸이 겪는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고통은 다를 것이라 예측하겠지만 사실 똑같은 괴로움을 겪는다. 부처님은 이것을 여덟 가지 고통이라 말씀하셨다. 이 여덟 가지 고통은 탐욕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다. 물질인 몸은 태어나면서 저마다 다른 조건을 가진다. 각기 다르게 주어진 조건을 '탐욕이 많다' 혹은 '탐욕이 적다' 라고 말 할 수 없다. 평생 열심히 일하여 재물을 모은 사람을 탐욕스럽다고 할 수 없고, 일을 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재물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탐욕이 많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바르게 보면 탐욕은 물질에 대한 아상(我相)에서 생긴다. 아상의 개념으로 나의 것이 생겨 물질에 대한 애착이 생겨나고, 갈애함으로써 탐욕이 일어나는 것이지, 물질의 양과 탐욕은 상관없다.

물질은 누구의 것이 될 수 없는데,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고통이 동반된다. 생(生), 노(老), 병(病), 사(死),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 이 여덟 가지 괴로움도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 라고 하여 고통이 일어난 것이지, 그 여덟 가지가 괴로움은 아니다. 괴로움을 벗어난다고 생각하겠지만, 괴로움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괴로움을 벗어난 사람을 찾는다면, 아마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다. 벗어난다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이 개념에 갇혀 있게 되면 벗어날 수 없으니, 벗어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살피어 봄의 시작이 '물질은 이와 같고' 이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다. 물질을 분별할 수는 없다. 분별심이 생기는 것은 '나' 라는 개념 때문이지만, 그 개념에도 옳고 그름은 없다. 바르게 보는 법을 듣지 못하였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지금 물질을 바르게 보는 법을 일러 주고 계신다. 물질을 분석한다고 물질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질의 본질은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이름 붙이고 나의 것이라 명명한다고,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지 못함을 알아야 '물질은 나다' 라는 혼돈에 빠지지 않는다. 무엇이 '이와 같다' 는 것에는 진실도 거짓도 없이 빠르게 흐르는 허상만이 존재할 뿐이다. '물질은 이와 같고' 는 소유의 대상이 아님을 말한다.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물질이 고통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나머지 느낌, 지각, 형성, 의식도 고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오온은 지어온 그대로 있다. 지어옴의 많고 적음 없이 물질은 '이와 같고' 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면, 지어옴의 좋고 나쁨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만사에 무게가 없다.

물질의 본질은 변함없었는데, 변하는 내 마음 보지 못하고
탓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내 마음대로 고정하려고 했네.
'이와 같다' 여기에 더 이상 무엇으로 평을 하겠는가!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머물 곳 없는데
물질이 '이와 같다' 이면 또한 보는 마음도 '이와 같다' 일 것이니
다시 분석하여 알아낼 것이 어디 있겠는가!

〈(사)여시아문 선원장〉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97호 | 17 | 전면광고

모든 쌓임[蘊]과 덮힘[蓋]이 원수가 되지 않게 하며
모든 여섯 감관에 괴로움이 없게 하며 온갖 세간을
괴로움이 아닌 것으로 되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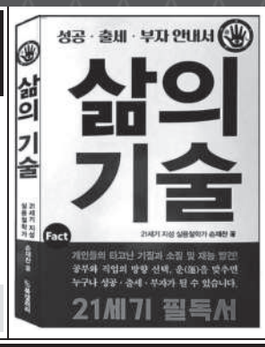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대한불교조계종 스님 모십니다

수행하시면서 오래 상주하실 스님.
세납40~50대. 현재 조계종 승적으로 사미승. 비구승. 대화 후 (금전조건없이)인계 할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22교구말사 억불사(사설)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구황길 57-12

무각합장 010-4585-5580



추천 - 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010-8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70세 이하, 숙식 제공
외국인 환영
강원도 춘천 인근
010-5049-15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부산시 강서구
보시는 상담후 결정
010-3570-0144

절에서 숙식하실 처사님 구함
절에서 공부하고 심부름, 청소할 행자 구함
부산 만덕사
010-3840-4355

입멸후 2,566년만에 처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놀라운 유훈을 완전히 공개한다!!

※ 신간 ※
『대반열반경의 비밀한 뜻을 밝힌다』
010-3514-7084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대구사무실 서울잠실사무실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특수한 기도법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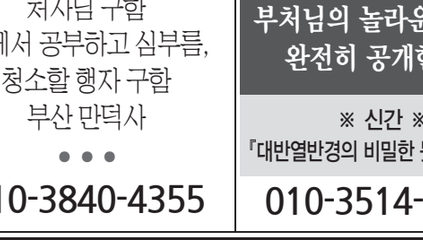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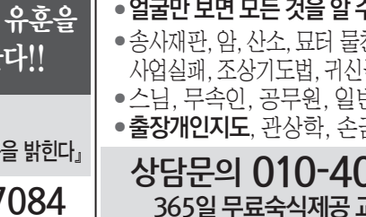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97호 | 18 | 전면광고

병든 사람을 문안하는 것은 나(부처님)를 문안하는 것이요,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은 나를 간호하는 사람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일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3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가격협의
◎ 위치 : 인천
◎ 부지 : 700평
◎ 건평 : 약100평
◎ 주차,공원
◎ 매가 : 11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대구 아파트 상가 포교원 매매입니다.
- 건물 총면적 : 201㎡(61평)
- 가액 : 1억 5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노스님 몸아픈 관계로)
-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급매(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쌍정길99-8 불국정사
- 대지 : 206평, 건물 : 전통사찰형태2층콘크리트건물, 1층:방4,주방,욕실(40평) 2층:법당(30평), 산신각(5평) 정원:5층석탑,스님 건강상급매
- 가액 : 3억5천

010-2611-65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연초면
- 대지136평
- 법당3채, 요사채1동, 화장실2, 정원처럼 잔디밭 조성
- 가액 : 3억 (절충가능)

010-4509-4061

절터로 좋은땅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 정남향에 위치, 630평
- 가액 : 평당 1백 20만원

010-9093-8324
010-9052-5736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로 166(보문산 입구 5거리) ● 2층 43평, 시설금 6백만, 보증금 3백만 (합 9백만), 월세 40만 ● 법당, 요사채(2), 공양간 ● 시설완비(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전반시설및증설, 판넬설치완비, 도배, 장판, 음향시설) ● 5년전 인수금보다 6백만 절상(건강문제로 급매한것임)

보문산 지장사 무진 합장

010-3049-581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남이면
- 대지 : 951평 (종교부지) 300평(법당뒤 임야)
- 건물 : 법당22평, 요사38평, 지장전40평(2/2층) 창고40평(1/2층, 임대중)
- 신도다수, 시내근접
- 가액 : 13억 (절충가능)

010-3420-9749

임법당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 326평, 현대식 주택건물, 본채 40평, 별채40평, 큰창고 2개, 방5, 욕실3, 화장실4, 산신각, 지장전
- 가액 : 4억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08-03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창원시 마산 어시장 상가 3층 정오사
- 법당50평,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영가단
- 4층 스님방1칸, 에어컨2대, 난방기1대, 냉장고2대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010-6554-3784

도심속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신석로 111번길 3-1
- 건물 : 2층 법당 30평, 1층 요사채 30평, 지하 20평
- 건강상 문제로 급매

010-9286-1008

토굴·별장 주택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군 회천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자리, 상담하시는 분이면 최고의 자리
- 대지 253평, 건물 두채, 건물1 요사체 경량철골구조(벽돌마감) 연면적 30평, 방4개, 거실, 주방, 해우소2개, 건물2 경량철골구조, 법당 20평, 방2개, 해우소
- 가액 : 3억

010-4866-80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 90평
- 건물 : 아래층 34평 2층 법당 24평
- 조용한 주택가, 주위 모든것이 편리함(은행, 병원, 마트 등)
- 가액 : 7억(절충 가능함)

010-2458-6655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314쪽 | 12,6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

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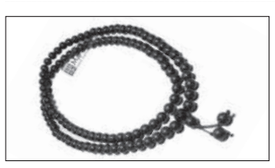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⑭ 전북 고창 선운사 배롱나무

동백도 배롱나무 꽃도 비로자나불서 하나 되네

선운사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시인 혹은 가수가 된다. 백제의 고승 검단 스님이 "오묘한 지혜의 경계인 구름[雲]에 머무르면서 갈고 닦아 선정[禪]의 경지를 얻는다" 하여 '선운(禪雲)'이라 지었다는데, '선'에는 고운 마음으로 착하게 베풀며 수행하다 보면 고요한 상태에 이르러 온전히 삶을 성찰할 수 있어서일까? 그래서 아름다운 절창들이, 파가지 못하는 애절한 그리움들이 널리 회자되는 것일까?

하지만 아는 이들은 알고 있다. "선운사 골째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안했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었습디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었읍디다"라는 서정주의 시와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 바람 불어 설운 날에 말이예요 /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 눈물처림 후두둑지는 꽃말이예요..."라는 송창식의 노래에 등장하는 동백꽃이 배경이자 주인공이 되어 감정을 압도했다는 걸. 그래서일까, 선운사로 향하는 도로에서 본 배롱나무 꽃이 천왕문을 지나자마자 경내 전체에 안정감을 주는 배롱나무에서 붉은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아도 쓸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저절로 자작시가 읊어진다. "동백꽃 진 선운사 보러 갔더니/ 일주문 밖에서 피고 있는 배롱나무 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안했고/ 그래도 작년 그 어디선가 본 열정이 뜨겁게 얹혀집니다."

초라하다. 시가 시답지 않게 쓰여졌다. 그래서 소원나무 이름을 달고 있는 감나무에 다가가 '시 좀 잘 쓰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지를 달까 하다가, 폭염이더라도 선운사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게 시를 잘 쓰는 비결일 것 같아 천천히 흙바닥과 돌바닥에 발자국을 찍는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 대웅보전을 가려는데 지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목탁 소리 울려 나오는 명부전을 지나 팔상전, 산신각 그리고 꽃 대신 반짝반짝 잎이 빛나는 동백나무 군락지를 올려다본다. 창건 당시 화재 예방 차원에서 조성했다는, 500여 년 되었다는 동백나무들, 역시 꽃이 피어 있어야 폭포수 같은 분수가 될 듯하다.

그래서 칸막이 가득한 대웅보전 뒤란으로 가 그 느낌을 크게 가져볼까 하다가, 금동지장보살좌상이 봉안된 지장보궁에서 비밀 소원 하나 빈 뒤 만세루에 다가선다.



선운사 만세루 앞의 배롱나무.

만세루는 우리나라 누각 중에서 가장 큰 정면 9칸, 옆면 2칸 규모다. 보통 사찰의 루(樓)는 2층 모정 형식으로 낮게 지어져 있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서 예를 갖추어야 하는데, 선운사는 평지라 굳이 2층을 만들 필요가 없어 단층으로 지었단다. 만세루는 보물 2065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정유재란 이후 화재로 소실된 대양루를 영조 28년(1752년)에 다시 지으면서, 올곧지 않은 나무를 버리지 않고 조각보를 잇듯이 정교하게 짜맞춰 완성하였단다. 베어진 나무를 쓰지 않으면, 오랫동안 풍파 그리고 곤충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흙이 되었을 텐데, 굽은 듯 뒤틀린 듯 하늘을 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호승 시인이 나무에 대하여 노래한 "나는 곧은 나무보다 굽은 나무가 더 아름답다"라는 구절이 생각난다. 그래서 감나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듯한 배롱나무를 다시 보면서 시적 상상을 준비한다.

중국 원산으로 부처꽃과에 속하는 배롱나무는 7월에 꽃이 피기 시작해 가을까지 약 100일 동안 아름다운 자태를 이어간다고 해서 백일홍 혹은 목백일홍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초본 백일홍과 구분하기 위해 백일홍나무라고 했다가 배롱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배롱나무는 나무껍질이 얇은 데다가 자라면 자랄수록 자꾸 벗겨져 매끄럽다. 이 모습이 피부 같아서 만지면 간지럼을 탈 것 같다고 해서 간지럼나무로도 불리고 있는데, 중국 이름은 자미화(紫薇花)로 본래 배롱나무 꽃은 자줏빛을 띤다. 지금은 계속 개량을 해서 흰 꽃을 피우는 흰 배롱나무도 있고, 분홍색 배롱나무도 조경수로 많이 심고 있다.

사찰이나 서원에 배롱나무를 많이 심는데, 더운 여름 수행도 공부도 게을러지기 십상인 날들, 태양보다 더 폭발할 듯 쉬지 않고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정진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배롱나무는 무궁화처럼 한 꽃이 100일 동안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 피고 지고 하루 피고 지고를 반복한다. 즉, 화무십일홍 (花無十日紅)의 자연법칙에서 화끈하게 비켜간 아름다운 나무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의 사육신 성삼문이 남긴 "어제 저녁에 꽃 하나가 지더니 / 오늘 아침에 꽃 하나가 피었네 / 서로 백 일을 바라볼 수 있으니 / 너를 상대로 술 마시기 좋아라"라는 시에서 일편단심(一片丹心)을 유추하고, 붉을 단(丹)에서 붉은 꽃을 감정이입해 선비 정신을 만들어낸다. 아울러 얇은 수피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수피를 자꾸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며, 매일매일 쌓이는 번뇌도 씻어본다. 그러다가 겉과 속이 같다는 걸 보면서 겨울의 동백꽃, 여름의 배롱나무 꽃, 다 대웅보전 비로자나불에서 하나가 된다는 생각에 이르면, 선운사 동백꽃에 배롱나무가 담겨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넓은 마당 붉게 꽉 채우는 배롱나무에 시 한 편 남기리라. 언젠가.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⑬ 송재학의 '공중'

공즉시색, 색즉시공의 세상

〈空卽是色〉 〈色卽是空〉

공중 / 송재학

허공이라 생각했다 색이 없다고 믿었다 빈 곳에서 온 곤줄박이 한 마리 창가에 와서 앉았다 할딱거리고 있다 비 젖어 바들바들 떨고 있다 내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허공이라 가끔 연약하구나 회색 깃털과 더불어 뒷목과 배는 갈색이다 검은 부리와 흰 뺨의 영혼이다 공중에서 묻혀온, 공중이 묻혀준 색깔이라 생각했다 깃털의 문양이 보호색이니까 그건 허공의 입김이라 생각했다 박샛과 곤줄박이는 갈필을 따라 날아다니다가 내 창가에서 허공의 날숨을 내고 있다 허공의 색을 찾아보려면 새의 숫자를 셈하면 되겠다 허공은 아마도 추상파의 쥐수염 붓을 가졌을 것이다 일물무렵 평사낙안의 발묵이 번진다 짐작하자면 공중의 소리 일가(一家)들은 모든 새의 울음에 나누어 서식하고 있을 것이다 공중이 텅 비어 보이는 것도 색 일가들이 모든 새의 깃털로 바빴기 때문이다 희고 바래긴 했지만 낮달도 선염법(渲染法)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공중이 비워지면서 허공을 실천 중이라면, 허공에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다 바람결 따라 허공 한 줌 움켜쥐자 내 손바닥을 칠갑하는 색깔들, 오늘 공중의 안감을 보고 만졌다 공중의 문명이라 곤줄박이의 개체 수이다 새점(占)을 배워야겠다

—송재학 시집, 《검은색》, 문학과지성사, 2015—

퍽, 깊은 시다. 불교시라 하기엔 언뜻 잡히는 것도 없다. 하지만, 공즉시색(空卽是色), 색즉시공(色卽是空)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있는 이라면 이처럼 황홀하고 아름다운 시도 만나기 힘들 터다. 그럼 어느 대목이 공즉시색이고, 색즉시공인가. 우선 독자들께서 공즉시색과 색즉시공의 진리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정독하길 바란다. 눈치 깊은 독자들은 시 속의 '선염법' (渲染法: 동양화에서, 화면에 물을 칠하여 마르기 전에 붓을 대어 몽롱하고 침중한 묘미를 나타내는 기법)처럼 서서히 그 이미지가 잡혀올 것이다.

그럼, 우리 같이, 직접, 그 선염법에 젖어보자. 우선 시의 첫 부분이다. "허공이라 생각했다 색이 없다고 믿었다". 캬, 정말 멋지다. 송재학 시인은 능청스럽게도,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허공이라 생각했다 색이 없다고 믿었다"고 공즉(空卽)을 풀고 있다. 그리고 곧바로 "빈 곳에서 온 곤줄박이 한 마리 창가에 와서 앉았다 할딱거리고 있다"고 시색(是色)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내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허공이라 가끔 연약하"다고 공즉시색을 완성하고 있다. 우리 독자들의 눈이 시 속의 ' 발묵(潑墨) '처럼 여기까지 번졌다면, 이젠 이 시 읽기가 정말 황홀하고 즐거울 것이다.

"박새는 갈필을 따라 날아다니다가 내 창가에서 허공의 날숨을 내고 있다 허공의 색을 찾아보려면 새의 숫자를 셈하면 되겠다". 하, "허공의 색을 찾아보려면 새의 숫자를 셈하면 되겠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색즉시공인가. "공중이 텅 비어 보이는 것도 색 일가들이 모든 새의 깃털로 바빴기 때문이다"니, 이 얼마나 황홀하고 기막힌 공즉시색과 색즉시공의 해석과 분석인가. 한술 더 떠 송재학 시인은 "공중이 비워지면서 허공을 실천중이라면, 허공에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다 바람결 따라 허공 한 줌 움켜쥐자 내 손바닥을 칠갑하는 색깔들, 오늘 공중의 안감을 보고 만졌다"라고 공(空) 속의 색(色)의 '안감'을 직접 만져보고 색 속의 공을 직접 쥐어보았다. 이만하면 도통 중에서도 도통이다.

이 시를 처음 접하는 순간 필자는 온몸을 바르르 떨었다. 필자는 언제쯤 이런 시를 써보나 하는, 주눅마저 들었다. 송재학 시인은 시 속에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언의의 빛을 따라가면 불교가 있고 붓다가 있고 절이 있고 우주가 있고 삶의 생로병사가 있고 하느님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사는 온갖 사랑과 상처와 고통과 멋의 풍경이 있다.

실제로 송재학 시인이 2006년 펴낸 〈풍경의 비밀〉(랜덤하우스)을 보면 그 〈발톱〉이 보인다. 필자는 그 〈발톱〉에서 '한국의 카프카'를 보았다. 낮에는 치과의사라는 지상의 본업으로 살고 저녁에는 지하실에 마련한 내간채(內間寨)라는 작업실에서 시 쓰기를 본업으로 지하생활자로 사는 한국의 카프카. 그는 그 지하실에서 "현생(現生)에서 전생(前生)을 감각하고 그 전생을 후생(後生)으로 더듬어가"고 있다. 남도 미황사와 대둔사 그리고 무위사를 돌면서 "미황사 주춧돌은 발톱을 가진 생물"이라 읽은 뒤 "발톱을 자주 깎지 않는 건 게으른 시인과 다름없다. 발가락에 꼬물거리는 건 때 많은 발톱이지만 절집의 긴 발톱은 연꽃이나 게의 모습으로 게으름을 피우다가 훅! 불면 사라지다가 금방 한 뼘씩 자라는 능청마저 가졌다"면서 "남해의 리아스식 해변이 모차르트의 희유곡(嬉遊曲)이라는 것은 다른 시인의 말이기도 하지만, 달마산의 스카이라인을 꼭짓점으로 세우고, 대웅전 주춧돌의 발톱과 부도탑을 밑변으로 연결하면 아름다운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진다"고 했던, 그 〈발톱〉, 그 때 낀 〈발톱〉 하나를 더 보자.

"벵골 보리수가 친친 감은 탑은 사면불이다 부처와 나찰이 교대로 나타나는 얼굴, 이런 얼굴은 대체로 무색무념이거나 또 그림자도 없다 오후의 햇빛은 사면불에서 광대뼈와 그림자를 지우고 윤곽만 강조한다 그래도 나뭇잎의 넓은 평화가 깃든 것은 누구나 나찰과 부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에게 나찰의 얼굴이 필요한 것도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다 햇빛의 감전이 만드는 캄캄한 얼굴들, 역광이 세우고 일몰이 비친 얼굴 속에 내 얼굴이 있다 귀면상의 눈동자가 경험하는 것들을 나도 내 눈동자 속에서 헤아렸다 내가 찾는 사람과 닮은 사면불을 오래 친견했다"

같은 시집에 실린 〈사면불〉이라는 시다. 정말 카프카처럼 현생과 전생과 후생을 오가고 더듬고 감각하는, 그리하여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더니 커다란 갑충으로 변해 있는 '그레고르 잠자' (카프카의 〈변신〉의 주인공)처럼 송재학 시인은 부처에서 나찰을 보고 나찰에서 부처를 보며 그 나찰의 귀면상(鬼面像)이 자신이 찾는 사람과 같은(실은 자신이) 사면불(그레고르 잠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19년간 공장일 전전하다
뇌출혈로 죽음 문턱

미얀마 출신 양묘나잉씨 가족 부양 위해 한국행 택해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병원비 4000만원 '막막'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⑦ 마음과 온전한 발성



▶한줄요약
자기 신체에 대한 관찰을 요하는 마음챙김, 좋은 목소리 내는데도 도움이 된다.

마음챙김, 좋은 목소리로 이어진다

조금 재미있는 주제를 나누고자 한다. 마음챙김과 발성에 관한 내용이다. '좋은 발성' 은 듣는 이로 하여금 '좋은 목소리' 로도 인식되며, 무의식적으로는 '좋은 사람' 으로까지 받아들여진다. 물론 선입견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과 '목소리' 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외모만큼이나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인지하는 요소로 '목소리' 가 크게 작용한다. 이와 같이 목소리가 주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언급할 때 꼭 회자가 되는 법칙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메라비언 법칙' . 메라비언 법칙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인상과 호감을 결정하는 요소 중 외모, 옷차림, 제스처 같은 시각적 요소가 55%의 영향을 주고, 청각 요소인 목소리가 38%의 영향을 준다고 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작 7%의 영향만을 상대방에게 전해 준다는 점도 놀랍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단일 조건으로 말하는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만큼 목소리가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에는 원래 제 목소리에 콤플렉스가 많았다. 노래도 잘 못할뿐더러 목소리가 선명하지 못하고 말을 할 때 웅얼웅얼거린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다. 그래서 외부 강의나 컨설팅 보고를 할 때면 일부러 크고 강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 좋은 목소리와 노래를 잘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특별히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초에 필자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바디사운드' 라는 책을 발성전문가인 이윤석 원장과 함께 출판을 했다. 부제목은 '목소리로 온전한 삶을 찾는 여정 '마인드풀 바디사운드 '이다. 발성에는 말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발성에 문외한인 필자가 이렇게 공동으로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명상에 대한 경험 때문이었다.

2017년 필자는 직접 녹음을 해야만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20여 년간 국내외 주요 컨설팅 기업에서 HR컨설팅 프렉티스 리더로 근무하면서, 개인의 삶은 물론 기업 경영에 명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명상 전문 컨설팅 기업인 무진어소시에이츠(주)를 2016년에 설립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명상 교육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명상앱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당시 앱에 들어갈 콘텐츠 제작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명상 체험과 공부를 통한 확신 그리고 마음챙김 기반의 다양한 명상과학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경험했었기 때문이다. 특히 명상앱 제작을 위해 유명 해외 앱들을 많이 벤치마킹했는데, 그때 콘텐츠를 충분히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도 생겼다. 문제는 녹음이었다. 처음에는 성우 녹음을 검토했다. 그런데 명상 콘텐츠는 명상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직접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대부분의 해외 명상앱들의 경우 명상 지도자가 직접 내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성우가 녹음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별로 연결감을 느끼지는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가 개발한 하루명상앱은 필자를 포함해서 모든 명상 지도자분들이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필자도 녹음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녹음해야 할 분량도 꽤 많았었는데, 막상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서 제 목소리를 들어보니 목소리 톤이나 억양 등이 너무 어색해서 발성 훈련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러 발성 교육기관을 찾아보다가 바디사운드 이윤석 원장을 만나게 되었다. 이원장을 만나게 된 시기가 녹음하기 한 달 전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촉박한 일정도 이유이기는 했지만 한 번 발성 훈련을 받아 실패한 경험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없었다. 이 원장은 처음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발성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음으로 노래를 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데, 명상 안내(Guided Meditation)를 위한 녹음이라고 하니 당연히 생소했던 것이다. 더욱이 한 달 이후 녹음 일정이라고 하니 약간 황당한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노래가 아닌 내레이션 형태의 발성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가르쳐준 아주 간단한 방법을 매일 충실히 연습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부였다. 첫 번째 발성 훈련에서 느낀점은 기존에 배웠던 발성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하면서 나 자신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방식이었다. 절실한 마음으로 매일 연습한 결과 두 번째 수업부터 '아 나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한 달간의 발성 훈련 후 1차 녹음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필자가 생각해도 놀라운 경험이었다. '신심(信心)' 과 '분심' (忿心)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발성법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발성 훈련을 받으면서 경험한 것은 다음 3가지 발견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모두 명상 또는 마음챙김적 태도들이다.

마음과 목소리 하나로 연결
호감의 38%가 청각에 기인
마음공부하며 목소리 수행도

첫 번째 발견은 발성기관들의 조화로움에서 나오는 나만의 목소리에 대한 믿음이다.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했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내는 것이다. 남들이 환호하는 베스트가 아닌 자신만의 '온리 원' 을 찾는 것이었다. 즉 '온전성' 의 발견이었다. 태어났을 때 누구나 간직하고 있었던 자신만의 목소리가 있지만 어떤 제약 때문에 그 목소리를 찾지 못한다. 그런데 장애 요인은 의외로 단순하다. 대부분 무리한 욕심이나 걱정 때문이다. '내 목소리는 별로야. 조금 더 이쁜 목소리로 내야지' , '더 높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야 멋져' ,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것 같아' , '소리가 제대로 안 나면 어쩌지' 등과 같은 마음이 정서적 장애물로 작용해서 온전한 목소리가 나오는 길목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그랬었다. '내 목소리는 원래 좋지 않아. 가망이 없어' , '내 목소리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등과 같이 자기 목소리에 대한 낮은 자신감과 비난하는 태도는 결국 스스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길로 간다. 목소리에 좋고 나쁨은 없다. 자신의 목소리를 장애물 없이 온전히 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이다.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성악가, 대중 가수, 성우, 배우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손가락의 지문과 같이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발성 훈련을 통해 자기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순수한 자각 또는 알아차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전한 목소리' 는 '본래성불' 과 같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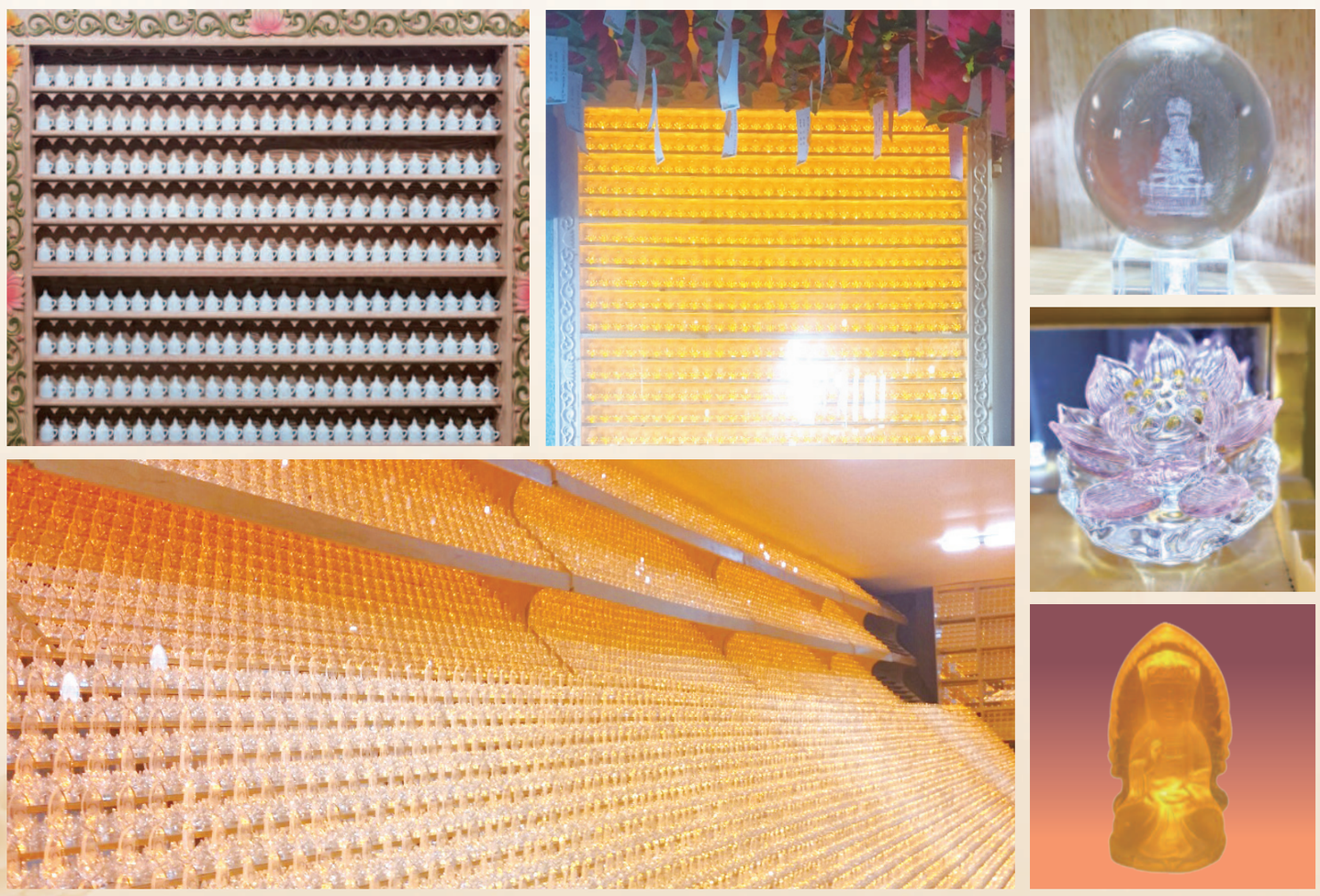
두 번째 발견은 자신만의 온전한 목소리는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야 찾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좋은 목소리 나쁜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따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진짜 목소리는 밖이 아닌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자신의 발성기관 하나하나를 친절하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이후 저는 다른 사람들 목소리와 비교하지 않는 '비판단적 태도' 를 갖게 되었다. 목소리가 좋다 싫다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발견하려는 의도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긁지 않은 당첨 복권처럼 최고의 목소리가 자신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조급해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믿고 바른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구름에 가린 태양이 때가 되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지만, 그 태양을 보기 위해서는 적당한 인내심도 필요한 것이다. 올바른 발성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애쓰면서 억지로 만들어 내려는 노력(doing)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존재(being)로서의 목소리를 경험하는 것이 중하다. 이를 위해서는 발성 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주의력이 필요하다. 발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현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으면 온전한 발성으로 가는 길이 훨씬 쉬워진다. 음정과 가사를 포함하여 발성할 때에도 혀와 목, 턱의 이완,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처럼 신체 근육의 움직임 등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두어 알아차리게 되면 이전보다 명료하고 안정적으로 발성법을 체득해 나갈 수 있다. 온전한 발성법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이를 알아차리고 다시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려는 의도적인 노력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챙김과 함께 할 때 자신만의 온전성이 빛날 것입니다.

세 번째 발견은 발성 연습이 너무도 쉽다는 것이었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성대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명료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도 외부 강의나 미팅을 하기 전에 1분 정도 발성 연습을 하고 나면 1~2시간 정도는 그 효과가 유지될 정도로 잘 활용하고 있다. 눈앞에 큰 촛불이 있다고 상상해 보라. 이 촛불을 여러분은 단 한 번에 꺼야 합니다. 그럼 숨을 깊이 들이쉬고 힘차게 후~ 하고 5초간 불어본다. 이때 여러분 복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라. 복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나요? 관찰이 끝났다면 한 가지 물어보겠다. 혹시 호흡을 불 때 복부에 힘을 의도적으로 주었나? 아니면 저절로 따라온 걸까? 몇 번이건 반복하면서 몸을 잘 살펴보라. 어떤가? 복부의 긴장이 자연히 따라왔다는 걸 알게 된다? 여기 발성에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담겨 있다. 온전한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 만들어 지는 것이라는 것을. 핵심 원리만 배우면 세수할 때 코를 만지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발성 연습을 할 수 있다. 명상처럼 초심을 가지고 꾸준한 연습이 중요하다. 자신의 온전성을 믿고 조급함과 욕심을 버리면 더 쉬워진다.

"꽃들은 자기 자신과 남들을 비교하지 않는다. 매화는 매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진달래는 진달래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저마다 최선을 다해 피어날 뿐 어느 꽃과도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는 시샘과 열정을 낳는다. 비교하지 않고 자신답게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그는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다. 나만의 온전한 목소리는 곧 나만의 꽃이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꽃이다. 여러분의 목소리도 온전하고 아름다운 꽃이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둘 아닌 지혜로운 마음으로 마음 근본에다 딱 맡겨 놓고 지켜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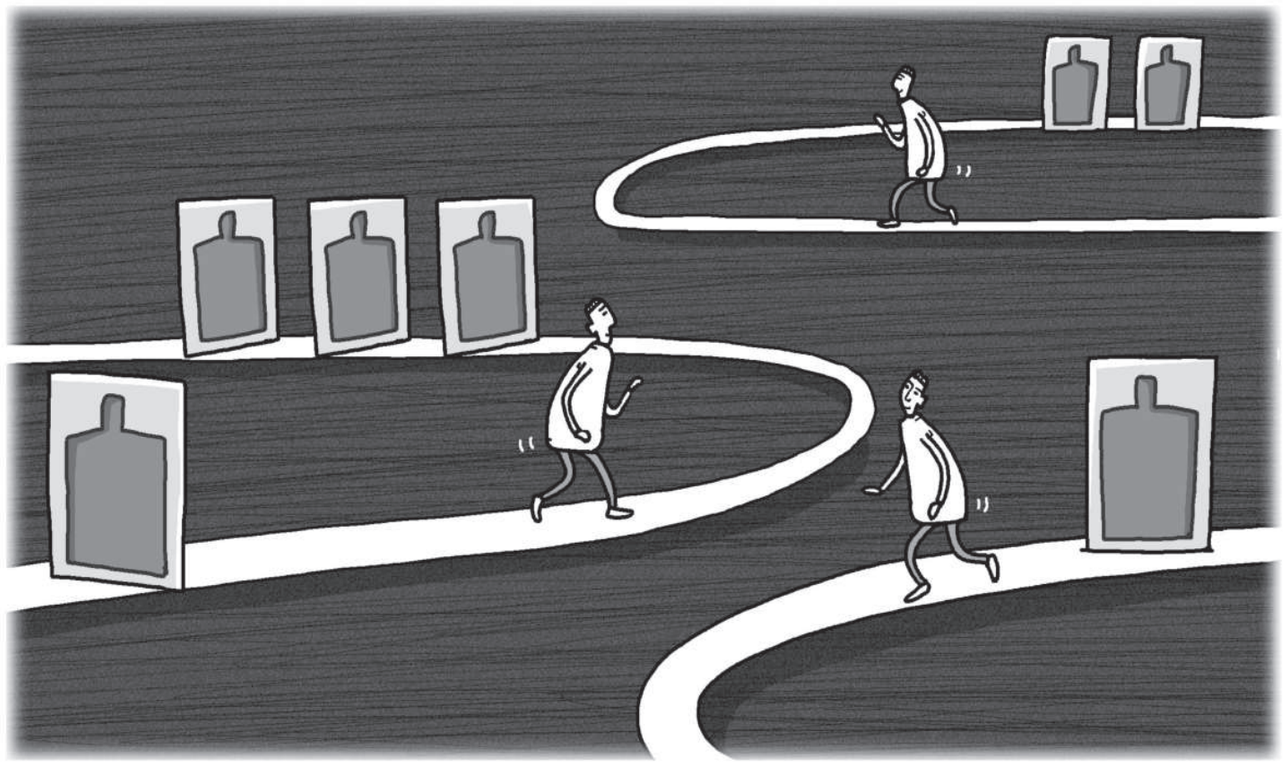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이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 의향이 있다면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세련된 옷을 착 입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더 세련된 옷이 생겼어요. 그게 새로이 유행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벗고 그것을 좀 입어 봐야겠다 이럽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와 같습니다. 죽으면 아주 죽는 게 아니고 사대가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금 생산이 되는 겁니다. 다시 생산이 돼서 다시 새로운, 즉 말하자면 유행되는 옷을 입고 다시 나오죠. 그런데 왜 그 구식의, 유행이 지난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게 떨어질까 봐, 그거 벗겨질까 봐 그냥 애씁니까? 내 마음대로 유행하는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니까 또 오래 살게 되는 거죠. 허허허….

내가 길을 걷거나 절 안에 앉아 있거나 하더라도 한숨이 훅 그냥 맥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개가 뚝 떨어집니다. 내가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먹고 안 먹고 또는 죽고 살고, 이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고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자기가 집합소가 돼 가지고 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혼자 먹지도 않는 거를 혼자 먹는다고 하고 혼자 줬다고 하고 혼자 산다고 하니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혼자 먹었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너 혼자 먹었으니까 혼자 알아서 해라.'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일일이 걸려도 누가 손 한번 대주지 않아요. 한마음으로 도와주질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자기가 혼자 잘났다고 까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경에 이르러도, 어떻게 죽게 돼도 손을 안 대 준단 말입니다. '너 혼자라고 만날 떠드는데, 내가 이렇게 만날 작용을 해 주고 이래도 너 혼자라고 그러는데 혼자 잘해 봐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덕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조금도 에누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남이 미워서 속에다가만 넣고 그냥 말로는 그런 대로 해 나가곤 있지만 속에다가 '조놈 두고 보자.' 하면요, 그쪽에서도 역시 '너 요놈, 두고 보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둘이 아닌데, 뭐. 예전에 몰랐을 때의 내 모습과 같지. 둘이 아니야.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잖아.'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그쪽에서도 역시 아름다운 마음으로써 외려 회개를 하고 "아휴, 내가 전자에 자네한테 참 잘못했어. 참 미안해. 살다 보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 하고 마음이 아주 더 측은하고 참답게 진실한 친구로서 대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가족끼리도 그렇지 못하게끔 울그락불그락하고 야단들이니 어떻게 화목을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림 · 최주현

한마디만 더 하고 질문받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입니다, 항상 내가 그 말은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내 탓으로 돌리고 주인공에 맡겨 놓아야 됩니다. 이런 예가 있었죠. 수원에 어느 삼 형제가 사는데 밭 하나라도 그냥 더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음식을 했어도 하나 주지도 않고, 조금만 잘못해도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서로 패고 들고 싸우고, 참 어렵게 살았더랍니다. 근데 어떡하다가 선원에 오게 됐어요. 선원에 오게 됐는데, 떡 보니까 말입니다, 나한테 착 오는 게 뭐냐 하면 '저렇게 위도 모르고 아래도 모르고 천방지축들이니 안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네들, 자식을 기르고 살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몇 남매나 뒀어?" 그러니까 오 남매를 뒀고 뭐, 삼 남매를 뒀고 모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요다음에 죽을 때에 자식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으레 자식들은 부모를 섬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그럼 자식들이 부모를 섬겨야 한다면 당신네 부모들은 어떻게 섬겼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하고 고개를 푸떡 떨어뜨리더군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 양면을 다 얘기를 해 줬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아파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에게 방바닥이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보지도 않고 불을 때서 엉덩이가 다 타서 죽게 만들고, 죽고 나서도 그냥 깔고 있던 그걸로 그대로 두루루 말아서 갖다가 넣는 게 어딨어?" 그랬더니 고개를 푹 떨어뜨리면서 그걸 어떻게 아시느냐는 거죠. "아, 당신이 알고 있는 걸 내가 알지 당신이 모른다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랬어요. 그때부터 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더니 그 삼 형제는 아주, 모두오 남매인데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다 잘 지내던지 정말이지 잘 살게 됐더랍니다. 외국도 가게 되고요.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나 자식이나 부부지간이나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배척을 해서 버리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거를 그 안에 넣고 '응, 모자랄 때 내 모습과 같아. 그러니까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행,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마음을 먹으면 저절로 잘될 것이고 저절로 복덕이 아니라 공덕을 받게 되고, 저절로 집안이 아주 유하고 광명이 스스로 들어서 하나도 애고가 없이 잘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만나면 사랑하고 만나면 즐겁게 웃고 말입니다.

자식들도 마음과 마음으로 붙들고, 남편 부인도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붙들어야지 몸을 붙들려고 그러고 말로 해서 붙들려고 그런다면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붙든다면 육체는 저절로 붙들어지죠, 허허허. 그 도리가 아주 묘한 도리인 줄 아셔야 될 겁니다. 마음을 붙들어야 육체가 붙들어지고 육체를 붙들어야 화목도 붙들어진다고요.

우리가 몸을 붙들려고 "예이, 이놈의 개새끼, 소새끼!" 하고, 하하하, "너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그 고생한…." 아, 고생을 했으면 같이 고생을 했지 뭐, 혼자만 고생했겠습니까?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끼리끼리 모여 있죠?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있죠? 그와 같이 여러분도 끼리끼리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나무라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렇게 끼리끼리 만났으니 그저 '한마음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고 부드럽게 해 주고, 부드러운 말 해 주고, 부드럽고 정답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러한 마음으로써 사랑하고 위로해 준다면 너무나 행복해지고 잘 살게 될 겁니다, 아마.

부처님 법이 경전에만 있고 부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님 법도 없을 거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 법도 있는 겁니다. 우리네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 자체가, 바로 살림 자체가 바로 부처님 법이자 도입니다. 도도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생활 속에 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하나만 잘 쓰면 물리가 터지고 지혜

☞ 22면으로 계속



하고 싶은 거 다 하되 자기가 했단 생각 하지 말라

☞ 21면에서 계속

롭게 돼서 공덕을 크게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여) 큰스님, 오랫동안 좋은 법문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생활하면서 불교와 생활이 둘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주인공한테 항상 맡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인공한테 항상 맡기면서도 '주인공,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맡기면서도 주인공한테 관하는 방법이 올바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고 항상 의심이 조금씩 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주인공한테 잘 관할 수 있는지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래서 여직껏 말해 주지 않았어요? 당신, 지금 말하는 자체가 바로 그 주인공 놈이라고. 말하게 하는 놈 자체가 바로 주인공 놈이에요. 그러니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하하하….

질문자2(여) 감사합니다. 스님께 어려운 일 병고 액난을 하소연했을 때 스님께서는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맡겨 놓고 관하세요."라고 하십니다. 관하는 도리를 통해 병이 낫게 되었다고 할 경우에, 병이 낫는 까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여직껏 말했지 않소? 회사를 다스리는 회장과 같아서 바로 내 몸속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그 회장의 결정하에 작용을 한다고. 내 몸속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바로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는 데에 따라 작용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믿지도 않고 마음도 정하지 않는데, 결재도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일을 합니까? 그와 같이 내 몸속에서도 결재를 해야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모르겠어요?

질문자3(남) 무량 법문 잘 들었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면서, 막상 선원을 떠났을 때 그 도리를 실천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큰스님의 그 한량없는 자비심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관한다고 함은 곧 지켜보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무엇을 지켜보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생각, 자기의 마음이 현재 상태를 지켜보는 것인가,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놓고 가는 것인가? 이래저래 생각해 봅니다만 여전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큰스님 가르침 청합니다.

큰스님 마음이라는 건 허공과 같아서 마음이 요거 한 가지를 생각했다면 고정되게 고거 한 가지만 딱 물려서 있는 것이 아니죠? 요 마음으로도 화할 수 있고 조 마음으로도 화할 수 있죠? 금방 딴 사람 만났으면 금방 화하고, 또 딴 사람 만났으면 금방 화하고,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주인공에게, 자기 마음 근본에다가 딱 놓고 자기가, 자기 마음이 지켜보는 거예요. 마음이라 그러는 건 이름이에요. 그러나 수천수만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것이 참선(禪)이에요. 그리고 관법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한번 실험하려면, 밥을 짓는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무엇을 하나 해도 실험해 보려면 한번 넣고 지켜보지 않아요? 그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을 그렇게 거기 맡겨 놓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거기 놓고 지켜보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게 실험이요, 그것이 지나가면 바로 체험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놓고 관하고 지켜보고, 관한다는 게 지켜보는 거니까 둘 아닌 지혜로운 마음으로 거기다 맡겨 놓고 지켜본다. 지켜보면 체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아, 고놈이로구나! 고렇게 되는 거로구나!' 하고 그때는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죠.

질문자3(남)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질문자4(남) 큰스님 법어집인 『무』에 보면요, 이 세상은 이렇게 당당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핑계 삼아서 조금 소심해서 잘하지 못했던 것이나 계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대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변명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큰스님 그런데 말이에요, 이 무(無)의 정신계라는 거는 물질이 나오기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도가 나와야 되는데 정신계라는 것은 설계도가 나오기 이전이거든요. 그죠? 설계가 나오기 이전이니까 집을 어떻게 짓든지 설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설계를 해 놔야 집을 짓죠. 생각을 낼 때는 물건이 나오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했으면 물건이 어디서 오든 올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게 뭐냐 하면 마음과 마음이 일체가 다 같이 전달이 돼서 돌아가거든요. 마음이라는 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포괄적으로 돌아가는 우주 법계에 실현이 되는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저주저한다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 뿌리를 무조건 믿고 거기다 놓고 관찰하면서 체험하면서 돌아가다 보면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아, 과감히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것이 둘이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 모두를 알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해서요.

질문자4(남) 감사합니다.

질문자5(남) 큰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여 오늘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기실 그 마음공부의 대상이 어떤 사사로운 이익에 제한돼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기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고통과 고난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스님의 제자로서, 또 부처님의 제자로서 진정 새롭게 추구하고 또 바라야 될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지금 "부처님의 제자로서, 스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한다면 풀 한 포기도 스승 아닌 게 없어요. 부처님만 스승이 아니에요. 나만 스승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강도 짓 하는 사람을 보고도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풀 한 포기도 돌 하나도 물 흘러가는 것도 스승이에요. 그렇게 스승 아닌 게 없으니까 그거를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그런 거예요.

일체 만물만생 모두, 또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합쳐서 삼심, 삼세, 그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한 거니까 그 주인공 하나만 생각하면 뜻으로다가 그냥 둥글려지죠. 그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산란해서 진짜 곧장 들어갈 것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데 모으셔서 거기다 맡기시고 지켜보는 그런 참선자(禪者)가 되세요.

질문자5(남) 그래도 이해가 안 돼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선원에서 스님께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지만 직장에서 일할 때 또 가정에서 문제에 부딪칠 때는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마음자리에 두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하나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큰스님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좀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사람이 안 온다 온다 이런 문제들, 뭐, 잇속을 찾는다, 이(利)가 부진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아,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로 믿는다면, 고꾸라지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거기다가 턱 맡기고 그냥 진짜로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한다면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돈이 많이 벌려도 걸림이 없고요, 돈이 안 벌려도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기 때문에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지 않을까요?

> 진짜로 믿는다면,
> 고꾸라지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마음자리에 턱 맡기고
> 그냥 진짜로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한다면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간단히 생각하세요. 돈을 수만억을 번다 하더라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번 것도 아니고 혼자 가질 것도 아니고 혼자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걸려요? 내가 또 많이 번다고 하는 '내가'라는 생각이, 나를 내세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지 내 한마음이라는 주인공에서 본다면 아이, 그렇게 나가 많은데, 일체가 다 나 아님이 없는데 구태여 왜 거기 걸립니까? 그러니까 선지식들은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죽인 사이가 없고, 깨치지 못한 자는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살생이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증득해야 알아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조건 믿고 거기 맡겨 놓고 지켜보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몇만 냥을 벌더라도, 또 욕심을 내서 생각을 내서 '저걸 벌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나도 당신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데 모여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묘한 법은 여러분이 아마 열심히 해야 아실 겁니다.

질문자5(남) 그럼 스님! 나한테 병이 있다든가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것이 내가 겪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겪고, 이 마음자리가 같이한다고 생각하고 끄달리지 않는다면 올바르겠습니까?

큰스님 그거야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가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 하고 놔야 되죠. 그리고 또 제 몸을 제가 끌고 가는데 '내가 죽으면, 내 몸이 죽으면 네 집합소가 없어지는데, 네 집합소가 없어지면 너도 죽잖아?'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놔야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말입니다, 지금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야, 나가서 장사를 하거나 회사에 다니거나 또는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남과 같이 돈을 벌어야 살 수 있고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데, 다 놓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한번 뒤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걸어오실 때에 그냥 서서 걸어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걸어오긴 했는데 발자취를 하나도 짊어지고 온 게 없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돈벌이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 아래에서 걸어오실 때에 발자취를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걸어오긴 틀림없이 걸어왔는데 걸어온 사이가 없다, 내가 짊어지고 온 게 아니니까. 벌이는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걸어온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되 자기가 했단 말 하지 마라,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두가 공용으로 했다고 생각하라 이겁니다.

주인공에서 모든 것을 공용으로 한 것이지 자기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동시에 우리가 걸음을 걸어왔는데,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떼어 놓고 걸어오긴 했는데 걸어온 자취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혼자 걸은 게 아닙니다. 여럿이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왔지, 아마 위 공장 하나만 그냥 파워가 일어나도 다리도 떼어 놓지 못하고 걸어오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한 거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걸림이 없어요. 그게 참 묘하죠. 말로는 할 수 없는 묘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서 알아서 하세요. 하하하….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3년 9월 19일 국내 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불 논단

사형제 존치 논란과 사회적 안전망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절대적 가치인 '생명' 두고 견해차
범죄자라도 생명박탈 반대의견과
무고한 국민의 생명권 우선 의견

범죄 원인은 개인에만 한정되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화두를 던져
개인의 책임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회 부담할 책임 외면은 부적절

앙굴리말라도 부처님의 안전망서
참회 후 수행자로 거듭나 구제돼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1996년 11월 28일, 2010년 2월 25일에 이어 다시 사형제의 존치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린 것이다.

청구인 측에서는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법적 평가를 통해 가치판단을 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고,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 이며, 범죄자를 재교육한다는 형벌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반론하는 법무부 측에서는 '사형에 따른 범죄자의 생명권과 일반 국민의 생명권이 충돌할 때, 범죄행위로 인한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 방지가 우선' 이라는 점 등을 들어 사형제의 존속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사형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법적 쟁점 자체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오히려 재판부가 양 측에 요구한 질의 중에 '범죄의 책임이 오로지 개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라는 사항에 주목한다. 범죄자의 범죄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 둘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인가의 화두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굳이 장발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범죄의 원인이 단순히 개인에게 국한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자는 소리가 아니다. 개인 역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부담해야 마땅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다만 개인에게 충분히 책임을 지움으로써, 사회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역시 분명하기 때문이다.

부처님 시대에도 유명한 살인자 앙굴리말라가 있었다.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은 살인자 앙굴리말라를 찾아가 교화하고 있다. 앙굴리말라는 참회하고 모범적인 수행자로 거듭나게 된다. 하지만 앙굴리말라 자신도 그리고 부처님도 앙굴리말라가 살인이라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살인의 죄업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충분한 인정과 참회, 그리고 '부처님의 교화' 를 담고 있다. 필자는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이 앙굴리말라를 찾아가는 대목에 주목한다. 깨달음을 성취하신 위대한 수행자 부처님보다는 앙굴리말라라는 살인자의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구호자이면서 안전망의 역할을 자처하는 이로서의 부처님이 더 돋보이는 대목이다. 더욱이 거기에는 앙굴리말라 역시 구제의 대상, 안전망의 대상으로서 고려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사형제를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 그리고 그 논의를 둘러싼 가치관에 대한 고민은 정말 소중하다. 그리고 논의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 그리고 인간존중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묻고 싶다. 그 이상적인 논쟁 안에 직접적인 실천을 담보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는 것인지.

인간 생명은 물론 뭇 생명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주장하는 불교의 교리적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사형제는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형제 존치 여부를 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중함에 대해서이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범죄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불자라면 사형제 존치 논란에 대해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선뜻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찾아 나섰던 부처님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어보아야 한다.

社說

논란 없는 공정선거로 위상 높이길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가 9월 11일로 확정됐다. 7월 26일 선거공고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체제가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2018년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선출된 후 4년 임기를 무탈하게 이끌어 온 상황인만큼, 차기 총무원장 선거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려는 나온다. 그동안 조계종은 선거 때마다 유력 후보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들썩여 왔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전략에 후보들의 명예에 흠집이 나거나 계파간 갈등이나 과열된 경쟁으로 세간의 논란을 빚기도 했다. 더 이상 그런 모습은 안 된다.

탈종단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한국불교 최대종단 조계종이 선거로 인해 흔들리는 모습은 이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공명정대하고 네거티브 없는 선거문화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어보면 어떨까. 종단 선거법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 운영을 통해 제37대 총무원장이 어떠한 논란 없이 선출된다면 종도들의 자긍심과 자부심도 한층 더 해질 것은 자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 또 종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자 원력과 포부를 품은 후보들의 마음자세도 남달라야 할 것이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선출되겠다는 의지보다, 종단의 대내외적 위상과 종도들의 관심, 사회적인 여론을 두루 고려해 종단을 위해 진정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4년만에 돌아오는 총무원장 선거가 그 어느 선거보다 여법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길 발원해본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취지 알려져야

상월결사가 천막결사 이후 3년간의 국내 성지순례를 바탕으로 마침내 인도로 떠난다.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43일간 1167km를 걷는 대장정이다. 부처님의 전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를 연결한 길을 직접 한걸음 한걸음 걸을 수 있는 기회다.

상월결사는 불교중흥과 함께 국난극복과 세계평화를 외치며 매년 걷기순례를 이어왔다. 2000년 전 부처님이 모든 중생의 안락과 평화를 위해 정진한 것과 마찬가지다.

인도에서의 행선이 쉬운 것은 아니다. 하루 평균 27km를 걸어야 하며 학교 공터나 흰두사원 등에서 숙영을 한다. 피치 못할 경우에는 숲에서도 잠을 잔다. 또 무더위를 피해 새벽 3시에 출발하는 등 국내에서의 순례보다 한층 더 어려운 환경이 펼쳐진다.

그럼에도 인도 성지순례를 이어가는 이유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 체득하겠다는 서원 때문이다. 불제자로서 부처님을 따라 그 길을 걷고 불교 중흥을 위해 다시 한번 나서겠다는 다짐이다.

이제 남은 것은 108명의 순례단을 선별하는 것과 상월결사의 인도 성지순례가 불교계 안팎에 불어올 감동을 확대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보다 많은 이들이 왜 상월결사가 인도 부처님 성지에 가고자 하는지를 알고 그 본 취지에 공감하여 한 마음으로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다.

부처님께서는 수십년 전법의 길을 걸으셨다. 하지만 혼자 걸으신 것은 아니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인연들이 함께 걸었다. 물리적으로 함께 걷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함께 했다. 보다 많은 이들이 상월결사에 마음을 모아주길 기원한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⑥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삶은 곧 다양성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64의 높은 아이큐를 지닌 신입 변호사가 등장하는 법정 드라마이다.

우영우는 수많은 법조문과 판례를 외울 수 있는 높은 지능지수를 지닌 동시에 자폐증을 앓는 까닭에 유치원생도 능히 해내는 일상적인 일들조차 버거워할 만큼 낮은 감성지수도 지녔다. 우영우가 한 회에 한 개의 사건을 해결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 이 드라마는 신생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됐음에도 불구하고, 5회부터는 시청률이 10%를 기록함으로써 화제가 되었다.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법정드라마의 리얼리티가 살아 있다. 우영우가 일하는 법무법인 '한바다' 는 국내 대형로펌 중 태평양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법인 이름이 유사하고, 역삼역 인근에 법인사무실이 있고, 거대한 고래 사진이 대회의실에 있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우영우라는 특별한 캐릭터가 이 드라마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제3회에서 우영우는 선배 변호사인 명석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폐의 공식적인 진단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스펙트럼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자폐인은 천차만별입니다. 꼭 고래처럼요. 같은 고래라도 대왕고래나 긴수염고래는 혹등고래와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와 사회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영우의 말은 〈법화경〉의 약초유품을 떠올리게 한다. "구름에서 비가 내릴 때 비는 사방 어디에나 똑같이 땅을 적셔주지만 초목은 뿌리로 빗물을 빨아들여 크게 자라는 것은 크게 자라고 작게 자라는 것은 작게 자란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법은 일미평등(一味平等)하지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빗물이 초목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 법이 세간의 중생들을 성숙시켜 주어 구경에 성불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차만별의 삶을 사는 것은 비단 자폐인만이 아니다. 모든 생명체는 모양과 성질이 각기 다르다.

우리는 공정(公正)한 법조인을 원한다. 공정하다는 것은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의미이다. 실정법(實定法)은 천부인권(天賦人權)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칼과 저울만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없다. 칼은 엄정한 법적 규제를 의미한다. 하지만 활인검(活人劍)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 칼은 공포의 대상이 된다. 그런 까닭에 엄벌주의보다는 교정주의가 성숙된 법치주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저울은 개인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조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저울에 든 물건의 값어치도 그 주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공평함은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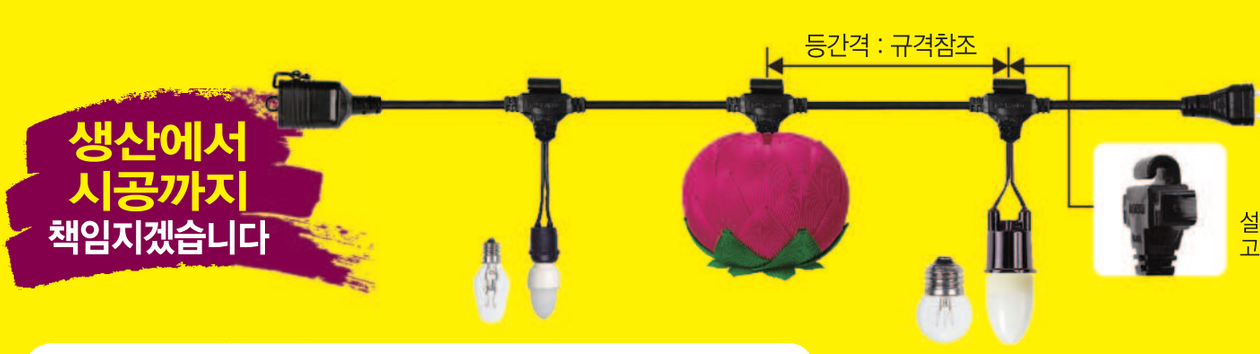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기에 우영우는 매회 각기 다른 스펙트럼의 사건을 해결하는지도 모르겠다.

우영우가 '이상한 변호사' 인 이유는 해당 사건의 법조문만 따지는 다른 변호사들과는 달리 사건이 아닌 사람에게 주목하고, 나아가서는 각기 다른 '사람의 향기' 를 느끼기 때문이리라.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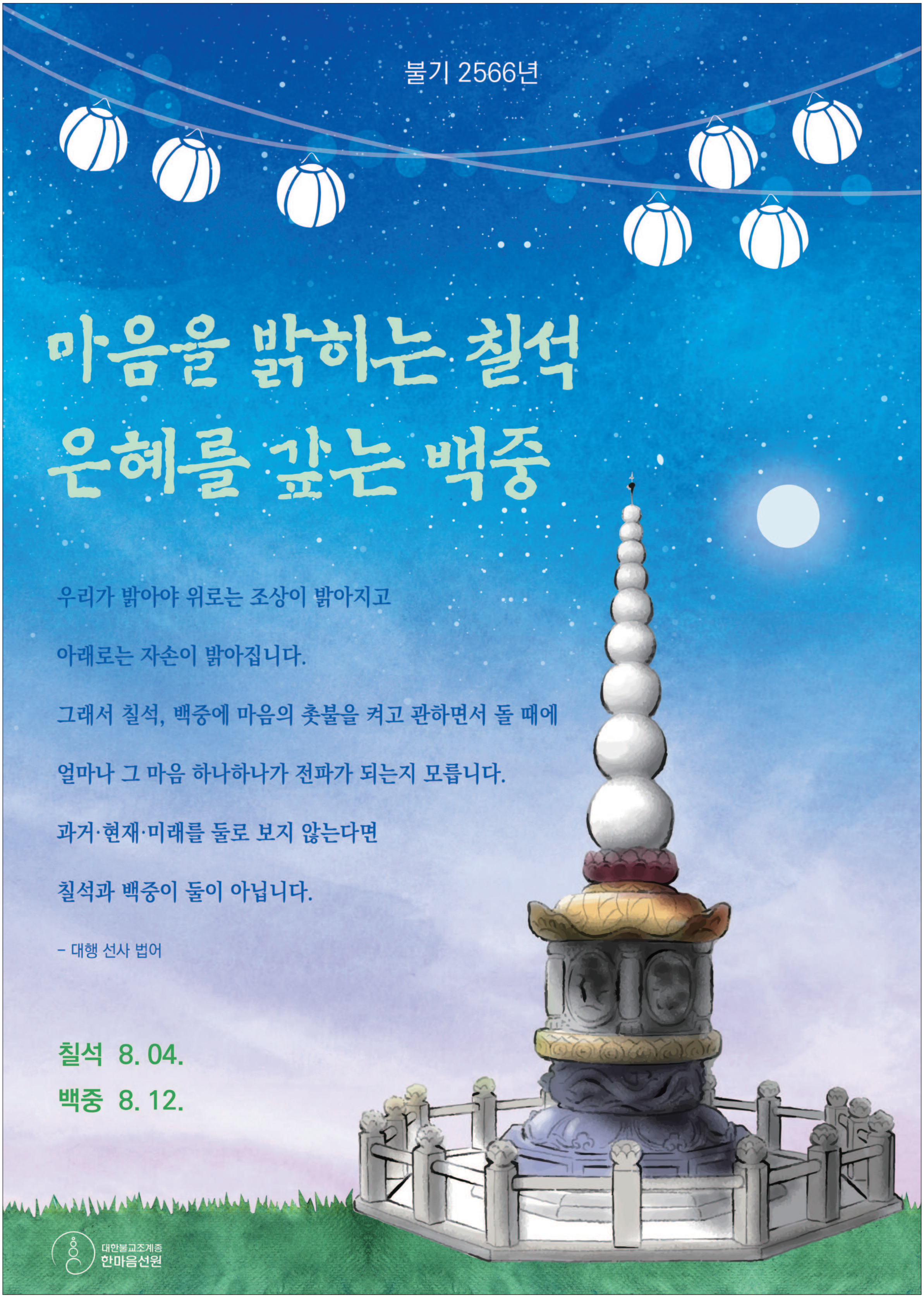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불기 2566년
마음을 밝히는 칠석
은혜를 갚는 백중
우리가 밝아야 위로는 조상이 밝아지고
아래로는 자손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칠석, 백중에 마음의 촛불을 켜고 관하면서 돌 때에
얼마나 그 마음 하나하나가 전파가 되는지 모릅니다.
과거·현재·미래를 둘로 보지 않는다면
칠석과 백중이 둘이 아닙니다.
- 대행 선사 법어
칠석 8. 04.
백중 8. 1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